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7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한국 서남부지역 이중구연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왕 준 상

한국 서남부지역 이중구연호 연구

A Study of Pottery with two-fold mouth in Southwest Korea

2007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왕 준 상

한국 서남부지역 이중구연호 연구

지도교수 이 기 길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왕 준 상

왕준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목포대학교 교수 최성락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기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병용 (인)

2007년 5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차 례

Abstract

제1장 머리말 1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2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7

제2장 이중구연호의 출토 유적 검토 9

1. 중서부지역 9

2. 서해안지역 17

3. 영산강 상류지역 27

4. 영산강 중·하류지역 32

5. 보성강지역 43

6. 탐진강지역 44

7. 해남지역 45

제3장 이중구연호의 형식분류와 편년 48

제1절 속성 검토 및 형식분류 48

- 1. 구연부 48
- 2. 저부 49
- 3. 동체부 50
- 4. 형식분류 52

제2절 유구 및 공반 유물 검토 58

- 1. 유구 검토 58
- 2. 공반 유물 검토 62

제3절 이중구연호의 편년 68

- 1. 편년 68
- 2. 절대연대 검토 70

제4장 이중구연호의 변천과 성격 73

제1절 시기별 변화 73

제2절 지역별 특성 74

제3절 이중구연호의 성격 77

제5장 맺음말 80

참고문헌

부록

표 차례

- 표 1. 서울 가락동고분 출토 이중구연호
- 표 2. 천안 두정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 표 3. 홍성 신금성 출토 이중구연호
- 표 4. 청원 송대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 청주 송절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6. 공주 이인면 수습 이중구연호
- 표 7. 공주 남산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8. 부여 능산리 수습 이중구연호
- 표 9. 부여 소사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10. 부여 초촌면 수습 이중구연호
- 표 11. 서천 지산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12. 서천 봉선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13. 서천 선도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14. 서천 오석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15. 논산 연산면 수습 이중구연호
- 표 16. 논산 마전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17. 전주 송천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18. 김제 심포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19.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0. 부안 부곡Ⅱ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1. 부안 대동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2. 부안 장동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3. 부안 신리Ⅲ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 표 24. 고창 부곡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5. 고창 교운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6. 고창 봉덕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7. 고창 만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8. 고창 예지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29. 영광 라본고분 수습 이중구연호
- 표 30. 영광 신당고분 수습 이중구연호
- 표 31. 영광 마전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32. 영광 군동“라”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33. 영광 군동“가”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34. 영광 하화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35. 영광 구산동고분 수습 이중구연호
- 표 36. 영광 장혈고분 수습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37. 광주 오룡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 표 38. 광주 일곡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39.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40. 광주 용봉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 표 41. 광주 쌍촌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42. 광주 풍암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 표 43. 광주 세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44. 화순 운월리 운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45. 나주 방축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46. 나주 복암리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47.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48. 함평 월야 순촌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49. 함평 용산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0. 함평 대성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1. 함평 소명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2. 함평 중량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3. 함평 성남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4. 무안 인평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5. 무안 양장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6. 나주 용호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7. 영암 옥야리 신산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8. 영암 월송리 송산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59. 영암 금계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60. 영암 선황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61. 순천 요곡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 표 62. 순천 대곡리 도롱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63. 보성 금평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 표 64. 장흥 지천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 표 65. 장흥 상방촌A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66. 해남 신금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 표 67. 바닥과 동체 세장도 관계
- 표 68. 바닥, 동체 세장도와 구연부의 관계
- 표 69. 이중구연호 일람표
- 표 70. 이중구연호의 형식과 출토유구
- 표 71. 이중구연호 형식별 출토유적 및 유구
- 표 72. 이중구연호 편년안
- 표 73. 방사성탄소연대값(C14)
- 표 74. 열발광연대값(TL)
- 표 75. 고지자기값
- 표 76. 이중구연호의 형식별 지역 분포
- 표 77. 이중구연호 용량 분포

그림 차례

- 그림 1. 이영철의 형식분류
- 그림 2. 서현주의 형식분류
- 그림 3. 이중구연호 출토유적 분포도
- 그림 4. 이중구연호 구연모습
- 그림 5. 구연부 지역별 분포
- 그림 6. 저부의 모양
- 그림 7. 저부의 형태
- 그림 8. 이중구연호 동체 세장도
- 그림 9. 동체의 모양
- 그림 10. 최대경고비 위치도
- 그림 11. 돌기, 고리(耳) 위치도
- 그림 12. 이중구연호의 형식분류
- 그림 13. 김영희의 토광묘 형식분류
- 그림 14. 이중구연호 형식별 지역분포도
- 그림 15. 이중구연호의 용량 분포도

ABSTRACT

A Study of Pottery with two-fold mouth in Southwest Korea

Wang, Jun-sang

Advisor : Prof. Lee, Gi-kil, Ph.D.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t was identified that pottery with two-fold mouth for which one mouth is laid over a turning mouth or a pivot is turned over a mouth was made in Baekje period. However, its remains were found in Han River and Youngsan River basins. As they were mainly found in south of Seoul than in Seoul, it was decided to be related to Mahan. These days, more excavated relics have been examined, through which it was found that a great number of the remains are distributed in South and Middle West. In particular, it was mainly found from remains buried in Youngsan River basin of Honam area and West Coast. And a small number of pottery with two-fold mouth are being excavated in Kyushu, Japan.

In existing studies, pottery with two-fold mouth was mentioned along with accompanied remains or chronological record simply according to regions. No terminology on pottery with two-fold mouth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periods of its creation between scholars and classification of its styles was simple.

This study roughly classified the bottom of pottery with two-fold mouth and types of the body according to workings into eight to examine periodical and regional changes of each type. According to the existing data,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showed changes according to periods and regional variations.

The types were classified into Type A, Type B, and Type C, and Type a appeared in every type and every period. And Type C is shown in large jar coffins or large pots. For pottery with two-fold mouth, type a appeared first, followed by type b and c. And both the flat bottom and circular bottom appeared simultaneously, but the flat bottom was mainly used in early period. The body was changed as follows: A→B→C→D→E and projection disappeared later.

The pottery with the two-fold mouth showed the following changes: I A→I B · II A→I C · II B · II D · II C→II E. In the early 3rd century, pit tombs with ditch began to appear in the middle and lower areas of Youngsan river and types were I A, I B, and II A. After the middle 3rd century,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was excavated and various types of pottery such as I A, I B, I C, II A, II B, II C, and II D were excavated. After the middle 4th century, the number decreased remarkably, but 4 II A and II E were found and II A was found in residential area of Honam region until the 6th century.

Regionally, pottery with two-fold mouth of I A, I B, and II A began to appear from pit tombs of early periods in west coast, and the middle and lower areas of Youngsan river, and after the middle 3rd century, type II A, II B, II D, and I C pottery appeared, having regional colors. Type II A was found in middle and west area, type II B in west coast, type II D in residential area of the upper area of Youngsan river, and I C in the middle and lower area of Youngsan river.

And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of type I A, I B, I C, II A, II B, and II C were found in pit tombs and type II A was mainly found in the middle and west Korea, and various types were found in Honam region. The types of the pottery excavated from jar coffin tombs were less than those from pit tombs, and type I B, I C, II A, II B, and II D were found.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were used as grave goods or alternative coffins and found in Honam

region. From residential areas, type I A, I B, I C, II A, II B, II D, and II E were excavated. However, the number of type II A were the most and most of them were found in residential area.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were grave goods or alternative coffins in function, and used for storage in residential area. As no difference was found in quantity of pottery with two-fold mouth excavated from burial remains and residential remains, it is assumed that earthen wares were not produced separately for burial and living, but all the pottery of more than 20 ℓ was excavated from burial, which indicates that it was produced only for burial.

Thus,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have been excavated from pit tombs of the middle and west area, and residential area of Honam region in the 3rd and 4th centuries. And Honam has the largest number of pottery with two-fold mouth, and type I A of early period was concentrated in the middle and lower area of Youngsan river, and west coast. As its various types were found in Honam, it is assumed that Honam is the first area where the pottery was produced and prevailed.

And in the 3rd and 4th centuries when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was mainly excavated, pit-style tombs in Honam region were changed into jar coffin-style tombs.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appeared before old tombs were introduced and this region at that time was related to Mahan, rather than Baekje.

This study classified types of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according to bottoms and workings of body to identify its changes. The pottery was mainly excavated from pit tombs, pit tombs with ditch and residential areas in Honam region in the 3rd and 4th centuries, showing various types and regional varie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ttery with two-fold mouth was first produced in Honam region and spread over the middle and west area of Honam region and Kyushu, Japan.

제1장 머리말

이중구연호¹⁾는 외반하는 구연위에 다시 구연을 올려놓거나 구연에 돌대를 돌려 만든 것으로 頸部突帶附加壺²⁾, 帶頸壺³⁾, 뚜껑받이그릇⁴⁾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 토기는 서울 가락동 2호분⁵⁾에서 출토되어 백제토기로 파악되었으나 한강유역에서부터 영산강유역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백제의 중심지인 서울지역보다 이남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어 마한과 관련된 토기로 파악되고 있다⁶⁾. 최근 출토 유적이 많이 조사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에 많은 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한강과 금강유역에서는 현재까지 17여 곳의 유적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으나 유적수에 비해 출토량은 많지 않고, 호남지역 특히 영산강유역과 서해안지역의 매장유구와 생활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적은 양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되고 있다⁷⁾.

이와 같이 이중구연호는 한강유역에서 영산강유역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호남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3~4세기대에 집중적으로 출토되

1) 이중구연호는 용어상 유물의 형태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시대의 이중구연토기와 혼동하기 쉬우며, 개배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그릇과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頸部突帶附加壺, 帶頸壺, 뚜껑받이그릇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頸部突帶附加壺, 帶頸壺는 형태에 비중을 둔 용어로 생각되고, 뚜껑받이그릇은 턱의 기능만을 부가시킨 용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유물의 형태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까지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겠다.

2)成正鏞, 1998. 〈錦江流域 4~5世紀 墳墓 및 土器의 樣相과 變遷〉《百濟研究》第28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3) 박순발, 2001. 〈帶頸壺一考〉《湖南考古學報》13, 湖南考古學會.

4) 이기길·김선주·최미노,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5) 尹世英, 1971. 〈可樂洞 百濟古墳 第一號·第二號墳 發掘調査略告〉《考古學》3, 韓國考古學會.

6) 金鍾萬, 1999. 〈馬韓圈域出土 兩耳附壺 小考〉《考古學誌》第10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7) 서현주, 2001. 〈二重口緣土器 小考〉《百濟研究》第33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7) 임영진은 백제가 서울 강남지역에 자리잡는 3세기 중엽이전까지 일본은 마한에 해당하는 서남부지역보다 변한, 가야에 해당하는 낙동강유역권과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3세기 중엽이전에는 마한계 이중구연호 이 일본으로 전해질 기회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林永珍, 2006. 〈墳周土器를 통해 본 5-6世紀 韓日關係一面〉《고문화》제67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武末純一, 2000. 〈九州의 百濟系 土器-4·5世紀를 中心으로-〉《日本所在百濟文化財調査報告》II, 國立公州博物館.

吉井秀夫, 2002. 〈日本出土 百濟(馬韓)土器의 諸問題〉《日本所在百濟文化財調査報告》III, 國立公州博物館.

고 있어 중서부 이남지역의 토기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중서부 이남지역에서 출토된 토기 연구는 마한·백제 토기 전반에 대한 연구 속에서 이중구연호,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조족문토기, 삼족토기, 뚜껑, 완, 개배, 분주토기 등 개별기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⁸⁾. 이러한 개별기종에 대한 연구는 보다 안정된 편년자료를 확보하여 개별유적의 시간적 위치와 토기의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중서부 이남지역의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중구연호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시기적, 지역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이중구연호는 외반하는 구연위에 다시 구연을 올려놓거나 구연에 돌대를 돌려 만든 그릇으로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중구연호에 대한 연구는 지역에 따라 또는 공반유물로 간단하게 검토되었다.

안승주는 이중구연호을 직립된 짧은 목 중간에 凸帶를 돌려 이것을 뚜껑을 받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았고 가락동 2호분, 충남 부여 소사리 D호분, 공주 남산리 출토 유물 등으로 백제토기로 간주하고 2세기경으로 파악하였다⁹⁾.

성낙준은 나주 반남과 영암 시종지역의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기를 비교하면서

-
- 8) 임영진, 1996. 〈백제초기 한성시대 토기연구〉 《호남고고학보》 4, 호남고고학회.
成正鏞, 1998. 〈錦江流域 4~5世紀 墳墓 및 土器의 樣相과 變遷〉 《百濟研究》 第28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金鍾萬, 1999. 〈馬韓圈域出土 兩耳附壺 小考〉 《考古學誌》 第10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서현주, 2001. 〈二重口緣土器 小考〉 《百濟研究》 第33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박순발, 2001. 〈帶頸壺一考〉 《湖南考古學報》 13, 湖南考古學會.
박순발, 2001. 〈深鉢形土器考〉 《湖西考古學》 第4·5合輯, 湖西考古學會.
박순발, 2002. 〈백제의 국가 형성과 백제토기〉 《백제논업》 6, 國立公州博物館.
임영진, 2003. 〈한국 분주토기의 기원과 변천〉 《호남고고학보》 17, 호남고고학회.
全炯玟, 2003. 《湖南地域 長卵形土器의 變遷背景》, 全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박순발, 2005. 〈토기상으로 본 호남지역 원삼국시대 편년〉 《호남고고학보》 21, 호남고고학회.
崔榮柱, 2006. 《鳥足土土器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서현주, 2006. 《榮山江流域 三國時代 土器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 9) 안승주, 1985. 〈土器〉 《韓國史論》 15, 國史編纂委員會.

이중구연호는 반남지역에서는 출토 예가 없고 시종지역에서도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고분에서만 출토되며 함께 출토되는 토기들도 회청색 경질토기는 섞여있지 않아 옹관고분의 발생기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다가 개부양이호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중구연호는 뚜껑을 받치기 위해 짧은 목 중간에 凸帶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¹⁰⁾.

성정용은 이중구연호를 경부의 중간에 돌대가 달린 것으로 보고 頸部突帶附加壺라 하였다. 3세기 후엽~4세기 전엽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으며, 基部 燕尾形의 첩모 사용과 함께 꺾쇠와 관정의 사용에 의한 관 결구 방식의 일부 변화, 평저호와 이중구연호 등의 존재는 한강유역의 백제가 이 지역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있으며, 이전과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¹¹⁾.

함순섭은 서울 가락동 2호묘 출토 이중구연호를 한성시기 백제토기로 보고 청주 송절동 93-B-4호묘 출토 이중구연호를 금강유역권에서 백제 한성시기 토기의 초출로 보고 백제가 안정된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4세기초로 설정하였다¹²⁾.

김중만은 양이부호를 형식분류하면서 공반하는 이중구연호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중구연호는 금강유역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기 때문에 양이부호 문화권과 동질적인 요소로 간주되며, 시기적인 선후관계는 동체에 돌기가 있다던가 대(帶)가 돌려져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¹³⁾.

김성남은 중부지방 3~4세기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로 고분을 편년하면서 이중구연호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직립하는 목에 돌대를 부착한 것을 경부돌대식, 외반구연 위에 직립형 구연을 부착한 것을 직구부가식이라 지칭하고, 이 둘을 포괄하여 복합구연식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충청북부지역과 가락동 2호분을 3세기 중엽으로 보았다¹⁴⁾.

10) 成洛俊, 1988. 〈榮山江流域 甕棺古墳 出土土器에 대한 一考察〉《全南文化財》創刊號, 全羅南道).

11) 成正鏞, 1998. 〈錦江流域 4~5世紀 墳墓 및 土器의 樣相과 變遷〉《百濟研究》第28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성정용, 1998. 〈3~5世紀 錦江流域 馬韓·百濟 墓制의 樣相〉《3~5세기 금강유역의 고고학》제2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12) 咸舜燮, 1998. 〈錦江流域의 馬韓에서 百濟로의 轉換〉《3~5세기 금강유역의 고고학》제2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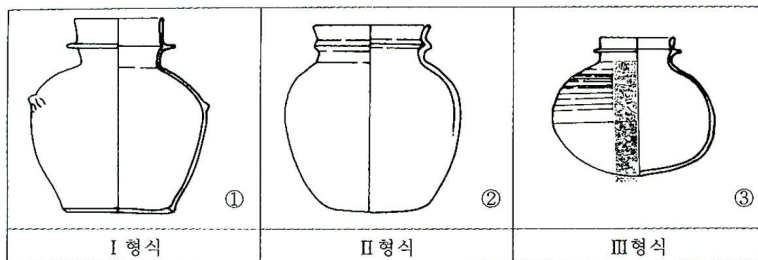
13) 金鍾萬, 1999. 〈馬韓圈域出土 兩耳附壺 小考〉《考古學誌》第10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4) 金成南, 2000. 《中部地方 3~4世紀 古墳群 一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박순발은 이중구연호의 가장 큰 형태적 특징을 목부분의 돌대로 보고 그 제작과정을 유추해 구연부를 한차례 덧댄 결과로 보았다. 그래서 頸部突帶形 口頸部添加壺라 하였지만, 그릇의 명칭으로서는 너무 복잡한 단점이 있어 帶頸壺라 하였다. 대경호의 기원과 관련해 요동반도 및 낙랑지역의 節頸壺를 받아 들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중구연호를 국가 단계 百濟의 특징적인 토기양식으로서 漢城樣式 百濟土器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출현시점은 일본열도의 彌生~古墳期 토기와 관련하여 볼 때 늦어도 3세기 중엽경 이전으로 보았다¹⁵⁾.

한옥민은 전남지방 토광묘의 형식을 분류하면서 이중구연호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중구연호는 II기 토광묘단계(2세기~3세기 후반)에 보이며, 시간적 변화가 전(턱)의 역할과 관련될 것으로 보고 I형식 구연부가 밖으로 외경하면서 평저인 것과 II형식 구연부가 직립하면서 원저인 것으로 나누었다. I형식의 경우 상한연대가 2세기대로 올라갈 가능성을 언급하였다¹⁶⁾.

이영철은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사회의 구조를 연구하면서 이중구연호를 형식분류하였다. 그는 구연부, 동체부, 저부의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3형식으로 구분하였는데, I형식은 옹관고분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단계의 표지적인 부장유물로 보았으며, 영광, 고창, 함평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II형식은 매우 다양한 속성 변화가 일어나며 생활유적에서 용량이 큰 장동화 형태가 나타난다. 또한 옹관고분 부장 예가 높아지며, 외면에는 타날문양이 등장하고 소성도는 점차 경질화되고 있으며 분포범위는 I형식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III형식은 저부



<그림 1> 이영철의 형식분류

15) 박순발, 2001. <帶頸壺一考> 《湖南考古學報》13, 湖南考古學會.

16) 한옥민, 2000. 《전남지방 토광묘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학위논문.

한옥민, 2001. <전남지방 토광묘 성격에 대한 고찰> 《湖南考古學報》13, 湖南考古學會.

가 원저화되어 몸체가 구형 내지는 편구형에 가까워지고 기면에 타날문이 거의 예외 없이 확인되며 소성도는 경질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I→II→III형식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¹⁷⁾.

서현주는 기종에 따라 평저호(뚜렛한 평저, 말각평저), 원저호, 난형호, 장란형토기, 소옹으로 분류하고 그 시기적·지역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중구연호는 다양한 성격의 분묘와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데 주로 외반구연평저호가 분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토광묘계의 무덤과 주거지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외반구연토기에 이중구연이라는 요소가 채용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평저의 이중구연호가 먼저 나타나고 단경편구형의 원저호나 장란형토기, 소옹 등 여러 기종에 그 요소가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 평저의 이중구연호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호남지역을 초출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3~4세기대에 집중되며 출현시기를 3세기 중엽경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⁸⁾.

기종·형식	평저호		원저호	난형호	장란형토기	소옹
	뚜렛한평저(a)	말각평저(b)				
도면						

<그림 2> 서현주의 형식분류

이와 같이 이중구연호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물의 공반 유물 또는 유구를 편년 하면서 언급되었고, 지역에 따라 간단하게 검토되었다. 이중구연호 대한 이러한 언급은 이중구연호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의미하며 이중구연호의 특징이 시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이중구연호가 백제 토기가 아닌 마한 토기로 새로이 인식되었으며, 이중구연호의 기원과 교류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유구의 편년과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기여

17) 이영철, 2001.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8) 서현주, 2001. 〈二重口緣土器 小考〉 《百濟研究》 第33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서현주, 2006. 《榮山江流域 三國時代 土器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한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중구연호는 경부돌대부가호, 대경호, 뚜껑반이그릇 등 용어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출현 시기도 2세기경, 3세기 중엽, 4세기초 등 학자마다 조금씩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중구연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발굴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자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중구연호에 대한 형식분류는 이영철과 서현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인 연구는 서현주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형식분류의 기준인 기종은 이중구연호의 속성을 다 표현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이중구연호는 서울 가락동 2호분¹⁹⁾에서 출토되어 백제 토기로 인식되었으나 한강유역에서부터 영산강유역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백제의 중심지인 서울지역보다 이남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어 마한 토기로 인식되고 있다²⁰⁾. 지금까지 이중구연호는 출토빈수가 낮아 다른 유물의 공반 유물로 지역에 따라 간단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 호남지역 특히 영산강지역과 서해안지역의 3~4세기대의 매장유구인 토광묘와 생활유구인 주거지에서 집중 출토되고 있다.

앞 절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중구연호는 아직까지 용어가 확립되지 못하였고, 출현 시기도 학자마다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자료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형식분류 또한 이중구연호의 속성을 다 표현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중구연호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유적과 유구를 정리하고, 지도에 유적을 표시하겠다. 그리고 이중구연호의 속성인 구연부, 동체부, 저부를 파악하고 저부와 동체 세장도가 이중구연호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통해 형식분류하겠다. 그리고 형식분류를 통해 편년을 나누고 이중구연호의 시기별, 지역별 변화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II 장에서는 이중구연호 출토유적을 알아보려고 한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군은 일반적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한강지역, 금강지역, 서해안지역, 영산강 상류지역, 영산강 중·하류지역, 보성강지역, 탐진강지역, 해남지역으로 나누고, 한강지역과 금강지역은 출토 유적 및 유구수가 적어 중서부지역으로 통합하여 이중구연호 출토 유적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출토 유적을 지도에 표시하여 유적의 분포를 알아보려고 한다.

III 장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이중구연호 중 완형으로 복원되어 그릇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릇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속성을 통해 형식분류를 시도하고 출토 유구와 공반 유물을 검토하고 편년을 살펴보고자 한다.

19) 尹世英, 1971. 〈可樂洞 百濟古墳 第一號·第二號墳 發掘調査略告〉《考古學》3, 韓國考古學會.

20) 金鍾萬, 1999. 〈馬韓圈域出土 兩耳附壺 小考〉《考古學誌》第10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서현주, 2001. 〈二重口緣土器 小考〉《百濟研究》第33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절에서는 이중구연호의 구연부, 저부, 동체의 속성을 계측하고 계측으로 인해 객관화된 각 속성과 속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중구연호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저부와 동체의 세장도를 중심으로 8개의 형식으로 형식분류를 시도 하겠다.

2절에서는 이중구연호의 출토 유구와 공반 유물을 검토하겠다. 출토 유구는 매장 유구인 토광묘, 옹관묘, 석실분과 생활유적인 주거지, 가마, 조개무지, 도랑 등으로 구분하였고, 공반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분류하여 정리하겠다.

3절에서는 형식분류를 토대로 편년을 설정하겠고, 절대연대를 검토하겠다.

IV장에서는 이중구연호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형식을 토대로 시기별 변화상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이중구연호의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중구연호의 성격과 용량을 통해 이중구연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제2장 이중구연호의 출토 유적 검토

이중구연호는 한반도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은 이중구연호의 최대 집중분포지역이며, 무덤과 생활유구인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중구연호 출토유적을 하천 중심으로 한강지역, 금강지역, 서해안지역, 영산강상류지역, 영산강중하류지역, 보성강지역, 탐진강지역, 해남지역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출토유적과 유물의 수가 적은 한강지역과 금강지역은 중서부지역으로 만경강 상류지역인 완주 상운리유적과 전주 송천동유적은 서해안지역으로, 남해안지역인 보성 금평유적은 보성강지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그림 3).

1. 서해안지역

① 풍납토성²¹⁾

유적은 한강변 충적대지에 위치한 평지토성으로 백제 한성 도읍기에 축조·사용된 토성이다. 이중구연호는 경당지구 중층 101호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101호 유구는 경당지구 중층의 이른 단계에 해당되며 선행하던 원삼국기 주거지(211호)를 파괴하면서 만들어졌다. 출토된 토기는 한성기 백제토기의 전형이 아니라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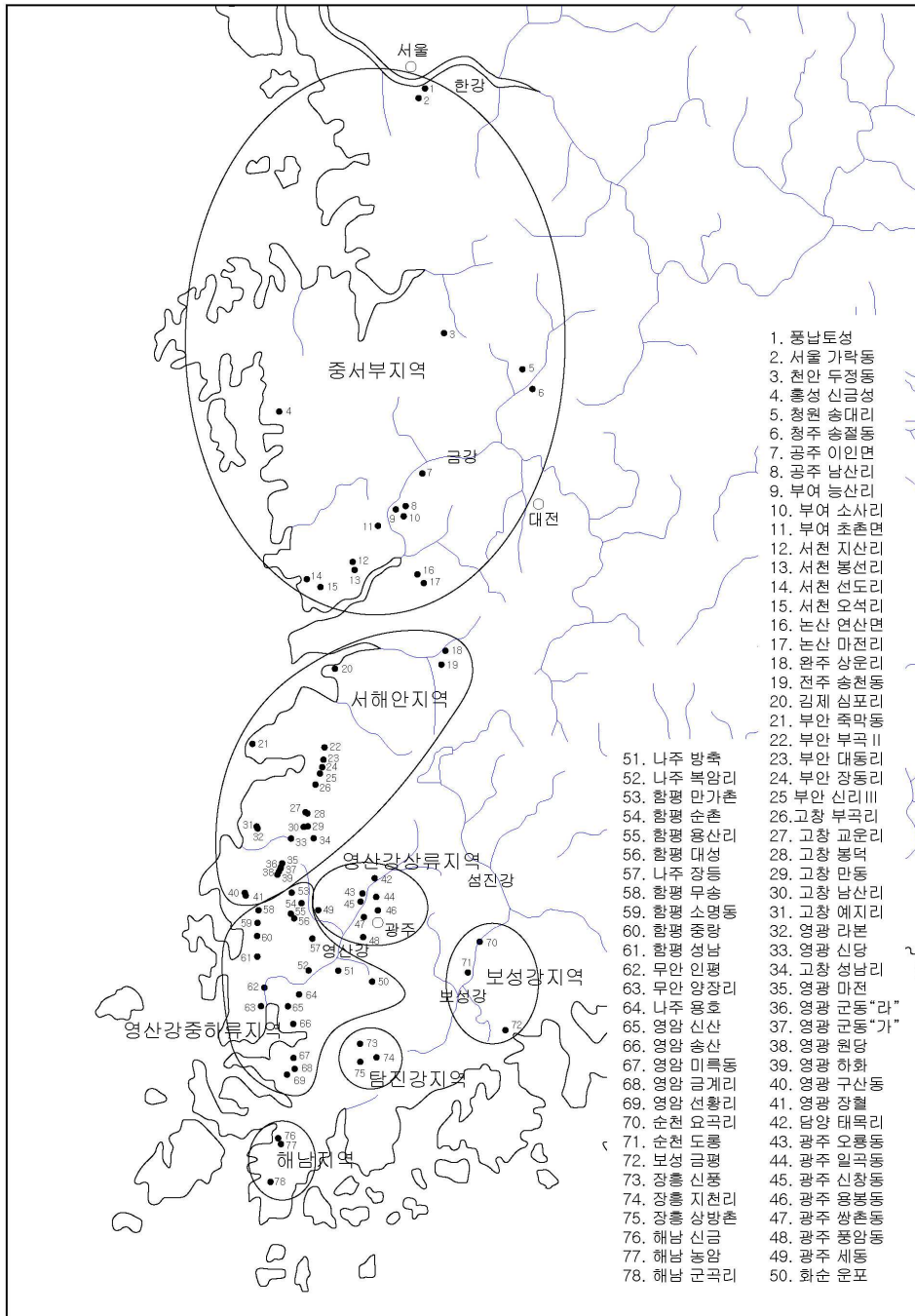
② 서울 가락동고분²²⁾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 위치한 초기 백제고분이 확인된 유적이다. 가락동 백제고분은 모두 6기가 확인되었으며, 백제 한성 도읍기로 알려진 인근유적과 인접하고 있어 백제 초기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구연호는 2호분내 토광묘 제3주체에 출토되었다. 2호분은 움무덤으로 분구의 전체적인 형태는 방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기저부의 각변은 12~15m 정도의 규모이다. 이 고분은 하나의 봉토 안에 4개의 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단식 옹관과 3개의 움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4기의 무덤을 하나의 큰 봉토로 덮은

21) 權五榮·韓志仙, 2005. 《風納土城》VI,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22) 尹世英, 1971. 〈可樂洞 百濟古墳 第一號·第二號墳 發掘調査略報〉《考古學》3, 韓國考古學會.



<그림 3> 이중구연호 출토유적 분포도

것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흑색항아리 2점과 회색 경질토기 4점, 꺾쇠, 작은 쇠칼, 띠고리, 쇠투겁창 등이 있다.

<표 1> 서울 가락동고분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분 3주체	완형	회청색 경질	

③ 천안 두정동유적²³⁾

유적은 노태산(141m)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려온 능선에서 다시 남쪽으로 갈라져 나온 두 개의 가지능선에 해당한다. 두 개의 가지능선 중 편의상 동쪽에 있는 것을 I 지구, 서쪽에 있는 것을 II 지구로 하였다.

I 지구에서 주거지 4기, 원형 저장공 5기, 토광묘 5기, 옹관묘 2기, 횡혈식 석실 분 1기, 수혈식 석실분 1기, 조선시대 수혈유구 4기, 그리고 성격과 조성연대를 알 수 없는 적석시설 5기, II 지구에서 분구묘 1기, 토광묘 17기, 옹관묘 9기, 그리고 조선시대 민묘 8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II 지구 8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8호토광묘는 토광의 평면은 제형이고 규모는 동서 길이 294cm, 남북 너비는 동쪽과 서쪽이 약간 차이를 보인다. 동벽쪽이 너비 128cm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서벽쪽은 너비가 115cm에 불과하다. 목관의 길이는 240cm, 너비 70cm 이다.

<표 2> 천안 두정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8호 토광묘	완형	경질	

④ 홍성 신금성²⁴⁾

유적은 홍성군 결성면 금곡리 뒷산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에서부터 경사져 내려온 해발 40~60m 내외의 저평한 구릉 말단에 자리잡고 있다.

유적은 중서부 해안지역의 대표적인 토성으로 일찍이 백제와의 관계성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조사 결과 현존 토성의 축조시점이 백제와 관계없는 후대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성 내부에서 그 유례가 적은 백제 한성기의 생활유적이 발견 조사되어 그 의의가 크다. 이 유적에서 채집된 토기군에는 무문토기, 원삼국토

23) 李南奭·徐程錫, 2000. 《斗井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天安市經營開發研究所.

24) 李康承·林淳發·成正鏞, 1994. 《神衿城》, 忠南大學校博物館.

기, 백제토기, 통일신라토기가 퇴재하고 있다.

이중구연호는 N-II Tr.5, N-II Tr.9, W-II Tr.3에서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표 3> 홍성 심금성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N-II Tr. 5	구연부	회흑색 연질	
2	N-II Tr. 9	구연부	회흑색 연질	
3	W-II Tr. 3	구연부	회흑색 연질	

⑤ 청원 송대리유적²⁵⁾

유적은 금강 상류지류인 미호천유역으로 북쪽의 취령산 줄기가 동-서 방향으로 길게 가로 막혀 있는 남쪽부분의 해발 52m~81m의 구릉에 해당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수혈유구 2기, 원삼국~삼국시대 토광묘 74기 고려시대 이후 토광묘 23기 · 석곽묘 3기, 주거지 2기, 목탄요 2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40-1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토광묘의 묘광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며, 묘광의 규모는 길이 602cm, 너비 214cm, 깊이 132cm, 매장주체부의 규모는 길이 497cm, 너비 116cm 이다. 유물은 발, 원저단경호, 철촉, 물미, 철부, 철모 등이 출토되었다.

<표 4> 청원 송대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40-1호 토광묘	완형	회청색 연질	발, 원저단경호, 철촉, 물미, 철부, 철모

⑥ 청주 송절동유적²⁶⁾

유적은 청주시 증심부를 남에서 북으로 가르며 흐르는 무심천이 미호천과 합류하는 이른바 까치내의 서남에 형성된 낮은 구릉과 야산의 일부지역이다.

이중구연호는 93년도 조사 B지구 4호분에서 출토되었다. 4호분의 묘광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크기는 길이 712cm, 너비 366cm이며, 목관의 크기는 길이 319cm, 너비 106cm이다. 묘광에서 단경호, 옹, 심발형토기, 개배, 방추자,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2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韓國道路工事, 1999. <清原 松岱里遺蹟> 《清原 梧倉遺蹟(I)》.

26) 車勇杰 · 趙詳紀, 1995. 《清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1993年度 發掘調查-》,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忠北大學校博物館.

<표 5> 청주 송절동유적 출토 이증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93-B-4호분	구연부	회청색 경질	단경호, 용, 심발형토기, 개배, 방추차, 철촉

⑦ 공주 이인면²⁷⁾

<표 6> 공주 이인면 수습 이증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수습	완형	회색	

⑧ 공주 남산리유적²⁸⁾

공주 탄천면 남산리지역은 저평한 구릉과 넓은 평원, 잘 발달된 수계 등으로 인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많은 유적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 지역의 조사는 1970년대 초,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이루어졌다. 이증구연호는 1980년대 조사에서 수습되었으며, 1998년 12월에서 다음에 1월까지 이루어진 남산리 분묘군 조사에서 출토되었다.

남산리분묘군에서는 청동기시대, 마한·백제시대의 다양한 묘제가 발견되었다. 이증구연호는 5, 20, 22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표 7> 공주 남산리유적 출토 이증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80년대 수습	완형	회흑색 경질	
2	5호 토광묘	완형	회색 경질	
3	20호 토광묘	구연부	회색 연질	유리구슬
4	22호 토광묘	완형	암회색 경질	단경호, 심발, 철제도자

⑨ 부여 능산리²⁹⁾

<표 8> 부여 능산리 수습 이증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수습	완형	회색	

27)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百濟土器圖錄》.

28) 安承周, 1980. 〈公州 南山里 地域의 古代文化〉 《百濟文化》 13, 公州師範大學附設 百濟文化研究所. 金鍾萬·申英浩·安敏子, 2001. 《公州 南山里 墳墓群》, 국립공주박물관·금오건설.

29)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百濟土器圖錄》.

⑩ 부여 소사리유적³⁰⁾

유적은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에 위치하며 매우 낮은 야산이다. 4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D호분에서 출토되었다. D호분의 다른 3기의 토광묘와 달리 장축을 남북으로 두고 있으며 규모는 길이 3.1m, 너비 1m이다. 유물은 호형토기와 옥이 출토되었다.

<표 9> 부여 소사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D호분	완형		호형토기, 옥

⑪ 부여 초촌면³¹⁾

<표 10> 부여 초촌면 수습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수습	완형	회흑색 경질	

⑫ 서천 지산리유적³²⁾

유적이 위치하는 서천군 마산면 지산리는 해발 80m 미만의 나지막한 구릉지대와 저지대를 포함한 남서향사면이며, 유구 분포는 능선 상부에 해당하는 해발 65m의 산 구릉에서부터 해발 45m 미만의 저지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조사범위 내에서 비교적 넓게 확인되고 있다. 원삼국·백제시대 주거지 75기와 구덩이 13기, 고려·조선시대 토광묘 23기 등이 조사되었다.

원삼국·백제시대는 주거지는 75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대형의 장방형으로 분류된 일부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주거지의 내부시설은 부뚜막시설과 바닥시설, 그리고 벽체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부뚜막시설이 잘 남아 있다. 발형토기,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완, 호형토기, 주구부 등이, 이중구연호, 조형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호 II-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장방형의 주거지로 길이 510cm, 너비 420cm, 면적 21.4m²이며 조사된 주거지 가운데 대형에 속한다. 화제로 폐기되었고, 내부시설로 부뚜막 2곳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부뚜막시설의 아궁이부분에

30) 安承周·林秉國, 1971. <百濟 古墳文化의 研究> 《百濟文化》5, 公州師範大學附設 百濟文化研究所.
 31)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百濟土器圖錄》.
 32) 李南奭·李賢淑·尹英燮, 2005. 《舒川 芝山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밀집되어 출토되고 있으며 장란형토기, 주구부 동이, 조형토기, 반, 완, 이중구연호 등이 출토되었다.

<표 11> 서천 지산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Ⅱ-11호 주거지	완형	회청색 경질	장란형토기, 주구부 동이, 조형토기, 반, 완

⑬ 서천 봉선리유적³³⁾

유적은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에 위치하고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원삼국시대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토광묘는 생토면을 말각장방형으로 굴광하고 토광이 마련된 것으로 내부에서 목곽·관을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상단부가 대부분 파괴되어 그 성격을 자세히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다행히 내부에서 많은 양의 부장유물이 출토되어 그 조영시기 뿐 아니라 부장양상을 살필 수 있다.

출토유물은 토기류는 양이부호, 이중구연호, 원저단경호, 유견호, 발형토기, 합 등으로 백제시대 분묘보다는 기종에서 다양하지는 않으나 많은 양의 부장유물이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환두도, 철부, 철정, 철모 등의 다양한 무기류, 농공구류가 출토되어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데 유용하다.

<표 12> 서천 봉선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6호 토광묘	구연부유실	적갈색 연질	완형토기
2	17호 토광묘	완형	회백색 연질	평저양이부호, 철도자편, 철준
3	27호 토광묘	구연부유실	회색 경질	

⑭ 서천 선도리유적³⁴⁾

유적은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의 선도리산성이 있는 해발 35.5m의 곤주산(테피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해발 20m 정도의 낮은 구릉의 남사면 끝 부분에 해당한다. 2기의 용도미상의 수혈이 조사되었으며 2호 수혈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2호 수혈은 동서 너비 802cm, 깊이 39~64cm의 부정형의 수혈이다. 마제

33) 충청남도역사문화원·한국도로공사, 2005. 《서천 봉선리유적》.

34) 金鍾萬·金賢晶·朴敬道, 2003. 《舒川 船島里遺蹟》, 國立夫餘博物館.

석검, 마제석촉, 단경호, 완, 장란형토기, 시루, 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표 13> 서천 선도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 수혈	완형	흑색	마제석검, 마제석촉, 단경호, 완, 장란형토기, 시루, 파수

⑮ 서천 오석리유적³⁵⁾

유적은 오석산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구릉이 다시 독립된 산지를 형성하면서 동서로 길게 늘어진 능선의 서쪽 중간 지점이다. 해발 30~40m의 구릉에 해당한다. 유적은 무문토기 시대의 주거지와 분묘, 그리고 원삼국기의 토광묘 등이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95-9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토광묘의 규모는 길이 224cm, 너비 71cm 정도이다. 원저호, 환두철도자, 철부형 철제품 4점이 출토되었다.

<표 14> 서천 오석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95-9호 토광묘	완형		원저호, 환두철도자, 철부형 철제품

⑯ 논산 연산면³⁶⁾

<표 15> 논산 연산면 수습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수습	완형	회흑색 경질	

⑰ 논산 마전리유적³⁷⁾

유적은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에 위치한다. 유적은 3개지구로 나누어지는데 이중구연호는 A지구에서 출토되었다. A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토광 17기, 구상유구 1기가 조사되었으며, 원삼국·백제시대의 주거지 3기, 토광 23기가 확인되었다. KK-019호 토광에서 이중구연호의 구연부가 출토되었다. 토광의 규모는 장축 196cm, 단축 156cm, 면적 2.4㎡이며, 깊이는 가장 깊은 곳이 118cm 정도로 비교적 깊은 편이다. 우각형파수부편이 출토되었다.

35) 李南奭, 1996. 『烏石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

36)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百濟土器圖錄》.

37) 李弘鍾·孫峻鎬·姜元杓, 2002. 『麻田里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韓國道路工事.

<표 16> 논산 마전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KK-019호 토광	구연부	회색	우각형파수

2. 서해안지역

① 완주 상운리유적³⁸⁾

유적은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일대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발굴조사 결과 총 30기의 분구묘와 150여기의 매장주체부가 조사되었고, 이외에 청동기·초기철기시대 주거지 및 원삼국시대 주거지, 지식묘,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중구연호는 가-2지구 1분구묘 2호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② 전주 송천동유적³⁹⁾

전주천변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 유적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 2가 일대에 위치한다. 전주대 구역인 A지구는 구릉의 정상부와 북사면에 해당하며, 원삼국시대 주거지 14기, 수혈유구 14기, 구상유구 1기, 토기공방 1기, 부정형유구 1기, 토광 5기가 조사되었고, 전북대 구역인 B지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51기, 굴립식 주거지 1기, 수혈유구 10기, 구상유구 4기, 토기가마 1기, 조선시대 토광묘 6기가 조사되었다. A지구 4호 주거지와 1호 도랑, B지구 13, 32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표 17> 전주 송천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4호주거지 (전주대)	구연부	암적갈색 연질	발형토기, 천발형토기, 직구호, 단경호, 이중구연호, 주구토기, 대부호, 움형토기, 두형토기, 방추차, 지식
2	1호구상유구 (전주대)	구연부	회갈색 연질	
3	13호주거지 (전북대)	구연부	회청색 연질	장란형토기, 토기뚜껑
4	32호주거지 (전북대)	구연부	회백색 연질	파수, 도지미, 석제품

38) 전북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06. 《완주 상운리유적》 현장설명회 자료집.

39) 이상균·박현수·윤성준·김선영, 2004. 《全州 松川洞遺蹟 -A지구-》, 全州大學校博物館·全州市.
김승욱·김은정, 2004. 《全州 松川洞遺蹟 -B지구-》, 全北大學校博物館·全州市.

③ 김제 심포리유적⁴⁰⁾

유적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진봉산(72.2m)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뺀어내린 구릉의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만나는 합구부를 형성하는 만의 중간부 선단이다. 주거지는 한변이 3m내외인 방형 내지 장방형 주거지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18> 김제 심포리유적 출토 이증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주거지	구연부	흑색	주구토기, 지구단동호, 호형토기, 발형토기
2	주거지주변	구연부	회백색 연질	

④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⁴¹⁾

유적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죽막동 산 35-17번지에 위치한다. 이곳은 서해상으로 돌출된 변산반도의 서쪽 끝 해안절벽에 해당된다. 절벽 위에는 수성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발굴조사 하였다. 이증구연호는 중심부토기군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질그릇은 5~6세기의 그릇이다.

<표 19>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출토 이증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중심부	구연부	회적색 경질	단경호, 광구호, 광구장경호, 직구호, 기대, 고배, 개배, 병, 장군, 완, 용
2	중심부	구연부	회적색 경질	
3	중심부	구연부	회색 연질	

⑤ 부안 부곡Ⅱ유적⁴²⁾

유적은 부안군 보안면 부곡리 신성산(해발 68m)에서 서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자락이 완만해지면서 층적평야로 이어지는 사면에 위치한다. 주거지 15기, 토기가마, 민묘 등이 확인되었다. 이증구연호는 3호, 12호 주거지와 구상유구에서 확인되었다.

40) 俞炳夏·崔興鮮, 1999. <金堤 深浦里一帶 文化遺蹟 收拾調查 報告> 《扶安 海岸一帶 遺蹟地表調查報告》, 국립전주박물관.

41) 國立全州博物館, 1994.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42) 윤덕향·노미선, 2003. <扶安 富谷里遺蹟> 《扶安 壯東里·富谷里遺蹟》, 전북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표 20> 부안 부곡Ⅱ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3호주거지	구연부	연회색 연질	장란형토기, 대발, 호형토기, 파수
2	12호주거지	구연부	연황색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시루편, 파수
3	구상유구	구연부	연회색	토기뚜껑, 방추차

⑥ 부안 대동리유적43)

유적은 대동리마을 서쪽에 위치한 동서방향의 구릉선상에 입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유구는 저평한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남사면과 북사면에 분포하고 있었다. 9기의 주구묘와 1기의 기와가마터, 기타 수혈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5호 주구묘 주구에서 출토되었다. 5호 주구묘의 주구의 평면형태는 남서쪽 면이 개방된 사다리꼴의 ‘ㄷ’자형이며, 단면은 U자형에 가깝다.

<표 21> 부안 대동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5호 주구묘 주구	완형	흑갈색 연질	대용, 발형토기

⑦ 부안 장동리유적44)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위치한 유적은 해발 23m 내외의 낮은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북서쪽에서 남동방향으로 구릉사면이 이어지고 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33기와 수혈유구 3기, 그리고 고려시대의 석곽묘가 1기가 확인되었다. 27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27호 주거지는 규모는 너비 356cm, 남은 길이 176cm 이고, 벽구와 주공이 확인되었다.

<표 22> 부안 장동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7호 주거지	구연부	흑회색	구연부편, 도지미

⑧ 부안 신리Ⅲ유적45)

유적은 부안군 줄포면 신리 화전마을에 위치한다. 서로 다른 구릉의 서사면과 남

43) 김승옥·유향미·안효성, 2003. <扶安 大東里遺蹟> 《扶安 大東里·下立石里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44) 김승옥·이희정·이민석·김은정, 2003. <扶安 壯東里遺蹟> 《扶安 壯東里·富谷里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45) 김승옥·유향미·김은정, 2003. <扶安 新里Ⅲ遺蹟> 《扶安 新里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사면이 만나서 형성된 하단부에 위치한 유적은 3개의 지구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나지구에서 옹관묘 1기와 주구묘 2기, 주공으로 추정되는 원형수혈이, 다지구에서는 옹관묘로 추정되는 3기의 유구와 원형의 수혈이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다지구의 원형수혈에서 찾아졌다.

<표 23> 부안 신리Ⅲ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원형수혈	구연+동체	회갈색 경질	

⑨ 고창 부곡리유적⁴⁶⁾

유적은 국도 23호선 고수-영광쪽으로 약 1km 정도 진행하다가 보면 동쪽 구릉에 위치한다. 구릉은 시루봉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내렸으며, 해발 67m 내외이다. 유구는 북쪽 사면과 서쪽 사면에 입지하고 북쪽으로는 곡간평야를 이루고 있다. 주거지 26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2호와 4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2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392cm, 너비 474cm 이며, 배수구와 부뚜막, 타원형구덩이가 확인되었다. 4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계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552cm, 너비 470m 이며, 주공이 확인되었다.

<표 24> 고창 부곡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 주거지	구연부	회청색 연질	장란형토기, 개
2	4호 주거지	구연부	회청색 연질	장란형토기, 완, 파수

⑩ 고창 교운리유적⁴⁷⁾

유적은 고창군 흥덕면 교운리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수혈유구, 원삼국시대 주거지 44기가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 이후의 유구로 고분 1기, 토기가마 1기, 토광묘 28기가 조사되었다. 10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가 조사되었다. 10호 주거지는 방형의 주거지로 장축 641cm, 단축 627cm이며, 면적은 40.20㎡로 조사된 주거지 가운데 가장 대형이다. 내부 시설로 노지, 주공, 타원형 수혈구덩이, 벽구가 확인되었다.

46) 湖南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工事, 2006. 《高敞 芙蓉里遺蹟》.

47) 金建洙·韓修英, 2002. 《高敞 校雲里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韓國道路工事.

<표 25> 고창 교운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0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장란형토기

⑪ 고창 봉덕유적⁴⁸⁾

유적은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에 위치한다. 유적은 구릉 정상부를 기준으로 서쪽을 가지구, 동쪽을 나지구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가지구에서는 구릉의 정상부에서 방형추정분 1기, 구 6기, 옹관묘 1기와 구릉의 사면에서 주거지 52기가 조사되었으며 나지구에서는 구 3기, 옹관묘 1기, 토광묘 1기와 주거지 4기 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구릉의 정상부를 경계로 서사면과 동사면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동사면에 비해 서사면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거지는 방형과 장방형계이고 대부분 벽구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4주식을 기본으로하고 있으며 북쪽 사면에 노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거지는 구릉 사면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크기면에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을 뿐 구조나 출토유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출토유물로는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시루, 호형토기, 옹형토기, 파수, 방추차 등이 있다.

<표 26> 고창 봉덕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7호주거지	구연부	회황색 연질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2	12호주거지	구연부	회흑색 연질	파수
3	18호주거지	구연부	회흑색 연질	발형토기, 파수, 철검
4	19호주거지	구연부	연회색 연질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시루, 파수, 방추차
5		구연부	적갈색 연질	
6		완형	연황색 연질	
7	30호주거지	완형	연황색 연질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발형토기, 솥돌
8		완형	적갈색 연질	
9		구연부	회백색 연질	
10	34호주거지	구연부	연회색 연질	장란형토기, 시루, 발형토기
11	46호주거지	구연부	회황색 연질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호형토기, 옹형토기, 방추차, 파수, 솥돌
12		구연부	연회색 연질	
13		구연부	연회색 연질	
14	47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파수
15	49호주거지	구연부	암갈색 연질	
16	나 지표	구연부	회청색 연질	

48) 김진수 · 노미선 · 양해웅, 2003. 《高敞 鳳德遺蹟Ⅱ》, 湖南文化財研究院 · 全羅北道.

⑫ 고창 만동유적⁴⁹⁾

유적은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에 위치한다. 유적은 해발 약 46m의 남북 방향으로 형성된 독립구릉이다. 구릉 사면에서 13기의 주구를 돌린 분묘와 추가장으로 옹관묘와 토광묘, 주구가 없는 단독묘 4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주매장주체부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분묘 내부에서 환두도를 비롯한 철부, 철모, 철검 등 다양한 철제유물과 수정옥, 자마노옥, 유리옥 등의 장신구가 출토되었다. 토기로는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도검류의 부장은 기존에 조사된 호남지역의 분묘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부장양상이다.

<표 27> 고창 만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4호묘(주매)	완형	연갈색 연질	철검
2	8호묘(주매)	완형	연갈색 연질	환두도, 철부, 철검, 철착, 옥
3	8-1호토광	완형	흑회색 연질	철부, 철검
4		완형	흑회색 연질	
5	8-1호옹관	완형	흑회색 연질	광구장경대옹(옹관), 단경호, 철검, 옥
6	9호묘(주구)	완형	흑회색 연질	
7	9-5호옹관	완형	흑회색 연질	직구장동옹(옹관), 단경호, 천발, 완
8	9-6호옹관	완형	회갈색 연질	직구장동옹(옹관), 단경호, 주구토기, 개, 철정, 철부, 옥
9		완형	연갈색 연질	
10	10호묘(주매)	완형	명갈색 연질	환두도, 철부, 주조쟁이, 철검, 철착, 철모
11	10호묘(주구)	구연부	회갈색 연질	
12	11호묘(주매)	완형	회갈색 연질	검, 철부, 유건철부, 주조철부, 철검, 철착
13	12호묘(주매)	완형	흑회색 연질	단경호, 환두도, 철촉, 철부, 철모, 옥
14		완형	흑회색 연질	
15	12-1호옹관	완형	회갈색 연질	직구장동옹(옹관), 석착
16		구연+동체	회갈색 연질	
17	13호묘(주매)	완형	흑회색 연질	단경호, 뚜껑, 철도편, 철검편, 철촉
18	3호토광묘	완형	흑회색 연질	단경호편, 환두도, 철검, 옥

⑬ 고창 남산리유적⁵⁰⁾

유적은 고창군 고수면 남산리일대에 위치한다. 조사는 고창-장성간 고속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실시하였고 남산리 1, 2, 3, 4, 5, 6구역, 우평리유적이 조사되었다. 남산리 2구역 4호 토광묘, 6구역 가지구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49) 金建洙·李永德, 2004. 《高敞 萬洞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全羅北道.

50) 김규경·전상학·양영주, 2005. <高敞 南山里遺蹟>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⑭ 고창 예지리유적⁵¹⁾

유적은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대성마을 동서측에 있는 해발 약 65m 정도의 구릉지역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수혈유구 1기, 야외노지 1기, 지석묘 1기, 원삼국시대 토광묘 10기, 주구묘 6기, 옹관묘 1기, 그 외에 토광을 포함한 민묘가 7기, 구상유구 3기 등이 조사되었다. 토광묘의 중심연대는 2세기~3세기중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 16호 토광묘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1호 토광묘는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고 장축 193cm, 단축 69cm 의 비교적 적은편이다. 유물은 단경호가 같이 출토되었다. 16호 토광묘도 구릉 정상부에 위치하며 장축 246cm, 단축 87cm 이다.

<표 28> 고창 예지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호토광묘	완형	암회황색	단경호
2	16호토광묘	완형	명황갈색 연질	

⑮ 영광 라본고분⁵²⁾

유적은 영광군 흥농읍 라본마을에 위치한다. 유적은 개간으로 인해 유구가 심하게 파괴된 상태이며, 채집된 옹관의 규모로 볼 때 소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3개의 능선에 걸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고분군은 중·소형의 옹관묘들이 중심이 되는 대규모의 집단분묘유적으로 생각된다. 옹관의 구연부에 돌대가 둘러져 있다.

<표 29> 영광 라본고분 수습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지표수습(옹관묘)	구연부	회청색 경질	

⑯ 영광 신당고분⁵³⁾

유적은 영광군 흥농읍 단덕리 신당마을에 위치한다. 유적은 덕림산의 남서쪽 구릉의 최하단부로 구릉정상부는 거의 개간된 상태이나 구릉 사면은 잡목으로 우거

51) 전주대학교박물관, 2002. <고창 예지리유적> 《서행안고속도로(군산-고창)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5-155.

52) 李命燾 · 成洛俊 · 孫明助 · 申相孝 · 李漢周, 1989. <靈光地方의 古墳> 《靈岩 臥牛里 甕棺墓》 101-166, 國立光州博物館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53) 李命燾 · 成洛俊 · 孫明助 · 申相孝 · 李漢周, 1989 <靈光地方의 古墳> 《靈岩 臥牛里 甕棺墓》 101-166, 國立光州博物館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져 있다. 남쪽 경사면으로 가면서 옹관편들이 채집되는데 철탑이 조성되면서 파괴된 옹관편들이 철탑주위로 널려져 있고 그 아래쪽 경작지에서는 많은 토기편들이 채집되었다. 채집된 옹관편은 두께 3cm이상의 대형옹들로 대형의 옹관묘가 중심이 되는 옹관묘 밀집지역으로 추정된다. 옹관의 구연부에 돌대가 돌려져 있다.

<표 30> 영광 신당고분 수습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지표수습(옹관묘)	구연부	회황갈색 연질	

⑰ 고창 성남리유적⁵⁴⁾

유적은 고창군 대산면 성남리 곡촌마을 북서구릉에 위치한다. 이중구연호는 성남리Ⅲ유적의 주구묘, V-B유적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Ⅲ유적은 주구묘 14기, 수혈유구 20기, 구상유구 3기 등이 조사되었다.

⑱ 영광 마전유적⁵⁵⁾

유적은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에 위치한다. 구석기시대 3개의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집자리 11기, 소형유구 3기, 철기시대 집자리 9기가 조사되었다. 철기시대 4, 5호 집자리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5호 주거지는 방형의 주거지로 장축 514cm, 단축 474cm이며, 면적은 24.4m²이다. 내부 시설로 화덕자리, 주공, 타원형 수혈구덩이, 벽구가 확인되었다. 시루, 발형토기, 단경호 등이 출토되었다.

<표 31> 영광 마전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4호주거지	구연부		
2	5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시루, 발형토기, 원저단경호

⑲ 영광 군동“라”유적⁵⁶⁾

유적은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군동마을 일대에 해당한다. 구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주거지 14기, 철기시대 주거지 7기, 주구토광묘 24기, 토광묘 20기, 옹관묘 14기, 수혈유구 2기, 구상유구 2기 등이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출토유물 가운데

54) 전북대학교박물관 · 진주대학교박물관 ·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 한국도로공사, 1999. 《서해안고속도로(군산-고창간)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55) 이기길 · 김선주 · 최미노, 2003. 《영광 마전 · 군동 · 원당 · 수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56)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 김영희, 2001. 《영광 군동유적-라지구 주거지 · 분묘-》,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구토광묘와 토광묘의 경우 부장유물로 쓰이고 있으나 옹관묘에서는 옹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대를 2~3세기로 설정하였다.

<표 32> 영광 군동“라”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호주구토광묘(주구)	구연+ 바닥	적갈색 연질	
2	1-1호옹관	완형	적갈색 연질	직구난형의 옹형토기(옹관)
3	2호주구토광묘(주구)	구연+ 바닥	적갈색 연질	옹형토기편, 발형토기
4	6호주구토광묘(주구)	구연부	적갈색 연질	
5	6-2호주구토광묘(주구)	구연부	흑회색 연질	
6	8호주구토광묘(주구)	구연부	흑색 연질	호형토기
7	10호주구토광묘(주구)	완형	회백색 연질	옹형토기
8		구연부	흑회색 연질	
9		구연부	회백색 연질	
10		구연동체바닥	흑회색 연질	
11	10-2호옹관묘	동체	회백색 연질	직구난형의 옹형토기
12	11호주구토광묘(주구)	완형	회백색 연질	
13		구연+ 바닥	적갈색 연질	
14	21-1호토광묘	완형	회백색 연질	철검
15		구연부유실	회백색 연질	
16	21-1호옹관묘	구연부유실	황갈색 연질	옹관
17	22-1호옹관묘	완형	황갈색 연질	옹관
18	2호토광묘	완형	적갈색 연질	옥
19	A 지표	구연부	회청색 경질	
20	B 1호토광묘	완형	회백색 연질	광구호, 옥

㉑ 영광 군동“가”유적(57)

유적은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군동마을의 서쪽 언덕에 위치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영광IC 자리이다. 이곳의 해발높이는 32~28m이고, 남쪽으로 완만하게 비탈져있다. 가마 3기, 집자리 1기, 도랑(구상)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1, 2, 3호 가마의 폐기구덩이와 도랑유구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표 33> 영광 군동“가”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호가마	구연부	회색	대접, 화분꼴그릇, 귀매동이, 장란형그릇, 단지, 시루, 도기
2	2호가마	구연부	회색	대접, 화분꼴그릇, 귀매동이, 장란형그릇, 단지, 시루, 도기
3		구연부	회색	

57) 이기길·김선주·최미노,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4	3호가마	구연부	회색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호형토기, 주구토기
5	도랑	구연부	회색	대접, 화분꼴그릇, 귀배동이, 장란형그릇, 단지, 도기
6		구연부	갈색	
7		구연부	회색	

㉑ 영광 원당유적⁵⁸⁾

유적은 영광군 대마면 원흥리 원당 마을의 동쪽 구릉에 위치한다. 주구를 갖춘 고분 6기와 토광묘 1기, 옹관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고분의 중심부에는 토광묘가 위치하고 고분이 외곽이나 주구에서는 옹관묘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고분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㉒ 영광 하화유적⁵⁹⁾

유적은 영광군 대마면 화평리 하화마을 뒤쪽 구릉에 위치하는데 주변은 논과 밭으로 개간되면서 옹관묘 2기가 노출되어 1989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긴급수습 조사되었다. 그리고 1999년 서해안고속도로건설로 인해 발굴되었다. 이중구연호는 1989년에 조사된 2기의 옹관묘에서 출토되었다.

<표 34> 영광 하화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A호	완형	연다갈색 연질	친발, 철검
2	B호	구연부	황갈색	과수부발, 옥

㉓ 영광 구산동고분⁶⁰⁾

유적은 영광군 군남면 남창리 구산동마을 뒤로 연결되는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구릉 남쪽사면은 경작지 조성시 거의 파괴되어 곳곳에서 옹관편이 채집되고 있으며 경작되지 않은 구릉에서도 승석문토기편, 옹관구연부편 등 다량의 유물들이 채집되고 있다. 옹관의 구연부에 돌대가 돌려져 있다.

<표 35> 영광 구산동고분 수습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지표수습(옹관묘)	구연부	갈색 연질	

58) 목포대학교박물관 · 전남대학교박물관 · 조선대학교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1999. 『서해안고속도로(무안-영광간)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59) 李命燾 · 成洛俊 · 孫明助 · 申相孝 · 李漢周, 1989. 〈靈光地方의 古墳〉 《靈岩 臥牛里 甕棺墓》 101-166, 國立光州博物館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60) 李命燾 · 成洛俊 · 孫明助 · 申相孝 · 李漢周, 1989. 〈靈光地方의 古墳〉 《靈岩 臥牛里 甕棺墓》 101-166, 國立光州博物館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④ 영광 장혈고분⁶¹⁾

유적은 영광군 양덕리 장혈마을 남서쪽 구릉에 위치한다. 유적은 구릉이 개간되면서 대부분 파괴되었고 발딛어서 옹관편들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발을 개간할 때 석실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중구연호와 양이부호가 출토되었다.

<표 36> 영광 장혈고분 수습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석실분추정	완형	회갈색 연질	양이부호

3. 영산강 상류지역

① 담양 태목리유적⁶²⁾

유적은 평지에 가깝게 개간된 경작지로 강안 충적대지상에 위치한다. 유적 남쪽으로 영산강이 흐르고 있어 조사지역에서 하상 퇴적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구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 삼국시대 주거지 257기, 수혈유구 50여기, 환호로 추정되는 구 1기, 가마 1기, 토광묘 3기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평면형태가 방형계와 장방형계이며 크기는 대부분 길이 300~600cm 내외에 해당한다. 내부시설은 부뚜막, 출입구, 주공, 장타원형 구덩이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주구토기, 시루, 이중구연호, 옹형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기류, 석기류, 토제품 등이 있다.

② 광주 오룡동유적⁶³⁾

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룡동 미산, 신점마을에 위치한다. 유적은 3곳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A지구에서는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1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21기, 숯가마 1기, 조선시대 수혈유구 2기, 소형 아궁이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B지구에서는 구상유구 3기, C지구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중구연호는 A지구 시굴구덩이 확장과정중에 확인되었다.

61) 林永珍·趙鎮先, 1993. <靈光郡의 考古學遺蹟 II> 《靈光郡 文化遺蹟 學術調查》137-190, 全南大學 校博物館·靈光郡.

62) 湖南文化財研究院, 2005. 《담양 태목리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집.

63) 최성락·이정호·이영철, 1995. 《광주 오룡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광주광역시.

<표 37> 광주 오룡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주변수습	구연+ 동체	회색 연질	

③ 광주 일곡동유적⁶⁴⁾

유적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다.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지구에서 3기의 주거지가 찾아졌고, 1, 2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는 장방형의 주거지로 장축 450cm, 단축 370cm이며, 면적은 16.65㎡이다. 내부 시설로 소토부와 벽구 등이 확인되었다. 호형토기, 시루, 심발형 토기, 파수 등이 출토되었다.

<표 38> 광주 일곡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호주거지	구연부	연갈색	호형토기, 발형토기, 시루, 방추차
2		구연부	회청색 경질	
3		구연부	흑갈색 연질	
4		구연부	회색 연질	
5	2호주거지	완형	연회색 연질	장방형토기, 외반구연호, 파수
6		구연부	회청색 경질	

④ 광주 신창동유적⁶⁵⁾

유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에 위치한다. 유적은 1963년 발굴조사에 의해 기원1세기경의 매장유적인 옹관묘지로 알려진 이후 1992년 국도 1호선 직선화공사 구간 시굴조사에서 저습지유적이 확인됨으로써 1995년부터 학술조사가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적이다. 사적 375호 지정되어 있다. 유적은 매장유구인 옹관묘와 생산, 생활이 어우러진 복합농경유적이며 특히 저습지에서 칠기를 포함한 다량의 목제유물과 벼껍질은 우리나라 농경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중구연호는 유적의 III기층과 옹관에서 출토되었다. III기층은 경작층과 교란층으로 유적의 최상층이다.

64) 李榮文·曹根佑·鄭基鎮, 1996. 《光州 日谷洞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光州市立民俗博物館·韓國土地公社.
 65) 申相孝·崔相宗·尹孝男, 2001.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III》, 國立光州博物館.
 趙現鐘·申相孝·李宗哲, 2003.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V》, 國立光州博物館.
 宋義政·崔相宗·尹孝男, 2004. 《光州 新昌洞 墳墓 遺蹟》, 國立光州博物館.

<표 39>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옹판	완형	황갈색 연질	뚜껑
2	저습지 III지층	구연부	회색 연질	
3		구연부	회색 연질	
4		구연부	흑갈색 연질	
5	S2E5	구연부	회색 연질	

⑤ 광주 용봉동유적⁶⁶⁾

유적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다. 주거지 2기, 석렬유구 1기, 도랑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2호 도랑에서 출토되었다. 2호 도랑은 자연도랑으로 적갈색연질, 회청색경질의 타날문토기, 석축, 반월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표 40> 광주 용봉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도랑	구연부	회청색 경질	
2		구연부	회청색 경질	
3		구연부	회청색 경질	

⑥ 광주 쌍촌동유적⁶⁷⁾

광주광역시 쌍촌동일대는 극락강과 그 지류인 광주천 주변에 형성된 충적지와 그 배후에 펼쳐진 해발 30~40m의 낮은 구릉이 이어지는 곳이다. 유적은 해발 60m 정도되는 구릉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적범위는 해발 40~55m에 해당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남사면의 동서 70~110m, 남북 70m 범위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원삼국시대 주거지 79기, 삼국시대 주구묘 2기, 토광묘 1기, 고려·조선시대 분묘 11기, 용도미상유구 4기가 확인되었다.

이중구연호는 이 유적은 표지유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거지에서 많은 수의 그릇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방형계통의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시설로 벽구 등이 확인되고 있다. 토기는 연질토기가 전체적으로 80~95% 정도를 차지하며 소발,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주구토기 등이 추토되었고 토제품으로는 방추차, 내박자, 국자형토제품이 출토되었다.

66) 鄭基鎭·張齊根, 1998. 《光州 龍鳳洞遺蹟》, 光州廣域市立民俗博物館.

67) 林永珍·徐賢珠, 1999. 《光州 雙村洞 住居址》, 全南大學校博物館·光州廣域市都市公社.

주거지의 내부구조와 폐기요인, 출토유물 등을 비교해 3기로 구분하였다. I기는 3세기 초, II기는 3세기 중엽, III기는 3세기 후엽에서 4세기초로 구분하였다. 이중 구연호는 II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I, III기는 소수가 보인다.

<표 41> 광주 쌍촌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8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원저단경호편
2	10-1호주거지	구연부	연회색 연질	주구토기, 시루, 파수
3	11호주거지	구연부	적갈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주구토기 등이, 시루, 소용, 대용, 뚜껑, 파수, 방추차
4		구연부	암갈색 연질	
5		구연부	황갈색 연질	
6		구연+동체	회청색 경질	
7	15호주거지	구연부	암갈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난형호, 주구토기 등이, 시루, 파수, 뚜껑, 방추차
8		구연부	암갈색 연질	
9		구연+동체	적갈색 연질	
10		구연+동체	적갈색 연질	
11	16-2호주거지	구연부	회청색 연질	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난형호, 파수, 대용, 방추차
12		구연+동체	적갈색 연질	
13	18-1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발, 방추차, 어망추
14	22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15		구연부	암갈색 연질	
16	23-2호주거지	구연부	적갈색 연질	파수
17	24-1호주거지	구연부	적갈색 연질	발, 파수부소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18	24-2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주구토기 등이, 파수
19		구연부	황갈색 연질	
20	30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원저단경호
21	32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발, 심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시루, 파수, 뚜껑, 대용, 방추차, 석축
22	38-1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심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주구토기 등이, 소용, 파수, 뚜껑
23	39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원저단경호
24	42호주거지	구연부	적갈색 연질	평저소호, 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난형호, 시루, 파수, 대용
25	48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발, 대발, 원저단경호, 난형호, 시루
26	49호주거지	구연+동체	황갈색 연질	발, 원저단경호, 파수, 대용, 내박자
27	51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파수, 뚜껑
28		구연부	흑갈색 연질	
29	54호주거지	완형	연회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단경호, 주구토기 등이, 파수, 대용, 내박자

⑦ 광주 풍암동유적⁶⁸⁾

유적이 있는 광주 풍암동일원은 해발 100m 이하의 구릉 50m 이하의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대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이형유구·수로, 조선시대 기와가마 3기, 입석 3기, 근대 옹관 2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표토와 경작토를 제거할 때 수습되었다.

<표 42> 광주 풍암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지표수습	구연부	회갈색 연질	

⑧ 광주 세동유적⁶⁹⁾

유적은 비교적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를 이루는 곳이며 옥녀봉에서 흘러내린 해발 24~32m 범위의 구릉상에 위치하며 망월평야가 펼쳐진 곳이다. 삼국시대 주거지 10기, 수혈 7기, 구상유구 4기와 지상건물지 1기, 주공, 민묘 등이 확인되었다. 이중구연호는 5호와 7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내부시설로 화덕시설, 벽구, 기둥구멍, 단시설, 선반관련시설등이 확인되었다. 발형토기,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광구소호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크게 두기로 구분이 되는데 I기는 주거지만 확인되며,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등이 출토되며 연대는 기원후 4세기 중반~5세기 초로 설정된다. II기에는 주거지의 경우 구조, 출토유물 등에서 I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주거지에 주변에서 수혈, 구상유구, 주공 등이 분포한다. 수혈과 구상유구에서 다양한 기종과 경질토기류의 출토량이 증가한다. 연대는 5세기 전반~6세기 초로 설정된다. 5호 주거지는 I기, 7호 주거지는 II기에 해당된다.

<표 43> 광주 세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5호 주거지	구연부		뚜껑, 발형토기, 방추차, 잔발, 철부, 파수, 호형토기, 옹관편, 구연부, 동채부, 저부
	7호 주거지	구연부	적색 연질	장란형토기, 고배, 발형토기

68) 林永珍·徐賢珠, 1999. 《光州 楓岩洞·金湖洞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69) 崔盛洛·金京七·金珍英, 2006. 《光州 細洞遺蹟》, 全南文化財研究院·光州光城市 建設管理本部.

4. 영산강 중 · 하류지역

① 화순 운월리 운포유적⁷⁰⁾

화순 운월리는 나주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지식천 주변의 충적지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유적은 운월리 운포마을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산사면에서 충적지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면이다. 운월리 운포 고인돌(다)군 중 6기의 고인돌을 조사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청동기시대 석곽 1기와 삼국시대 주거지 4기가 확인되어 함께 조사하였다. 이중구연호는 삼국시대 4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4호 주거지는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503cm, 너비 440cm 이다. 내부시설로 노지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장란형토기, 소호, 대발 등이 있다.

<표 44> 화순 운월리 운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4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장란형토기, 소호, 대발편, 시루편, 옹편, 파수, 어망추

② 나주 방축유적⁷¹⁾

유적은 태봉산(100m)에서 뺀어내린 북쪽 능선에 발달한 구릉 끝부분에 위치하며 주변 50m 내외의 낮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거지 32기와 구 1기가 확인되었다.

이중구연호는 3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로 추정되며 규모는 남북길이 453cm, 잔존 동서길이 367cm 이다. 내부시설은 사주식 주공이 확인되었고, 유물은 이중구연호, 호형토기, 주구토기, 발형토기 등이 확인되었다.

방축유적에서 조사된 32기의 주거지의 중복관계와 출토유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5단계의 취락 변화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31호주거지는 4단계로 5세기 전반에 속한다.

<표 45> 나주 방축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31호 주거지	구연+ 동체	회백색 연질	호형토기, 주구토기, 발형토기
2		구연부	황회색 경질	

70) 林永珍·趙鎭先·崔榮柱, 2002. 《和順 雲月里 운포 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和順郡.

71) 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2006. 《羅州 防築·上仍遺蹟》.

③ 나주 북암리고분군⁷²⁾

유적은 나주시 다시면 북암리 일대에 형성된 다시평야의 논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유적은 해발 7~8m의 저기복 구릉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5m이하 는 원래 영산강변에 펼쳐진 간척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암리고분군은 저기복 의 구릉 끝에서 영산강변에 접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4기의 고분이 남아있는데 1, 2, 3호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열을 지어 있 으며 4호분은 3호분의 서쪽에 있다. 그리고 분구는 다양한 평면형태를 가지고 있 으며 1호분은 원형으로 확인되었으며 2호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장방형 분구를 내포하는 사다리꼴 주구가 확인됨으로써 원래는 사다리꼴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3 호분은 방형을 띠고 있지만 고분 주변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주구가 확인되었으며, 4호분은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1호분과 2호분 사이에서 몇 기의 사다리꼴 주구와 10기의 옹관묘가 새로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 는 1호분 주구 동구, 1호분 2호분 사이의 7호 옹관에서 출토되었다.

<표 46> 나주 북암리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호분 주구(동)	완형	회청색 경질	개, 배, 고배, 유공광구호, 직구원저호, 직구소호, 시루, 파수부토 기, 대용편
2	7호옹관(1·2호 분사이)	완형	연회색 연질	옹관, 철촉, 철낫, 철도자

④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⁷³⁾

영산강의 한 지류인 고막천 일대는 넓은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유적은 이 평야지대의 북쪽 끝에 해당하는 구릉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예덕리 만가촌고분군에 서는 14기의 고분과 함께 주거지 7기, 토기요지 2기, 토기요지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 전작지 2개소, 이형토갱 9기, 구상유구 4조가 조사되었다. 남북 140m, 동서 60m의 범위에 14기가 밀집분포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남북장축의 고 분들이 있으며 남쪽에는 동서장축의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어 크게 2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진다. 고분 주위에서 주구가 확인되어 각 고분의 정확한 평면형태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1호분은 거의 방형에 가까운 평면이고 9호분은 장방형을 띠고

72) 林永珍·趙鎭先·徐賢珠, 1999. 《伏岩里古墳群》, 全南大學校博物館·羅州市.

73) 林永珍·趙鎭先·徐賢珠·宋恭善, 2004. 《咸平 禮德里 萬家村古墳群》, 全南大學校博物館·咸平郡.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장제형을 띠고 있다. 출토유물은 옥, 철기, 토기가 출토되었다. 토기의 종류는 심발, 천발, 경배, 원저호, 평저호 등인데 호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표 47> 함평 예덕기 만가촌고분군 출토 이층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분주구	구연부	연회색 연질	천발, 외반호
2	3호분주구	구연+ 바닥	흑갈색 연질	원저단경호, 대용
3	4호분주구	구연+ 동체	흑회색 연질	장란형토기, 소용, 단경호, 대용, 원저단경호, 원저외반호
4		구연+ 바닥	회청색 경질	
5		구연+ 동체	흑회색 연질	
6	4-2호묘	구연+ 동체	절갈색 연질	철도자
7		구연+ 바닥	흑회색 연질	
8	4-3호묘	구연+ 바닥	흑회색 연질	난형호, 주구토기
9	6-1호묘	완형	연회청색 연질	소형쟁이, 원저외반호
10	12호분주구	구연부	회황색 연질	파수부발, 원저외반호, 시루, 파수, 심발, 천발, 대용, 원저단경호
11	12-2호묘	완형	흑갈색 연질	원저외반호
12	13호분분구구 지료층	구연부	연회갈색 연질	원저호, 기대, 시루, 방추차, 파수, 원저소호, 내박자, 평저호
13	13-2호묘	구연+ 동체	흑회색 연질	평저직구호
14	13-5호묘	구연부유실	흑회색 연질	직구호, 원저외반호
15	13-6호묘	완형	회청색 경질	원저직구호, 원저외반호, 원저직구호
16	13-8호묘	완형	적갈색 연질	옥, 철도자, 소형쟁이, 원저외반호
17	2호분주변	구연부	회청색 경질	
18	4호분주변	구연+ 동체	암회청색 연질	

⑤ 함평 월야 순촌유적⁷⁴⁾

나산천(고막천) 주변의 넓은 평야가 펼쳐진 비교적 낮은 구릉의 능선과 사면에 위치하는 순촌유적은 문화마을조성과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조사하였다. 주구토광묘 44기, 토광묘 5기, 옹관묘 12기, 주거지 1기, 석곽묘 1기, 석개토광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이층구연호는 16, 20, 29호 주구토광묘와 32호 옹관묘에서 출토되었다.

철기시대는 2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기는 A지구 상부에 있는 방형계 주구토광묘로 2세기경에서 3세기 전반에 해당하고, 2기는 A지구 하부의 제형계 주구토광묘와 B, C지구의 주구토광묘와 옹관묘로 3세기 중엽에서 후반까지 비정된다. 16호, 20호 주구토광묘는 1기에 속하며, 29호 주구토광묘는 2기에 속한다.

74) 최성락·박철원·최미숙, 2001. 《함평 월야 순촌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농업기반공사·함평군.

<표 48> 함평 월야 순층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6호주구토광묘	완형	적갈색 연질	
2	20호주구토광묘	완형	황갈색 연질	
3		완형	적갈색 연질	
4	29호주구토광묘	완형	회백색 연질	철부, 철모
5	32호옹관묘	완형	회청색 경질	
6		구연부유실	황갈색 연질	

⑥ 함평 용산리유적⁷⁵⁾

유적은 불갑산에서 내려온 낮은 산줄기가 나산천을 동쪽에 두고 있는 낮은 구릉에 형성되어 있고 구릉과 구릉 사이는 소규모 곡간평야를 이루고 있다. 구릉에서는 청동기시대 석관묘 10기, 철기시대 주거지 7기와 토광묘 1기, 삼국시대 주거지 1기와 석실분 2기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고, 곡간평야의 저습지에서는 저장혈 2기, 도랑, 용도미상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철기시대 3호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3호주거지는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장축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장축 360cm이고,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등이다.

<표 49> 함평 용산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3호주거지	완형		발형토기, 파수부발, 장란형토기

⑦ 함평 대성유적⁷⁶⁾

유적은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대성마을 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해발 60m 정도의 구릉으로 동쪽의 월야천을 향해 뺨어 내리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삼국시대 주거지 11기, 구상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삼국시대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1호 주거지는 화재폐기된 주거지로 평면형태는 말각방향으로 추정되고 규모는 동-서 433cm, 남-북 잔존 170cm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발, 단경호, 광구호, 시루, 주구토기 등이다.

75) 최성락·김건수, 200. <함평 용산리유적> 《영광 학정리·함평 용산리유적》 203-337, 목포대학교박물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76) 金建洙·金奎正·李恩政·金永熙, 2003. <함평 대성유적> 《咸平 倉西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익산지방국토관리청.

<표 50> 함평 대성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호주거지	완형	회백색 연질	시루, 주구토기, 직구호, 단경호, 광구호, 발

⑧ 나주 장등유적⁷⁷⁾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장등유적 동쪽으로 장성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변으로 비교적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유적은 저평한 구릉에 입지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8기, 삼국시대 주거지 75기, 고분과 관련된 주구 14기, 옹관묘 21기, 토광묘 12기, 수혈,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유적은 크게 3개 군을 이루며 유구가 밀집분포하고 있다. 가지구의 토광묘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⑨ 함평 무송유적⁷⁸⁾

유적은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 산 77-1번지 일대에 위치하는데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는 구릉성 산기슭에 해당한다. 주거지 11기가 조사되었는데 등고선을 따라 3열로 배열된 양상을 보여준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나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등고선과 나란하다. 대부분의 주거지에 벽구가 만들어졌으며 일부 주거지에서 노지나 주공이 확인된다. 출토유물은 이중구연호, 파수부호, 장란형토기, 철정, 철도자 등이고 이중구연호 내부에서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⑩ 함평 소명동유적⁷⁹⁾

유적은 소명마을 서북쪽으로 이어지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구릉 하단부의 해발 20~40m 범위에 위치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8기, 삼국시대 주거지 183기, 원형고분 1기, 토기제작관련수혈 1기, 민묘 1기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주거지는 해발 25~35m 범위 가장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포는 등고선 방향을 따르고 있으며 남은 장축방향도 등고선 방향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는 예도 있다. 평면형태는 방형이나 장방형을 띠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시설로 주공, 노지, 벽구, 배출구, 단, 장타원형구덩이, 내부구

77) 湖南文化財研究院, 2005.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78) 목포대학교박물관 · 전남대학교박물관 · 조선대학교박물관 · 국립광주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1999. 《서해안고속도로(무안-영광간)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79) 林永珍 · 李昇龍 · 全炯玟, 2003. 《咸平昭明住居址》, 全南大學校博物館 · 韓國道路公社.

등이 있다. 출토유물은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이중구연호, 평저호, 원저호, 뚜껑, 시루 등의 토기와 방추차, 내박자 토제곡옥 등의 토제품, 석기와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폐기요인과 내부구조, 출토유물을 비교를 통해 4개의 분기로 구분하였다. I기는 3세기 중엽, II기는 3세기 후엽, III기는 4세기초·중엽, IV기는 4세기 후엽이다. I, II, III기에서 이중구연호가 보인다.

<표 51> 함평 소명동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주거지	완형	적황색 연질	심발, 발, 소발, 장란형토기, 직구호, 원저호, 옹형토기, 주구토기 등이, 시루, 소옹, 대옹, 방추차, 도지미
2	6호주거지	완형	황갈색 연질	심발, 발, 완, 장란형토기, 시루, 대옹, 뚜껑, 방추차, 흙돌
3	10-1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발, 장란형토기, 파수, 대옹, 뚜껑, 방추차
4	11-1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발, 장란형토기, 주구토기 등이, 시루
5	17호주거지	구연+동체	흑색 연질	발, 대발, 파수부발, 장란형토기, 평저호, 원저호, 난형호, 옹형토기, 주구토기, 시루, 파수, 대옹
6	18호주거지	구연+동체	황적색 연질	심발, 발, 소발, 대발, 장란형토기, 난형호, 옹형토기, 주구토기 등이, 시루, 파수, 방추차, 철검, 철징, 흙돌
7		구연+바닥	황백색 연질	
8	27호주거지	완형	황갈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원저호, 난형호, 주구토기 등이, 시루, 대옹, 방추차, 석작, 흙돌
9		완형	황갈색 연질	
10	31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평저호, 주구토기, 시루, 파수, 뚜껑, 방추차, 원관형토제품, 석도
11	32호주거지	구연부	회청색 연질	심발, 발, 완, 장란형토기, 원저호, 시루, 파수, 대옹편, 뚜껑, 방추차, 갈돌
12	59-1호주거지	구연부	적갈색 연질	심발, 발, 장란형토기, 파수
13	63-1호주거지	구연부	황백색 연질	심발, 장란형토기, 주구토기 등이
14	64호주거지	구연+바닥	암적갈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천발, 장란형토기, 평저호, 원저호, 옹형토기, 시루, 파수, 대옹편, 뚜껑, 방추차
15	72호주거지	구연+바닥	황적색 연질	발, 장란형토기, 방추차
16	75-3호주거지	완형	회백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완, 장란형토기, 양이부호, 평저소호, 원저호, 주구토기 등이, 시루, 파수
17	77호주거지	구연부	적갈색 연질	심발, 발, 대발, 장란형토기, 시루, 대옹편, 흙돌, 합인석부
18	88호주거지	구연+바닥	황백색 연질	발, 장란형토기, 파수, 대옹편, 흙돌
19	91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경질	발, 장란형토기, 옹형토기

⑪ 함평 중량유적⁸⁰⁾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중량마을에 위치한 유적은 당하산(해발 135.2m)의

80) 최성락 · 고용규 · 이영철 · 최미숙 · 김미연 · 한미진, 2003. 《함평 중량유적 I-주거지-》, 목포대학교 박물관 · 한국도도공사.

동쪽 구릉사면부와 곡간평지부에 해당한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철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 주거지, 토광묘, 옹관묘, 제형주구, 구, 수혈, 방형주구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총 205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3기가 청동기시대 주거지이다. 철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를 이루고 있고, 노지, 기둥, 벽구 등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출토유물은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옹형토기, 완, 주구토기, 시루, 개배, 양이호, 방추차, 어망추, 박자, 원판형토제품, 원통형토제품, 나팔형토제품 등이 있다. 이층구연호는 3세기에서 5세기대에 걸치는 주거지에서 모두 출토되고 있다.

<표 52> 함평 중량유적 출토 이층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8호주거지	완형	황갈색 연질	발형토기, 주구토기, 시루, 장란형토기, 방추차, 지석, 연석, 흙돌
2	23호주거지	구연+ 동체	흑색 연질	시루
3	26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완형토기,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주구토기, 토제뚜껑, 방추차, 파수, 연석
4	28호주거지	구연부	회청색 경질	발형토기, 호형토기, 직구소호, 꺾형토기
5		구연부	회색 경질	
6	39호주거지	완형	회청색 경질	철도자, 지석
7	48호주거지	구연부	황회색 연질	발형토기, 호형토기, 대용편, 어망추, 연석, 지석
8		구연+ 동체	회청색 경질	
9	61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완형토기, 파수부토기, 대각, 대용편, 지석, 연석
10		구연부	황갈색 연질	
11	67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경질	시루, 파수
12	68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13	71호주거지	구연부	황백색 연질	장란형토기, 대용편, 지석, 연석
14		구연부	회청색 경질	
15	73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발형토기, 완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대각, 철검, 방추차, 연석
16	91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발형토기, 파수부토기, 대각, 양이개, 파수, 철촉, 석촉
17	94호주거지	구연부	황색 연질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주구토기, 철도자, 철모, 방추차, 석부, 흙돌, 연석, 지석
18		구연부유실	흑색 연질	
19	101호주거지	구연부	회청색 경질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주구토기, 대용편, 철도, 연석
20	107호주거지	구연부	흑갈색 연질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양이부호, 대용, 옥, 연석
21	108호주거지	구연부	흑색 연질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방추차, 연석
22	128호주거지	구연부	회청색 경질	발형토기, 파수
23	129호주거지	구연부	적갈색 연질	발형토기, 호형토기, 옹형토기, 주구토기, 대용편, 석촉
24	171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발형토기, 호형토기

⑫ 함평 성남유적⁸¹⁾

유적은 지성골로 불리우는 곡간평지부와 그곳에서 완만하게 이어져 올라가는 구릉사면부 일대에 위치한다. 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토광묘 4기, 옹관묘 2기 등의 분묘유적과 함께 이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형유구 100여기,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5기 등이 확인되었다. 1호 옹관묘와 4호 구상유구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1호 옹관묘는 산사면 위쪽에 위치하는데 합구식이며 반지하식이다. 대옹의 밑부분을 의도적으로 뚫은 후 그곳에 일상용의 장경호로 다시 마감한 일종의 3옹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옹관은 상단부가 유실되었지만 전체적인 형태를 알 수 있는 고식 옹관에 속한다. 4호 구상유구는 확인된 길이 33.06m, 최대 너비 1.20m, 깊이 20~30m이다. 구의 단면 형태는 U자형에 가깝다.

<표 53> 함평 성남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4호구상유구	완형	회백색 연질	옹관편

⑬ 무안 인평고분군⁸²⁾

유적은 무안군 몽탄면 일대에 위치하는데, 동쪽으로 S자상으로 곡류하는 영산강이 인접되어 있다.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기와 철기시대 신창리식 옹관묘로부터 삼국시대 토광묘, 대형옹관묘, 석곽묘, 석실묘 등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2호 토광묘에서 출토되었다. 2호 토광묘는 1호 토광묘에 둘러진 주구의 내부가 완전히 퇴적된 상면을 파들어가 만들어졌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202cm, 너비 82cm, 깊이 15cm 이다. 유물은 호형토기와 철검, 철착이 출토되었다.

<표 54> 무안 인평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토광묘	완형	회백색 연질	호형토기, 철검, 철착

81) 최성락 · 한옥민, 2001. <함평 성남유적> 《함평 성남 · 국산유적》 23-150,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82)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1999. 《무안 인평고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 철도청.

⑭ 무안 양장리유적⁸³⁾

유적은 무안군 몽탄면 양장리 일대에 위치하고 동남쪽에 영산강 본류가 흐르고 있다. 1, 2차 조사에서 주거지 37기, 수혈 13기, 지상건물지 10기, 팔각건물지 1기, 토광묘 3기와 함께 인공수로 등이 확인되었으며, 농경생활과 관련된 목렬구조물 및 목제유물이 다량 출토된 저습지가 조사되었다. 3차 조사에서는 주거지 36기,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이중구연호는 94-9, 96-6, 96-11호 주거지와 수로1, s1w3피트에서 출토되었다. 그 중 94-9호 주거지는 유적에서 가장 대형에 속하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규모는 장축 10.12m, 단축 10.03m, 깊이 16cm이고, 면적은 101.5㎡이다. 내부 시설로 노지와 주공, 벽구가 확인되었다. 토기는 대부분 노지구변에서 출토되었고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옹형토기, 토제투경 등이다.

<표 55> 무안 양장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96-6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경질	토제투경, 단지, 발형토기, 옹형토기, 파수, 옹관편, 고배
2	96-11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발형토기, 토제투경, 파수, 옹관편, 흙돌, 갈돌
3	94-9호주거지	구연+동체		발형토기, 완형토기, 장란형토기, 옹형토기, 토제투경, 유공광구소호, 시루형토기, 흙돌, 숯돌
4	수로1	구연부	회청색 경질	
5		구연부	흑색 연질	
6		구연부	회색 연질	
7	s1w3	구연부	회청색 연질	

⑮ 나주 용호고분군⁸⁴⁾

유적이 위치하는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용호마을 일대는 해발고도 20~30m 정도의 나즈막한 구릉성 산지들과 그 사이로 곡간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고분군은 구릉성 산지들과 그 사면부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데, 분묘 조영범위는 20,000여 평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서 20기의 분구에서 34기의 매장시설(목관묘 11기, 옹관묘 23기)을 확인하였다. 이중구연호는 9호분 목관묘, 15호분 목관묘, 17호분 주구에서 출토되었다.

분묘의 형식과 출토유물 등으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 I 단계는 목관묘 중심의매

83) 李榮文·李正鎬·李暎澈, 1997. 《務安 良將里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務安郡·韓國道路公社.

최성락·이영철·윤효남, 2000. 《무안 양장리유적Ⅱ》, 목포대학교박물관·철도청.

84) 金建洙·李暎澈·陳萬江·李恩政, 2003. 《羅州 龍虎古墳群》, 湖南文化財研究院.

장시설이 분구에 단독으로 안치된 시점으로 3세기 중반 이전, II단계는 옹관묘가 분구의 매장 주체로 등장하는 시점으로 3세기 후반경, III단계는 분구내 다장화 양상이 점차 나타내는 시점으로 4세기 초로 구분하였다. 9호분, 15호분은 I 단계로 보고 있다.

<표 56> 나주 용호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9호분	완형	황색 연질	호형토기, 철부
2	15호분	구연부유실	회백색 연질	
3	17호분	완형	적갈색	옹관

⑩ 영암 옥야리 신산고분군⁸⁵⁾

유적은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신산마을앞 신산제 남쪽구릉에 해당한다. 이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동서로 길게 5기가 배치되어 있다. 4호분주위에서 바닥만 남은 옹관이 노출되어 조사하였다. 옹관은 중심바닥부분만이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의 겨문거리들은 완전히 남아 있었다. 옹관은 전용독과는 차이를 보이는 고식적인 것이었다. 큰독의 안바닥에서 토기 3점과 긴칼조각, 쇠도끼, 기타 철제이기류가 출토되었다.

<표 57> 영암 옥야리 신산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옹관묘	완형	연질	옹관, 단지, 긴칼조각, 철부

⑪ 영암 월송리 송산고분군⁸⁶⁾

유적은 영암군 시종면 월송리 송산마을 서쪽 구릉상에 위치한다. 옹관은 합구식이며 전체길이는 230cm 이다. 이중구연호와 뚜껑, 밑둥근단지, 입큰단지, 긴칼조각, 철제이기류가 출토되었다.

<표 58> 영암 월송리 송산고분군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옹관묘	완형	연질	옹관, 뚜껑, 밑둥근단지, 입큰단지, 긴칼조각

85) 서성훈·성낙준, 1986. <영산강유역의 옹관묘조사 자료> 《영암 내동리 초분골고분》 191-281,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영암군.

86) 서성훈·성낙준, 1986. <영산강유역의 옹관묘조사 자료> 《영암 내동리 초분골고분》 191-281,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영암군.

⑱ 영암 몽해리 미륵동유적⁸⁷⁾

장천리주거지유적에서 동남쪽으로 2km 떨어진 몽해리 복다회부락의 서남쪽에 있는 낮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구릉 정상부에는 지석묘 7기와 입석 1기가 있다. 수습된 유물은 무문토기저부,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이중구연호, 대형 옹관편 등의 토기류와 유구석부편, 대패날, 석인편, 석촉편, 석침 및 석재편 등의 석기류와 철편 등이 있다. 이중구연호는 구연부 2점이 지표에서 수습되었다.

⑲ 영암 금계리유적⁸⁸⁾

유적은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일대 위치하고, 해발고도 15~20m 정도의 낮은 구릉사면부에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지듯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수혈주거지 12기, 철기시대 주구토광묘 26기, 토광묘 5기, 옹관묘 11기, 고려시대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4호 주구토광묘와 7호 주구토광묘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주구토광묘는 대부분 구릉사면을 따라 변들이 상호 인접된 채 노출되고 있다. 주구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와 제형계로 나눌 수 있고 제형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호와 7호 주구토광묘는 제형의 주구를 가지고 있다.

<표 59> 영암 금계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7호주구토광묘(주구)	구연부	회청색 연질	조형토기, 석촉, 어망추, 옹관

⑳ 영암 선황리유적⁸⁹⁾

유적은 대초마을의 북서쪽으로 이어지는 해발고도 20m이내의 저평한 구릉의 능선과 사면에 입지해 있다. 구릉의 북쪽으로 망월천이 흐르고 있으며, 건너편 구릉에 금계리 유적이 위치한다. 수혈 주거지 35기, 지상 건물지 4기, 옹관묘 1기, 구상유구 7기, 수혈 5기 등이 확인되었다. 22호 주거지와 4호 구상유구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22호 주거지는 방형으로 추정되고, 장축길이 488cm, 잔존 단축길이 246cm, 깊이 25cm이다. 내부시설은 화덕자리와 벽구시설, 주공 등이 확인되었다. 화덕자리 주변에서 발형토기가 확인되었다.

87) 崔盛洛, 1986. <西湖面一帶의 地表調査 報告Ⅱ> 《靈巖 長川里住居址》83-98,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靈巖郡.

88) 최성락·한옥민·한미진, 2004. 《영암 금계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89) 최성락·고용규·최미숙, 2004. 《영암 선황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영암군.

<표 60> 영암 선황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2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발형토기
2	4호구상유구	구연부	회청색 연질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옹관편, 파수, 지석, 연석

5. 보성강지역

① 순천 요곡리유적⁹⁰⁾

유적은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오원마을 일대에 위치한다. 지표조사 당시 오원 지석묘 20여기가 조사되었던 곳으로 유적은 오원 가군 지석묘 맞은편에 자리한다. 토광묘는 6기 조사되었고 그 중 2호 토광묘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2호 토광묘는 대부분 유실되고 바닥면 일부만 확인된다. 장축방향은 남-북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잔존길이 90cm, 너비 45cm이다.

<표 61> 순천 요곡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2호토광묘	구연+동체	흑색 경질	

② 순천 대곡리 도롱유적⁹¹⁾

유적은 순천시 송광면 대곡리 도롱에 위치한다. 도롱은 동으로는 보성강에 접해 있으며, 서·남·북의 세 방면은 해발 100~250m의 나즈막한 구릉과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26기, 소형유구 22기, 원삼국시대 주거지 25기, 요지 1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56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56호 주거지의 장축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이는 400cm이며 깊이는 20cm 정도이다. 내부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 62> 순천 대곡리 도롱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56호주거지	완형	황갈색 연질	받침모루

90) 최성락 · 이영문 · 이영철, 1997. <순천 요곡리유적> 《湖南高速道路 擴張區間(古西~順天間)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Ⅱ》 243-361, 全南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 · 韓國道路公社.

91) 崔夢龍 · 權五榮 · 金承玉, 1989. <大谷里 도롱 住居址>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VI)》, 全南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

③ 보성 금평유적⁹²⁾

유적은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 금평에 위치한다. 원삼국시대 패총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기와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2기, 수혈유구 2기, 구상유구 3기가 함께 조사되었다. 패총은 주거지와 수혈유구, 구상유구가 폐기된 후에 형성되었다. 이중구연호는 3호 구상유구에서 출토되었다.

<표 63> 보성 금평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3호구상유구	구연부	회색 연질	

6. 탐진강지역

① 장흥 신평유적⁹³⁾

유적은 장흥군 유치면 신평리 일대에 해당하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선상지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선단부로서, 맞은편에는 탐진강 본류가 흐르고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51기와 수혈 5기, 적석 2기, 고인돌 34기를 비롯해 삼국시대 주거지 3기, 주구 12기, 토광묘 73기, 옹관묘 27기 등 매우 다양한 유구들이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매장유적에 출토되었다.

② 장흥 지천리유적⁹⁴⁾

유적은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일대에 위치하고 남쪽에 S자로 곡류하는 탐진강이 인접해 있다. 주거지 43기, 수혈 56기, 지상건물지 7기, 구들유구 1기, 환호, 도랑유구 2기, 고분 1기가 조사되었다. 이중구연호는 12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12호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길이 319cm, 단축길이 246cm, 길이 5~9cm이며 면적은 7.85㎡이다. 바닥은 불다짐을 하였고, 내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64> 장흥 지천리유적 출토 이중구연호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2호주거지	구연부	회색 연질	

92) 林永珍·趙鎭先·徐賢珠, 1998. 《寶城 金坪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寶城郡.

93) 목포대학교박물관·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집.

이영철, 박수현, 2005. 《장흥 신평유적 I》, 호남문화재연구원·한국수자원공사.

94) 최성락·박철원·최미숙, 2000. 《장흥 지천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한국수자원공사.

③ 장흥 상방촌A유적 I 95)

유적은 국사봉에서 뺀어내린 산줄기 말단부에 입지해 있고, 동쪽으로 흐르는 움천천변의 형성된 해발 54m의 층적대지에 입지하고 있다. 주거지 107기, 주구토광묘 3기, 수혈유구 11기, 고려시대 건물지, 우물, 도로 등이 확인되었다. 이중구연호는 A-1지구의 1, 10, 11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계이며, 내부시설로 화덕자리, 벽구, 기둥, 출입시설 등이 조사되었다.

<표 65> 장흥 상방촌A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주구토기
2	10호주거지	완형	황갈색 연질	발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주구토기, 컵형토기
3	11호주거지	구연부	회청색 경질	발형토기, 호형토기, 시루, 옥, 철검, 철부, 철정

7. 해남지역

① 해남 신금유적⁹⁶⁾

유적은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신금마을에 위치한다. 유적일대는 삼산천을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와 산으로부터 흘러내린 작은 골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구릉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발굴조사는 해발 17~27m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주거지 72기, 수혈 19기, 구 9기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모두 방형으로 판단되고, 내부시설로 기둥배치, 벽구, 배출구, 벽체, 부뚜막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주거지구조의 특징은 주거지 주변을 감싸고 도는 외부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시루, 옹형토기, 주구토기, 이중구연호 등의 토기류와 함께 철기류, 석기류, 토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중복관계, 폐기원인, 출토유물의 비교를 통해 4단계로 구분하였다. I 단계는 3세기 중반, II 단계는 3세기 후반, III 단계는 4세기대, IV 단계는 5세기 전후로 구분하였다. 이중구연호는 I, II, III 단계에 보인다.

95) 최성락 · 정영희 · 최미숙 · 김영훈 · 이미란, 2004. 《장흥 상방촌A유적 I》,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수자원공사.

96) 李暎澈, 金美蓮, 張明燁, 2005. 《海南 新今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 · 益山地方國土管理廳.

<표 66> 해남 신금유적 출토 이중구연호와 공반유물

번호	유구	부위	색조 및 경도	공반유물
1	1호주거지	완형	회백색 경질	장란형토기, 시루, 주구토기, 호형토기, 옹형토기
2	7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발형토기, 시루, 호형토기, 옹형토기
3	32호주거지	구연+동체	황백색 연질	발형토기, 시루, 옹형토기
4	33호주거지	구연부	회백색 연질	
5	51호주거지	완형	황갈색 연질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호형토기, 옹형토기, 개, 솥돌, 철도자
6		완형	황갈색 연질	
7		구연부	회백색 연질	
8	55호주거지	완형	암갈색 연질	발형토기, 주구토기, 호형토기, 옹형토기, 방추차, 갈돌, 철부
9		구연부유실	암갈색 연질	
10		구연부	황갈색 연질	
11	57호주거지	완형	적갈색 연질	호형토기, 파수부토기
12	60호주거지	완형	암갈색 연질	발형토기, 시루, 주구토기, 호형토기, 옹형토기, 대부발형토기, 개, 갈돌
13	63호주거지	구연부	황백색 연질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호형토기, 갈돌
14	67호주거지	구연부	황갈색 연질	발형토기, 호형토기, 개, 갈판
15		구연부	암갈색 연질	

② 해남 원진리 농암옹관묘⁹⁷⁾

유적은 해남군 원진리 농암마을에 위치한다. 해남 신금유적과 삼산천을 사이에 두고 이웃하고 있다. 3기의 옹관묘를 조사하였고, 그 중 2호 옹관 소옹의 구연에 돌대가 돌려져 있다. 2호 옹관은 합구식이며, 대옹의 바닥에서 철부가 출토되었다. 옹관의 구연부에 돌대가 돌려져 있다.

③ 해남 군곡리패총⁹⁸⁾

駕空山 서쪽 기슭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 유적은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방처마을 일대이다. 패총의 규모는 구릉을 중심으로 너비 200여m, 길이 300여m이고 그 면적은 2만평에 이른다. 3차에 걸쳐 조사되었다. 1차 조사시 표토층과 생토층을 제외하고 14개 층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5기층(제 I 기층 : 14~12층, 제 II 기층 : 11~9층, 제 III 기층 : 8층, 제 IV 기층 : 7~5층, 제 V 기층 : 4~1층)으로 나누었다. 이

97) 成洛俊·申相孝, 1989. <海南 院津里 甕棺墓> 《靈岩 臥牛里 甕棺墓》57-100, 國立光州博物館·百濟文化開發研究院.

98) 崔盛洛, 1987. 《海南 郡谷里貝塚 I》,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崔盛洛, 1988. 《海南 郡谷里貝塚 II》,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崔盛洛, 1989. 《海南 郡谷里貝塚 III》, 木浦大學校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崔盛洛, 1995.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중구연호는 제일 윗층인 제 V기층에서 출토되었다. 제 V기층은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3장 이중구연호의 형식분류와 편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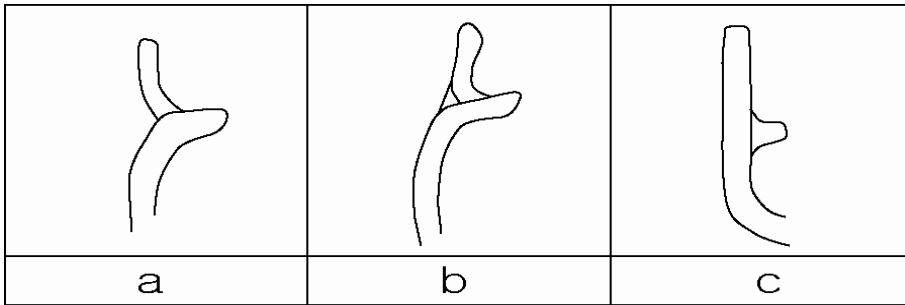
제1절 속성 검토 및 형식분류

이중구연호는 지금까지 78개의 유적에서 289개체의 그릇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선 이중구연호의 특징인 턱을 알 수 있는 212개체를 중심으로 속성을 분류하였다. 그 중 완형으로 복원되어 그릇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83점이다⁹⁹⁾.

그릇의 속성 중에 이중구연호의 변화양상은 구연부, 저부, 동체에 잘 남아있다.

1. 구연부

구연부의 형태는 구연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a식은 외반된 뚜껑받이 위에 구연을 붙이는 방법으로 접합 흔적인 홈이 남아 있는 것이고, b식은 뚜껑받이와 구연사이의 홈을 메꾸 것, c식은 직립된 구연에 돌대를 붙여 뚜껑받이턱을 만든 것이다¹⁰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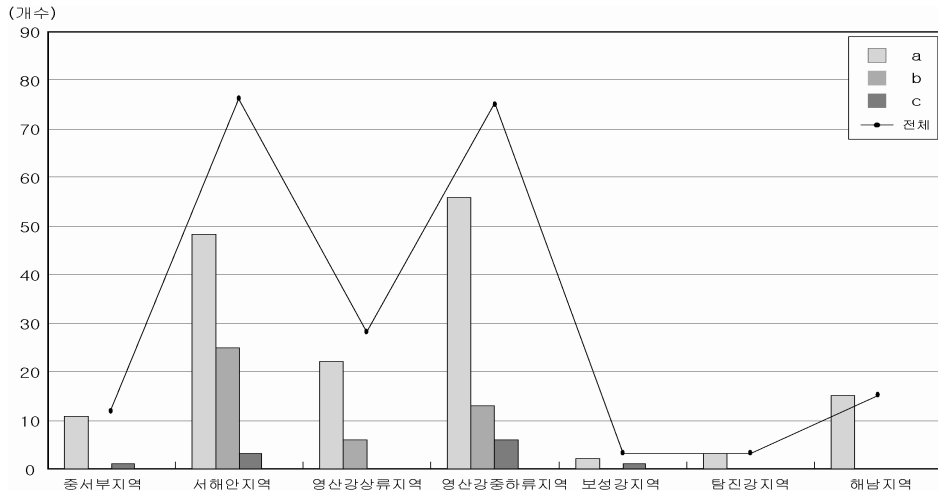


<그림 4> 이중구연호 구연 모습

99) 함평 월야 순촌유적에서 출토된 32호 옹관과 중서부지역에서 수습된 그릇은 세부적인 속성분류가 어려워 속성분류에서 제외하였다.

100) 서현주는 상구연을 접합시키는 방법과 그 내부를 정면하는 방법에서 4가지로 나누었는데 a식은 등글게 외반시킨 하구연 위에 상구연을 그대로 올려붙이는 것으로 별다른 정면을 하지 않아 홈이 분명하게 남아있는 것 중에 외반시킨 하구연을 그대로 올려붙이는 것(a-1), 턱 가장자리부터 올려붙이는 것(a-2) 식으로 나누었고, b식은 내부의 홈부분을 간단하게 문질러 정면한 것이지만 홈의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 c식은 홈을 메꾸어 내부를 처리하는 것, d식은 직립구연의 외면에 돌대를 붙여 턱을 형성

a형식의 구연은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 전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전기중에서 확인되고 있다. b형식은 서해안지역 및 영산강유역에서 출토되고 소수이지만 전기중에서 보인다. c형식은 다른 형식과 차이를 보이며 큰 그릇이나 옹관에서 보이고 있으며, 중서부지역, 서해안지역, 영산강중·하류지역, 해남지역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5> 구연부 지역별 분포

그리고 구연부 끝의 방향에 따라 직립, 외반, 내경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반에서 직립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쓰기 편리한 형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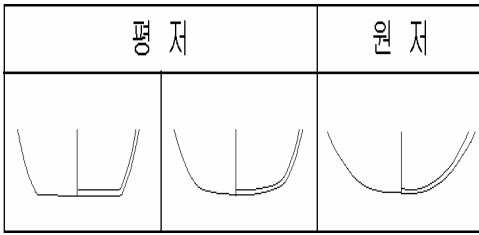
2. 저부

저부의 형태를 통해 평저(I)와 원저(II)로 구분하였고, 평저는 다시 뚜렷한 평저와 말각평저로 구분할 수 있다. 저부를 확인할 수 있는 91점 중 평저는 38점, 원저는 53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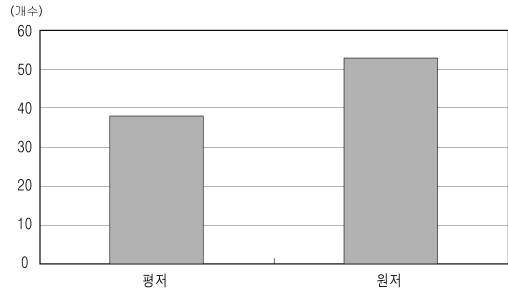
한 것이다. 서현주, 2001. <二重口緣土器 小考> 《百濟研究》第33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함평 소명동유적에서 구연을 구부려 뚜껑받이 형식을 갖춘 그릇이 2점 출토되었으나 턱이 뚜껑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어 구연의 형태에서 제외하였다.

101) 한옥민, 2001. <전남지방 토광묘 성격에 대한 고찰> 《湖南考古學報》13, 湖南考古學會.



<그림 6> 저부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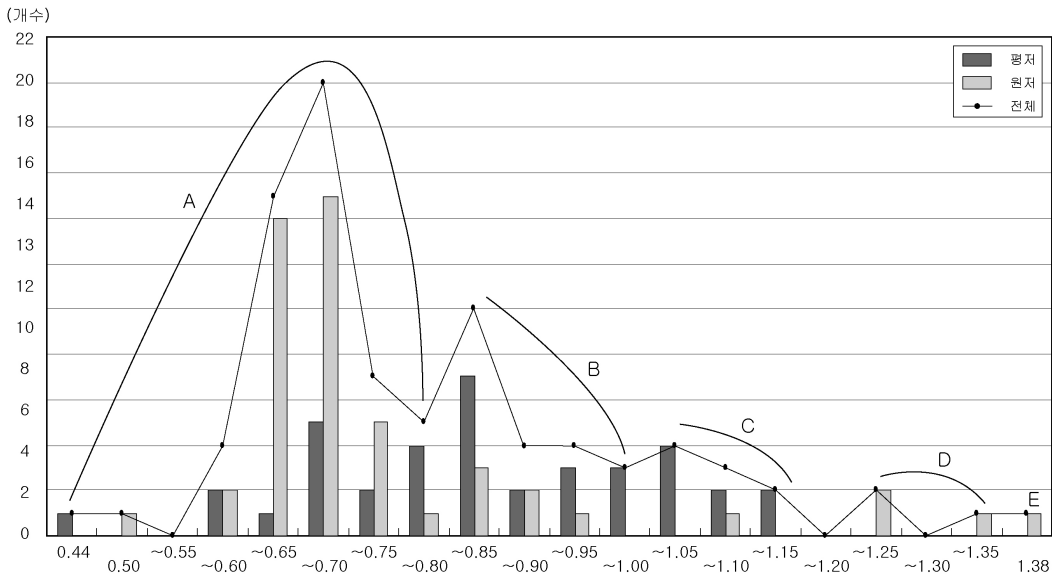


<그림 7> 저부의 형태

3. 동체부

동체는 이차적인 속성인 세장도¹⁰²⁾를 이용해 형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동체의 세장도를 알 수 있는 87점(평저 38점, 원저 49점)을 이용하였다. 동체의 세장도는 0.44~1.38까지 분포하고 있다. 평저는 0.44~1.15까지 원저는 0.50~1.38까지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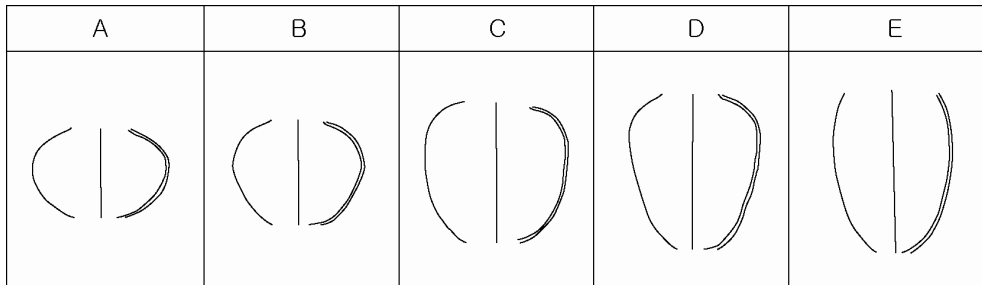
세장도의 분포에 따라 5개군으로 나누었고, A군은 0.44~0.80, B군은 0.81~1.00,



<그림 8> 이중구연호 동체 세장도

102) 세장도는 동체높이/동최대경으로 1에 가까우면 동체가 구형이며, 1보다 적으면 편구형, 1보다 크면 난형이나 장란형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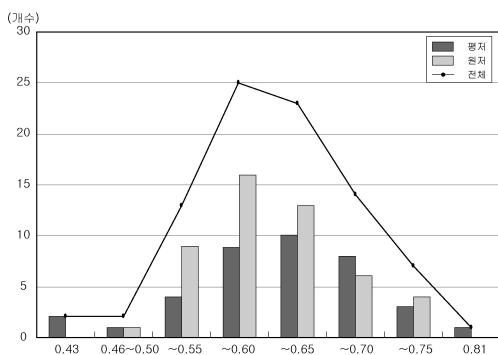
C군은 1.01~1.15, D군은 1.21~1.35, E군은 1.38로 구분하였다. 호형토기는 일반적으로 동체부의 형태가 편구형→구형→난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중구연호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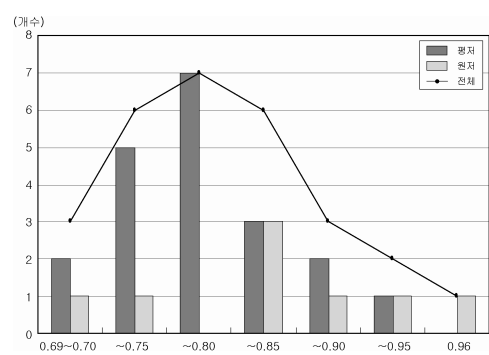
<그림 9> 동체의 모양

최대경고비¹⁰³⁾는 0.43~0.81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0.43에 2점(2%), 0.46~0.50에 2점(2%), 0.51~0.55에 13점(15%), 0.56~0.60에 25점(29%), 0.61~0.65에 23점(26%), 0.66~0.70에 14점(16%), 0.71~0.75에 7점(8%), 0.81에 1점(1%)이 있다. 이와 같이 동최대경의 위치가 0.51이상에 위치하고 있고, 0.51~0.70에 77점(89%)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동체의 돌기, 귀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고¹⁰⁴⁾, 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87점중 28점에서 돌기나 고리(耳)를 확인하였다. 20점은 평저에서 확인되었



<그림 10> 최대경고비 위치도



<그림 11> 돌기, 고리(耳) 위치도

103) 최대경고비는 최대경높이/동체높이로 0.5이며 최대경의 위치가 중앙에 오는 것이고, 0.5보다 적으면 중앙보다 아래, 0.5보다 크면 중앙보다 위에 있는 것이다.

104) 돌기의 위치는 돌기높이/동체높이로 구했다

고 8점이 원저에서 확인되었다. 0.69~0.70에 3점(11%), 0.71~0.75에 6점(21%), 0.76~0.80에 7점(25%), 0.81~0.85에 6점(21%), 0.86~0.90에 3점(11%), 0.91~0.96에 3점(11%)이 있다.

4. 형식분류

앞에서 구연부, 저부, 동체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속성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형식분류를 하였다.

저부와 동체의 변화모습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

<표 67> 바닥과 동체 세장도 관계(괄호 돌기개수)

	A	B	C	D	E	합계
평저(I)	14(5)	16(8)	8(7)	0	0	38(20)
원저(II)	39(6)	5(1)	1	3	1(1)	49(8)
합 계	53(11)	21(9)	9(7)	3	1(1)	87(28)

IA는 14(5)점, IB는 16(8)점, IC는 8(7)점, IIA는 39(6)점, IIB는 5(1)점, IIC는 1점, BIID는 3점, IIE는 1(1)점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동체의 변화모습은 A→B→C→D→E군으로, 평저(I)→원저(II)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저에 돌기가 있으며, 원저에서는 돌기와 귀가 있는 8점의 그릇이 보인다. IIA와 IIB에서 돌기가 보이며, 동체 E군에서는 고리가 보인다. 따라서 돌기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저(I)에서는 동체 D군과 E군이 확인되지 않았다.

저부, 동체 변화모습과 구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

<표 68> 바닥, 동체 세장도와 구연부의 관계(괄호 돌기개수)

바닥	동체	a	b	c	합 계
I	A	8(4)	2	1(1)	11(5)
	B	11(4)	1(1)	1(1)	13(6)
	C	6(6)	1(1)		7(7)
II	A	32(5)	5(1)		37(1)
	B	3	2(1)		5(1)
	C			1	1
	D	3			3
	E	1(1)			1(1)
합 계		64(20)	11(4)	3(2)	78(21)

I Aa는 8(4)점, I Ab는 2점, I Ac는 1(1)점, I Ba는 11(4)점, I Bb는 1(1)점, I Bc는 1(1)점, I Ca는 6(6)점, I Cb는 1(1)점, II Aa는 32(5)점, II Ab는 5(1)점, II Ba는 3점, II Bb는 2(1)점, II Cc는 1점, II Da는 3점, II Ea는 1(1)점이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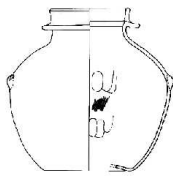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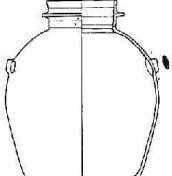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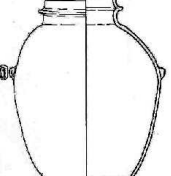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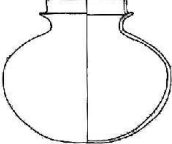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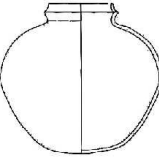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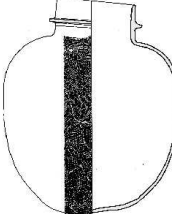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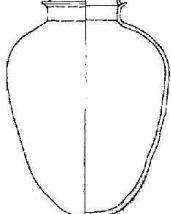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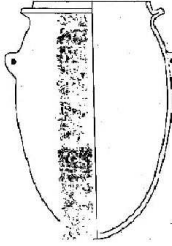
I A, I B에서는 구연부 a, b, c의 모습이 모두 보이고 있으며, I C, II A, II B에서는 구연부 a, b가 확인되고, II C에서는 구연부 c, II D, II E에서는 구연부 a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II Aa에서 돌기는 중서부지역의 공주 남산리, 부여 소사리, 서천 지산리유적에서 보이며, II Ab와 II Bb에서는 서해안지역인 고창 만동유적 9-6호 옹관묘의 부장품과 영광 군동“라”유적의 22-1호 옹관묘의 소옹에서 돌기가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평저(I)에서는 대부분이 문양이 없다. 그러나 고창 예지리 16호 토광묘와 함평 성남 4호 구상유구에서 문양이 있는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고창 예지리 16호 토광묘 출토품은 I Bb형식으로 굽다리과 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종으로 일단 평저로 분류하였는데, 평행문+횡침선의 문양을 확인되었고, 함평 성남 4호 구상유구 출토품은 I Ca형식으로 동체 중하위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원저(II)는 무문, 격자문, 평행문+횡침선+격자문, 평행문+격자문, 거치문, 승석문+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II A형식은 무문, 격자문, 평행문+횡침선+격자문, 거치문, 평행문+격

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IIB형식은 무문, 격자문, 평행문+격자문이, IIC형식은 격자문, IID형식은 무문, IIE형식은 승석문+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중구연호의 속성 중 바닥과 세장도를 중심으로 8개의 형식으로 형식분류하였다.

	I A	I B	I C	II A
도 면				
	II B	II C	II D	II E
도 면				

<그림 12> 이중구연호 형식분류(축척부동)

<표 69> 이중구연호 일람표

번호	유적명	유구명	높이	구경	동체 높이	동최 대경	동최 대경 높이	세장 도	최대 경고 비	돌기 위치	용량	문양	바 닥 형 태	동 체 형 태	구 연 형 태
1	가락동	2호토광묘	19.5	11.5	16.2	22.8	9.2	0.71	0.57		3.5	격자문	Ⅱ	A	a
2	두경동	8호토광묘	24.8	14.4	20.8	30.4	12.4	0.68	0.60		6.6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Ⅱ	A	a
3	송대리	40-1호토광묘	58.4	19.8	48.1	44.9	32.9	1.07	0.68		37.5	격자문	Ⅱ	C	c
4	남산리	80년대수습	19.7	10.5	16.1	25	9	0.64	0.56	0.84	4	무문	Ⅱ	A	a
5		5호토광묘	24.9	12.6	21.5	28.6	13.4	0.75	0.62	0.81	6.6	무문	Ⅱ	A	a
6		22호토광묘	14.8	9.8	11.8	19.3	7.2	0.61	0.61		1.8	무문	Ⅱ	A	a
7	소사리	D호분	19.5	12	15.1	24.6	9.7	0.61	0.64	0.87	3.5	무문	Ⅱ	A	a
8	지산리	Ⅱ-11호주거지	26	15.8	21.5	31.4	13.7	0.68	0.64	0.96	8.1	선조문+격자문	Ⅱ	A	a
9	봉선리	6호토광묘	(10.8)		9.3	16.5	6	0.56	0.65		1.3	무문	I	A	
10		17호토광묘	28.1	14	23.1	36.1	14.6	0.64	0.63		12.2	무문	Ⅱ	A	a
11		27호토광묘	(23.2)		20.1	22	14.4	0.91	0.72		3.8	무문	I	B	
12	선도리	2호수혈	28.8	12	24.3	25	16.3	0.97	0.67		6.5	평행문+회침선	I	B	a
13	오석리	95-9호토광묘	21	11.8	14.3	22	8.9	0.65	0.62	0.92	2.4	무문	Ⅱ	A	a
14	대동리	5호주구묘주구	35.9	13.6	29.1	32.9	16.9	0.88	0.58		13.2	무문	I	B	a
15	봉덕	30호주거지	23.3	12.8	18.3	27.6	10.5	0.66	0.57		5.5	무문	Ⅱ	A	a
16			30.7	14.2	24.7	35.2	14.9	0.70	0.60		11.6	무문	Ⅱ	A	b
17			25.9	14.8	21.2	32.2	11.3	0.66	0.53		8.6	무문	Ⅱ	A	a
18	만동	4호묘(주매)	24.1	10.4	20.5	32.2	12.1	0.64	0.59		6.5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Ⅱ	A	a
19		8호묘(주매)	17.4	11.2	12.8	22	8.8	0.64	0.63		2.5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Ⅱ	A	a
20		8-1토광	27.2	13.8	22.7	31.2	13.2	0.73	0.58	0.76	10.5	무문	I	A	a
21			31	11.8	24.4	31.2	14.5	0.78	0.59	0.77	10.6	무문	I	A	c
22		8-1옹관	19.4	14.4	14.1	28	8	0.50	0.57		4.8	무문	Ⅱ	A	a
23		9호묘주구	32.2	14	28.1	30.2	19.1	0.93	0.68	0.86	11.9	무문	I	B	a
24		9-5옹관	13.9	10.2	10.7	16.1	6.4	0.66	0.60		1.2	무문	Ⅱ	A	b
25		9-6옹관	12.6	9.1	10	14.7	6.3	0.68	0.63	0.69	0.9	무문	Ⅱ	A	b
26			22	9.6	19.5	24	11.1	0.81	0.57		3.9	무문	Ⅱ	B	a
27		10호묘(주매)	30	12.5	24.8	30.6	14.6	0.81	0.59		9.3	평행문+격자문	Ⅱ	B	b
28		11호묘(주매)	25.4	11.4	20.6	24	11.1	0.86	0.54		5.8	무문	I	B	a
29		12호묘(주매)	29	15.4	23	27.6	12.9	0.83	0.56	0.70	9.1	무문	I	B	a
30			30.6	13.2	24.2	34.4	14.6	0.70	0.60		12.5	무문	I	A	a
31		12-1옹관	25.2	13.2	19.5	31.6	11.2	0.62	0.57		6.5	무문	Ⅱ	A	a

번호	유적명	유구명	높이	구경	동체 높이	동최 대경	동최 대경 높이	세장 도	최대 경고 비	돌기 위치	용량	문양	바 닥 형 태	동 체 형 태	구 연 형 태
32	만동	13호묘(주배)	28.8	17	21.9	31.8	11.2	0.69	0.51	0.82	11.2	무문	I	A	a
33		3호토광묘	28	13	21.3	27.7	13.2	0.77	0.62	0.84	7.9	무문	I	A	a
34	예지리	1호토광묘	24	12	18.4	26.9	8	0.68	0.43		6.9	무문	I	A	b
35		16호토광묘	28	11	22	26.5	9.5	0.83	0.43	0.76	8.5	평행문+횡침선	I	B	b
36	군동“라”	1-1호옹관	23	12.5	17.9	26.8	9.8	0.67	0.55		4.8	평행문+격자문	II	A	b
37		10호주구토광묘	34	13.2	28.7	29.4	15.3	0.98	0.53	0.76	11.9	무문	I	B	a
38		11호주구토광묘	19.2	12.1	15.1	23.4	10.2	0.65	0.68		2.7	무문	II	A	a
39		21-1호토광묘	26.9	12.6	20.2	24.5	12.8	0.82	0.63	0.77	5.7	무문	I	B	a
40		(18)			14.9	23.1	8.8	0.65	0.59		4.2	무문	I	A	
41		21-1호옹관묘	(34.4)		30.7	31	14.6	0.99	0.48	0.72	14.4	무문	I	B	
42		22-1호옹관묘	53.2	39.4	43.2	49.2	31.9	0.88	0.74	0.74	42.5	격자문	II	B	b
43		2호토광묘	18.6	13.6	15	22.6	8.6	0.66	0.57		3	무문	II	A	a
44		B1호토광묘	17.4	12.1	11.6	20.2	6.7	0.57	0.58		2.3	무문	I	A	b
45	하화	A호	24.3	15.6	19.4	22.7	13.3	0.85	0.69		4.2	무문	II	B	a
46	장혈	석실분추정	13.3	8.2	9.9	15.8	5.8	0.63	0.59		1.2	무문	II	A	a
47	일곡동	가2호주거지	40	20.2	34.3	36.4	22.8	0.94	0.66		16.4	무문	II	B	a
48	신창동	2호옹관	52.7	15.2	47.6	35.3	35.5	1.35	0.75		22.6	무문	II	D	a
49	쌍촌동	54호주거지	46.4	13.8	40.9	33.9	30.2	1.21	0.74		17.4	무문	II	D	a
50	복암리	1호분주구동구	22.8	9.5	19.6	19.4	13.6	1.01	0.69	0.73	3.6	무문	I	C	a
51		1·2호분사이7호 옹관	22	11.9	18.5	29.2	10.9	0.63	0.59		5.7	무문	II	A	a
52	만가촌	6-1호묘	31.1	12.2	27.2	25.7	17.3	1.06	0.64	0.69	8.2	무문	I	C	a
53		12-2호묘	19.8	13.7	15.8	19.5	10.4	0.81	0.66		2.8	무문	II	B	a
54		13-5호묘	(24)		21.3	31.3	12.9	0.68	0.61		7	무문	II	A	
55		13-6호묘	23.1	9.1	18.8	32.1	10	0.59	0.53		7.4	격자문	II	A	a
56		13-8호묘	15.5	11.5	13.7	17.2	9.1	0.80	0.66		1.9	격자문	II	A	a
57	순촌	16호주구토광묘	30.7	12.6	24.5	26.5	15.1	0.92	0.62	0.80	9.4	무문	I	B	c
58		20호주구토광묘	26	12.8	19.8	25.1	12.3	0.79	0.62	0.72	5.9	무문	I	A	a
59			19.1	13.8	15.5	25	9.6	0.62	0.62		3.8	무문	II	A	a
60		29호주구토광묘	25	13.6	20.1	28.8	10.3	0.70	0.51		6.1	거치문	II	A	a
61		32호옹관묘	(14.9)		13.3	16.5	8.7	0.81	0.65	0.74	1.9	무문	I	B	

번호	유적명	유구명	높이	구경	동체 높이	동최 대경	동최 대경 높이	세장 도	최대 경고 비	돌기 위치	용량	문양	바 닥 형 태	동 체 형 태	구 연 형 태
62	용산리	3호주거지	22	13.1	18.8	26.1	11	0.72	0.59		5.6	무문	I	A	a
63	대성	1호주거지	24	13.4	20.6	26.1	11.4	0.79	0.55		5	무문	II	A	a
64	소명동	2호주거지	22.5	14.8	17.8	21.5	12.9	0.83	0.72		3.7	무문	I	B	a
65		6호주거지	14.1	10.8	10.9	15.5	6.8	0.70	0.62		1.3	무문	I	A	a
66		27호주거지	18.7		14.7	33.1	8.4	0.44	0.57		4	무문	I	A	a
67			37	12.3	34	27.3	23.8	1.25	0.70		9.8	무문	II	D	a
68		75-3호주거지	29	15	24.1	32.9	14	0.73	0.58		9	무문	II	A	a
69	증량	8호주거지	39.7	12.5	33.8	29.4	27.3	1.15	0.81	0.86	13.7	무문	I	C	b
70		39호주거지	22.2	13	18	31.7	9.8	0.57	0.54		6.1	평행문+횡침선+격자문	II	A	b
71		94호주거지	(12.8)		10.2	15.2	6.6	0.67	0.65		1.4	무문	I	A	
72	성남	4호구상유구	39.2	12.1	34.2	29.7	22.6	1.15	0.66	0.82	13.9	격자문	I	C	a
73	인평	2호토광묘	21.8	11.2	18.3	24.9	9.4	0.73	0.51		4	평행문+횡침선+격자문	II	A	a
74	용호	9호분	31	15.8	28.7	28.3	21.3	1.01	0.74	0.78	12	무문	I	C	a
75		15호분	(26.2)		23.8	21.6	12.9	1.10	0.54		6	무문	I	C	
76		17호분	23.3	7.3	19.3	18.9	12.8	1.02	0.66	0.74	3.8	무문	I	C	a
77	신산	용관묘	16.5	11.6	13.2	20.6	7.9	0.64	0.60		2.5	격자문	II	A	a
78	송산	용관묘	30	11.5	25.8	25.4	16.5	1.02	0.64	0.91	7.6	무문	I	C	a
79	도룡	56호주거지	34	17	31.2	22.6	21.2	1.38	0.68	0.81	6.6	승석문+격자문	II	E	a
80	상방촌	10호주거지	22.7	14.4	18.7	24.9	9.2	0.75	0.49		5	무문	II	A	a
81	신금	1호주거지	27.2	13.7	23	33.8	14.4	0.68	0.63		9.2	평행문+횡침선+격자문	II	A	a
82		51호주거지	14	11.5	12.7	18.3	7.7	0.69	0.61		2.2	무문	II	A	a
83			26.1	17.1	20.9	34.2	12.8	0.61	0.61		9	평행문+횡침선+격자문	II	A	a
84		55호주거지	24.2	13	18.5	22.4	12.4	0.83	0.67		4.6	무문	I	B	a
85			(18.8)		16.6	24.2	8.5	0.69	0.51			격자문	II	A	
86		57호주거지	27.4	14.8	16.6	33.1	11.4	0.67	0.51		8.8	평행문+횡침선+격자문	II	A	a
87		60호주거지	35.4	15	29.3	33.1	21.9	0.89	0.75		11	격자문	II	B	a

제2절. 유구 및 공반유물 검토

1. 유구 검토

이중구연호는 매장유구와 생활유구에서 출토되고 있다. 매장유구는 토광묘, 옹관묘, 석실분 등에서, 생활유구는 주거지, 도랑, 조개무지, 가마 등에서 출토된다. 매장유구와 생활유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매장유구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매장유구는 토광묘¹⁰⁵⁾와 옹관묘, 석실분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토광묘는 주구토광묘와 토광묘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주매장주체부와 주구 그리고 추가장인 옹관묘와 토광묘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고 있으며, 서해안지역과 영산강 중·하류지역의 유적에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중서부지역과 서해안지역, 영산강 중·하류지역의 무안 인평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그러나 중서부지역의 토광묘는 목관묘와 목곽묘가 구분되나 호남지역의 토광묘는 구분하기가 힘들다.

호남지역에 대한 토광묘에 대한 연구는 한옥민과 김영희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한옥민은 구축재질과 주구에 추가묘의 유무에 따라 형식분류하였다. 이중구연호는 II기에 출토되고 있다. 토광묘의 형식은 AII형과 BII형이 있고, 분구상 혹은 대상부 중심에 단수의 매장주체부를 두고 주구에 추가묘가 있는 것, 다장묘적 성격을 보이는 것으로 2세기~3세기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다¹⁰⁶⁾.

김영희는 주구토광묘에서 매장주체부인 토광묘를 중심으로 특징 및 성격을 통해

105) 이중구연호는 토광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주구를 가지고 있는 토광묘에서도 출토되고 있어 주구를 가지고 있는 토광묘를 주구토광묘로 토광묘 단독으로 사용된 토광묘를 토광묘로 부르려고 한다.

106) 한옥민, 2001, <전남지방 토광묘 성격에 대한 고찰> 《湖南考古學報》13, 湖南考古學會.

A형 : 구축재질이 석제인 것

AI형(적석토광묘) : 땅에 묘광을 판 후, 내부에 시신을 안치하고 주변을 석재로 채운 것.

AII형(위석토광묘) : 땅에 묘광을 판 후, 그 주변을 할석으로 감아 보강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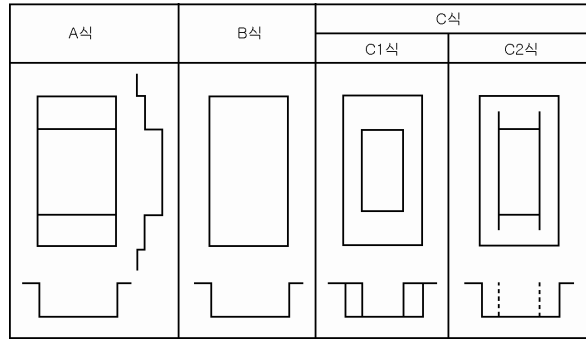
B형 : 구축재질이 목제인 것

BI형 : 분구상 혹은 대상부 중심에 단수의 매장주체부를 두고 주구에 추가묘가 없는 것.

BII형 : 분구상 혹은 대상부 중심에 단수의 매장주체부를 두고 주구에 추가묘가 있는 것.

BIII형 : 분구상 혹은 대상부 중심에 복수의 매장주체부를 두고 주구에 추가묘가 없는 것.

계층설정을 하였는데, 이중구연호는 2기와 3기에 출토되었다. 2기의 토광 형태는 B식이 주를 이루고, 고창과 부안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유적과 함께 영광 군동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장의 형태는 옹관묘와 토광묘, 토광묘+옹관묘가 모두 확인되고 있다. 중심



<그림 13> 김영희의 토광묘 형식분류

년대는 2~3세기로 보고 있다. 3기는 C1식이나 C2식이 주를 이루고 매장주체부가 토광묘가 중심이 되지만 옹관묘가 안치되는 경우도 있다. 추가장은 옹관묘로 변화된다. 3기는 3세기 전반~4세기 초반으로 편년하였다¹⁰⁷⁾.

주구토광묘의 주구의 형태는 대체로 네모꼴(方形)→타원형(馬蹄形)→사다리꼴(梯形) 등으로 변화된다¹⁰⁸⁾.

옹관묘¹⁰⁹⁾는 주구토광묘에 추가장으로 사용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된다. 이중구연호는 옹관묘의 부장유물로 사용되거나 대옹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창 만동유적, 영광 군동“라”유적에서 직구난형의 옹형토기를 이용하여 옹관으로 사용하였고, 흔히 선황리식으로 알려진 구연부가 90도에 가깝게 외반된 고식옹관이 사용되었다. 고식옹관의 제작연대는 서성훈·성낙준의 분류¹¹⁰⁾와 이정호¹¹¹⁾의 견해는 이들 옹관의 제작연대가 늦어도 3세기 전반을 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영철

107) 金永熙, 2005. 〈湖南地方 周溝土壙墓의 埋葬主體部 檢討〉 《研究論文集》 第5號, 湖南文化財研究院.

A식 : 관을 안치하기 위해 2단으로 굴광이 이루어진 것.

B식 : 직장토광묘와 동일한 형태이며, 굴광선 이외에 내부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것.

C식 : 목관을 안치하기 위해 굴광을 넓게 굴착하고 관을 안치한 것.

C1식 :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굴광선 내부에 또 하나의 장방형의 윤관선이 확인되며 그 사이에 允塡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

C2식 : 토광의 바닥에 목관으로 추정되는 회백색의 점토띠가 확인되며 목관과 굴광사이에 允塡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

108) 최성락, 2002.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영산강유역〉 《韓國上古史學報》 第37號, 韓國上古史學會.

109) 서성훈·성낙준, 1986. 《영암 내동리 초분골고분》,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영암군.

李正鎬, 1996. 〈榮山江流域 甕棺古墳의 分類와 變遷過程〉 《韓國上古史學報》 第22號, 韓國上古史學會.

110) 서성훈·성낙준, 1986. 《영암 내동리 초분골고분》,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영암군.

111) 李正鎬, 1996. 〈榮山江流域 甕棺古墳의 分類와 變遷過程〉 《韓國上古史學報》 第22號, 韓國上古史學會.

은 3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한 전후시기로 보고 있다¹¹²⁾. 함평 월야 순촌유적의 32호 옹관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뚜껑받이턱을 만들고 동체 상단에 하트모양의 구멍을 만들었다. 그리고 영광지역에서는 구연에 뚜껑받이턱을 만든 옹관들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광주 신창동유적, 영광 군동“라”유적, 함평 월야 순촌유적 등과 같이 이중구연호가 옹관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석실분은 영광 양덕리 장혈에서 양이부호와 함께 수습되었다¹¹³⁾. 김종만의 형식 분류에 의하면 IA3a가, 4세기로 이영철은 I 형식으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로 편년 하였다¹¹⁴⁾.

나. 생활유구

생활유적으로는 주거지와 가마, 조개무지, 도랑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에서 많은 양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는 중서부지역에서는 서천 지산리유적에서 출토되었고 호남지역의 많은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들 주거지들은 대부분 방형계를 이루고 있으며, 주공, 화덕자리, 벽구 등을 가지고 있다. 주거지의 기둥은 주거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능을 가지며, 주기둥과 보조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주거내 기둥 구멍의 흔적을 통해 무주식과 유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주식 주거지는 대부분은 4주공인데 호남지방에서는 3세기 중반에서 5세기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⁵⁾.

벽구는 주거지의 벽면 아래를 따라 만들어진 도랑을 칭한다¹¹⁶⁾.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부터 설치된 것으로 영산강유역에서는 3~4세기대에 많이 보인다.

화덕자리는 주거내의 보온, 취사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¹¹⁷⁾, 실내 조명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화덕자리는 주거지의 내의 한쪽 벽면에서 많이 나

112) 이영철, 2001.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13) 영광 양덕리 장혈 석실분은 석실분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114) 金鍾萬, 1999. 〈馬韓圈域出土 兩耳附壺 小考〉《考古學誌》第10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이영철, 2001.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15) 최성락 · 이영철 · 윤효남, 2000. 《무안 양장리유적Ⅱ》, 목포대학교박물관 · 철도청.

116) 이영철, 1997. 〈전남지방 주거지의 벽구시설 검토〉《박물관연보》제6호, 목포대학교 박물관.

117) 최성락, 1998. 〈철기시대 주거지를 통해 본 사회상〉《동아시아 철기문화-주거 및 고분을 통해 본 정치·사회상》,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타나고 있으며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등이 보인다.

가마는 영광 군동“가”유적에서 조사되었다. 3개의 가마에서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시루, 호형토기, 주구토기 등과 같이 이중구연호와 함께 출토되었다. 1호 가마가 가장 잘 남아 있다. 연대는 3세기로 보고 있다¹¹⁸⁾.

조개무지는 해남 군곡리와 보성 금평유적에서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해남 군곡리 조개무지 제V기층에서 이중구연호의 출토되었는데 연대를 2세기 후반~3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¹¹⁹⁾. 그리고 보성 금평 조개무지의 중심연대를 3세기 중·후대로 보고 있다¹²⁰⁾.

지금까지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매장유구와 생활유구를 검토해 보았다. 이중구연호는 3~6세기대의 매장유구인 토광묘, 옹관묘 등에서 생활유구인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고, 그 중에서는 3~4세기의 유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중구연호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매장유구 토광묘이며, IA, IB, IC, IIA, IIB, IIC형식 등 비교적 다양한 형식이 출토되고 있다. 옹관묘에서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예는 호남지역이며 IB, IC, IIA, IIB, IID형식이 보인다. 주거지에서는 IA, IB, IC, IIA, IIB, IID, IIE형식이 출토되고 있다.

앞 절에서 형식분류한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유적과 유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0> 이중구연호의 형식과 출토유구(괄호 돌기개수)

	IA	IB	IC	IIA	IIB	IIC	IID	IIE	합계
토광묘	10(5)	8(5)	3(2)	18(3)	1	1			43(16)
옹관묘		3(2)	1(1)	6(1)	2(1)		1		13(5)
석실분?				1					1
주구		2(1)	2(2)	1(1)					3(3)
매장유구	10(5)	13(8)	6(5)	26(5)	3(1)	1	1		60(24)
주거지	4	2	1(1)	13(1)	2		2	1(1)	25(3)
기타		1	1(1)						2(1)
생활유구	4	3	2(2)	13(1)	2		2	1(1)	27(4)
합 계	14(5)	15(8)	8(7)	39(6)	5(1)	1	3	1(1)	87(28)

118) 이기길·김선주·최미노,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한국도공공사.

119) 崔盛洛, 1995.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120) 林永珍·趙鎮先·徐賢珠, 1998. 《寶城 金坪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寶城郡.

<표 71> 이중구연호 형식별 출토유적 및 유구

형식	유적성격	유적 및 유구
I A	매장	서천 봉선리 - 6호토광묘 / 고창 만동 - 8-1호토광묘, 12,13호묘, 3호토광 함평 순촌 - 20호주구토광묘 / 고창 예지리 - 1호토광묘 / 영광 군동“라” - B1호토광묘
	생활	함평 용산리 - 3호주거지 / 함평 소명동 - 6,27호주거지
I B	매장	서천 봉선리 - 27호토광묘 / 부안 대동리 - 5호주구묘주구 / 고창 만동 - 9호묘(주구), 11,12호묘 영광 군동“라” - 10호주구토광묘, 21-1호토광묘 / 영광 하화 - A호 함평 만가촌 - 12-2호묘 / 고창 예지리 - 16호토광묘 / 함평 순촌 - 16호주구토광묘
	생활	서천 선도리 - 2호수혈 / 함평 소명동 - 2호주거지 / 해남 신금 - 55호주거지
I C	매장	나주 북암리 - 1·2호분주구 / 함평 만가촌 - 6-1호묘 나주 용호 - 9,17호분 / 영암 송산 - 옹관묘
	생활	함평 성남 - 4호구상유구 / 함평중평 - 8호주거지
II A	매장	서울 가락동 - 2호토광묘 / 천안 두정동 - 8호토광묘 공주 남산리 - 80년대조사, 5호토광묘, 22호토광묘 / 부여 소사리 - D호분 서천 봉선리 - 17호토광묘 / 서천 오석리 - 95-9호토광묘 고창 만동 - 4,8호묘, 9-5, 9-6호옹관, 12호묘, 12-1호옹관 영광 군동“라” - 1-1호옹관, 11호주구토광묘, 2호토광묘 / 영광 장월-석실분추정 나주 북암리 - 1·2호분사이7호옹관 / 함평 만가촌 - 13-6호묘, 13-8호묘 함평 순촌 - 20,29호주구토광묘 / 무안 인평 - 2호토광묘 / 영암 신산 - 옹관묘
	생활	서천 지산리 - II-11호주거지 / 고창 봉덕 - 30호주거지 / 함평 대성 - 1호주거지 함평 소명동 - 75-3호주거지 / 함평 중평 - 39호주거지 / 장흥 상방촌 - 10호주거지 해남 신금 - 1,51,57호주거지
II B	매장	고창 만동 - 9-6호옹관, 10호묘 / 영광 군동 “라” - 22-1호옹관묘
	생활	광주 일곡동 - 2호주거지 / 해남 신금 - 60호주거지
II C	매장	청원 송대리 - 40-1호토광묘
II D	매장	광주 신창동 - 2호옹관
	생활	광주 쌍촌동 - 54호주거지 / 함평 소명동 - 27호주거지
II E	생활	순천 도봉 - 56호주거지

2. 공반 유물 검토

이중구연호는 매장유적인 주구토광묘와 토광묘, 옹관묘, 석실분, 생활유적인 주거지, 가마, 조개무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매장유적에서 공반된 유물은 호형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철기로는 철부, 철검, 철착 등이 있다. 그리고 옹관묘에 사용된 옹관이 있다. 생활유적인 주거지에서는 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발형토기, 시루, 철기는 철부, 철검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런 공반 유물을 통해 이중구연호의 시기적인 단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중구연호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3~4세기는 공반 유물의 변화상이 잘 보이지 않아 시기적인 단계를 설정이 어려워 본고에서는 공반 유물을 검토하는데 그쳤다.

가. 토기류

① 호형토기

호형토기는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가장 많은 출토 비율을 보이고 있다. 원저호, 외반구연호, 항아리, 단경호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호형토기는 동체부의 형태와 구순의 형태 등을 가지고 분류되며 동체부는 편구형과 구형으로 구순은 구순을 편평하게 처리한 형태와 구순에 홈이 돌아가는 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편구형에서 구형으로 구순이 편형하게 처리한 형태에서 홈이 돌아가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중구연호와 공반된 호형토기는 편구형과 구순을 편평하게 처리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며, 구형의 형태가 일부 보인다¹²¹⁾.

② 평저호

평저호는 비교적 넓은 평저이며, 동체 상반부가 둥글거나 각진 어깨가 형성된 그릇이다. 평저호 중 구경이 동체경보다 크며 동체부 상단에서 어깨를 갖는 유견광구호는 이영철에 의해 두 형식으로 세분된 바 있다¹²²⁾. 서현주는 광구a, b 직구 a, b로 세분하고, 직구a형과 광구a, 광구b형이 나타나는 시작하는 시기를 1기, 직구b형 평저호가 함께 보이는 시기를 2기, 광구평저호가 점차 사라지고 어깨가 뚜렷한 직구b형 평저호가 보이는 시기를 3기로 구분하였다¹²³⁾. 광구 a, 광구 b형식이 많이 보이고 있으며, 직구형도 보인다. 연대는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전·중엽으로 보고 있다.

③ 장란형토기

장란형토기는 바닥이 둥근 원통형 몸체와 짧게 외반된 구연을 가지고 있는 토기이다. 발형토기와 함께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다.

장란형토기는 구연부와 동체, 저부의 형태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¹²⁴⁾. 전형민은

121) 김승옥은 호형토기는 기본적으로 편구형→구형→난형으로 변한다고 보았으며, 구연부에 돌선대와 구순부에 홈처리가 되어 있는 형식을 늦은 속성으로 보았다. 金承玉, 2000. 〈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 《湖南考古學報》 11, 湖南考古學會.

122) 이영철, 2001.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23) 서현주, 2006. 《榮山江流域 三國時代 土器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광구 - 동체최대경에 비해 동체높이가 높고 구연부가 크게 벌어진 것(a), 동체높이가 낮고 구연부의 벌어짐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b)

직구 - 직구형 또는 구연부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것(a), 구연부가 1cm 내외로 짧은 것(b)

호남지역의 장란형토기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호남지역의 서부평야지대인 영산강유역과 동진·만경강유역에서 A I →A II →C III →D III의 변화상을 보이며, 동부산간지대인 보성강유역과 탐진강유역은 B I →B II →B III·C II →C III →D III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고, 지역적으로 3~4세기대 서부평야지대는 A군이 동부산간지대에는 B군으로 대표되어진다고 보았다. 장란형토기는 경질무문외반옹의 후행기종으로 구연형태나 동체형태가 경질무문외반옹과 유사한 C I 형식이 먼저 나타나고 그 이후에 A I, B I 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5세기대에는 호남 전지역에서 C III형이 출토되며, 6세기 중반이후는 백제의 영향을 받은 D III형의 장란형토기만 출토된다고 보았다¹²⁵⁾. 대부분의 장란형토기는 구연부가 상단에서 짧게 외반된 형식으로 구경은 20cm 내외이다. 전형민의 형식분류에 따르면 A I, A II, B I 형식의 장란형토기가 출토되었고, 중랑유적에서 5세기로 편년된 26호 주거지에서 C III형식의 장란형토기가 출토되었다.

④ 심발형토기

심발형토기는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대표적인 기종이다. 주거지의 노지에서 장란형토기와 공반되어 자비용기나 솔받침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⁶⁾.

심발형토기는 대부분은 격자문을 타날하였으며, 소성도는 연질을 띠는 특징이 있다. 심발형토기는 3가지 형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I 형식은 저경에 비해 구경이 크며 최대경이 상위에 있는 것, II 형식은 구경과 저경의 비율이 거의 같으며 동최대경이 상위나 중위에 위치하는 것, III 형식은 구경이 저경과 같아지며, 구경과 기고의 비율이 같아지고 동최대경이 중위로 내려오는 것으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심발형토기는 I 형식을 띠고 있으며, II 형식은 고창 봉덕유적 19호 주거지, 함평 소명동유적 77호 주거지, III 형식은 무안 양장리유적 94-9호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⑤ 시루

시루는 저부에 뚫린 구멍과 증기를 이용하여 요리를 하는 취사도구로 발형토기

124) 이영철, 2001.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全炯玟, 2003. 《湖南地域 長卵形土器의 變遷背景》, 全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25) 全炯玟, 2003. 《湖南地域 長卵形土器의 變遷背景》, 全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26) 金建洙, 1997. 〈住居址출토 土器의 기능에 관한 試論-湖南地方의 住居址를 중심으로-〉 《湖南考古學報》 5, 湖南考古學會.

와 장란형토기와 같이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시루의 형식분류는 기형, 저부형태, 투공형태, 파수형태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구멍의 크기와 숫자가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보고 구멍의 크기가 커지면서 숫자가 적어지는 형식이 늦은 요소로 보고 있다¹²⁷⁾. 시루는 심발형의 토기에 1cm내외의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과 2cm이상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출토되었고, 우각형 또는 절두형의 손잡이 붙어 있다. 이근옥의 분류에서 I·II단계, 오후배의 분류에서는 2단계(발전기)에 속한다.

⑥ 양이부호

양이부호는 원저나 평저를 띠는 소형 호의 동체부 상단에 대칭으로 투가 부착된 토기를 칭한다¹²⁸⁾. 김종만은 낙랑문화의 전개와 함께 전개된 마한의 양식 기종으로 파악하고, 구연부와 저부의 형태, 양이의 부착 위치 및 소성도 등과 같은 속성들을 토대로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평저에서 원저로 변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영철은 토기의 구연부와 저부의 형태, 전체높이와 구연부의 비율차이에 의해 세가지로 형식으로 구분하였다¹²⁹⁾. 서천 봉서리유적, 영광 양덕리 장혈유적, 함평 소명동유적, 함평 중량유적에서 양이부호가 출토되었다. 이영철의 분류에 따르면 서천 봉서리유적은 III형식, 영광 양덕리 장혈유적은 I형식, 함평 소명동유적, 함평 중량유적은 II형식에 속한다.

127) 이근옥은 시루를 I·II식으로 구분하였는데, I식은 도룡유적을 근거로 대략 3세기 중엽경, II식은 낙수리와 한실유적을 근거로 3세기말에서 4세기대로 보았다. I식은 저부에 1cm 내외의 구멍들이 30개 정도 뚫려 있는 것이고, II식은 저부에 뚫은 구멍의 크기가 1.5cm 이상이고 그 숫자가 10개 내외인 것이다. 이근옥, 1993. <보성강유역 집자리유적의 성격과 변천> 《한국상고사학보》14집, 한국상고사학회.

오후배는 한반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시루를 4단계로 분류하였다. 호남지역을 살펴보면 1단계(출현기)는 삼각형점토대구연, 저부에서 동체하단까지 촘촘히 천공된 중선의원공과 미세공, 기형은 심발형과 동이형 나타난다.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한다. 2단계(발전기)는 심발형에 미세공, 소원공이 천공된 형태이다. 철기시대에 해당한다. 3단계(완성기)는 전단계의 특징이 지속되어 나타나며, 반(타)원혼공, 우각형파수가 부착된다. 4단계(보편기)는 대상파수부착, 동이형, 심발형, 대원공과 반(차)원혼공, 도질에서 옹기시루로 변화하면 통일신라~조선시대에 해당한다. 吳厚培, 2002. 《우리나라 시루의 考古學的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128) 金鍾萬, 1999. <馬韓圈域出土 兩耳附壺 小考> 《考古學誌》第10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29) 이영철, 2001.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I형식 : 구연부 끝이 내경, 저부 평저, 구경이 기고보다 큼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초).

II형식 : 구연부 끝이 내경, 저부는 평저, 구경이 기고보다 작음 (4세기 전반에서 4세기 후반).

III형식 : 구연부 끝이 직립, 저부는 원저 또는 말각평저, 구경이 기고보다 작으며, 외면에 타날문양을 남기기도 함 (5세기 전반에서 5세기 후반)

⑦ 조형토기

조형토기는 동물을 모티브로 한 토기이다.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찾아지고 있으며, 이증구연호와 공반하여 생활유적인 서천 지산리유적, 전주 송천동유적, 매장유적인 영암 금계리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조형토기는 단순히 형태를 본떠 만든 조형품일 수 있으나 영혼불멸사상에 의한 피장자의 승천과 관련하여 장례 후에 동시에 안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제사장이나 수장급의 중요 인물이 소지하여 제사를 집행할 때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¹³⁰⁾.

이외에도 옹형토기, 주구토기, 파수부토기, 뚜껑 등이 출토되고 있다.

나. 철기류

철기류는 크게 농공구류(철부, 철검, 철도자 등)와 무기류(철모, 철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철기류는 매장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생활유적인 주거지에서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창 만동유적에서 다양한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① 철부

철부는 크게 단조철부와 주조철부로 구분된다. 호남지역에서는 철판을 구부려 두드린 단조철부가 주류를 이뤄 출토되고 있다. 주조철부는 영남지역의 경우 기원전 1세기~기원후 2세기를 기준으로 보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¹³¹⁾ 영산강을 중심으로 서남부지역은 대부분 5세기 이후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¹³²⁾.

철부는 크기, 평면형태, 공부의 형태, 공부 단접면의 형태 등의 세부속성에 따라 분류된다. 김상민은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서남부지역 철부를 형식분류 하였는데, IA형→IB형→IC형·ID형→II형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¹³³⁾.

출토된 대부분의 철부는 타원형의 공부형태를 가지로 있으며, 장방형의 평면형태

130) 이상균, 2001. <한반도 선사인의 죽음관> 《선사와 고대》 16.

131) 金渡憲, 2002. 《古代的 鐵製農具에 대한 研究-金海·釜山地域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文學碩士學位論文.

132) 金想民, 2006. <西南部地域 鐵斧의 型式과 變遷-原三國~三國時代 資料를 中心으로->《研究論文集》第6號, 湖南文化財研究院.

133) 金想民, 2006. <西南部地域 鐵斧의 型式과 變遷-原三國~三國時代 資料를 中心으로->《研究論文集》第6號, 湖南文化財研究院.

를 보이고 있다. 고창 만동유적 11호 주구토광묘에서는 어깨가 발달한 유견철부와 함께 철부, 주조철부가 함께 출토되었고, 해남 신금유적 55호 주거지에서는 선형철부가 출토되었다. 김상민의 분류에 의하면 고창 만동 11호 주구토광묘의 유견철부는 I Aa형식이며, 함평 월야 순촌유적,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에서 보인다. 해남 신금 55호 주거지의 선형철부는 I Bb형에 해당하고 나주 용호고분군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김상민의 분류안의 따르면 2단계 3세기전반에서 4세기대에 속한다.

② 철검

철검은 농작물 또는 풀 나무를 베는데 사용하거나 나무의 껍질을 제거하거나 목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농구와 목공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철검이 출토된 유적은 고창 봉덕유적, 고창 만동유적, 영광 군동“라”유적, 영광 하화고분, 함평 소명동유적, 함평 성남유적, 무안 인평고분군, 장흥 상방촌A유적 등이다. 자루꽃이 부분은 밖으로 올려서 만든 ㄴ자형이다.

이외에도 무기류인 철모, 철촉이 매장유적인 중서부지역의 청원 송대리유적, 청주 송절동유적, 서해안지역의 고창 만동유적, 생활유적인 함평 중량유적에서 출토되었고 철도자, 철정 등이 출토되었다.

장신구로 옥류가 출토되었다. 옥은 철기시대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천하석제는 사라지고 수정제, 유리제의 곡옥, 관옥, 소옥 등이 출토되고 있다.

제3절 이중구연호의 편년

1. 편년

각 형식의 시기설정을 위한 방법으로는 공반유물의 편년을 이용하는 것과 유구의 선후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공반유물의 편년을 이용하는 것은 공반유물의 명확한 편년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중구연호는 3~4세기에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고, 4세기 중반이후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 공반유물의 변화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유구의 선후관계 및 유적의 편년을 토대로 각 형식의 시기차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중구연호는 IA형식 함평 순촌유적, 영광 군동“라”유적, 고창 만동유적 등의 이른 주구토광묘에서 출토되고 있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기형이 변화하면서 IB형식이 나타났다. 이른 시기로 편년된 함평 순촌 20호 주구토광묘에서 IA형식과 II A 형식이 함께 출토되어 II A형식도 같은 시기에 나타난 것이라 생각되나 그 출토 수가 많지 않고 3세기 중반이후에 출토 빈도가 높아진다. 그 출현시기는 3세기 전반으로 생각된다.

IA, IB형식은 주로 매장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시기적인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매장유적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는 대부분은 돌기가 있고, 용량은 비교적 큰 편이다.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는 돌기가 없으며, 용량은 작은 편이다. 그리고 고창 예지리 16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그릇(평행문+ 횡침선)을 제외한 다른 그릇에서는 문양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IB형식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에 말각평저 바닥이 보인다. 이 형식은 4세기 전·중반까지 사용되고 있다.

IC형식은 3세기 중반에 나타나 4세기 중반이후까지 사용되고 있다. 매장유적에서 대부분 출토되고 있으며, 생활유적인 함평 성남유적과, 함평 중량유적에서 보인다. 돌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용량은 대부분은 큰 편이다. 대부분 문양은 없으나, 함평 성남유적 출토품은 동체 하부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II A형식은 3세기 전반부터 나타나지만 3세기 중반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늦은 시기까지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서부이남지역에서 모두 보이고 있으며,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모두에서 보이고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는 돌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호남지역에서는 돌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 매장유적에는 용량이 적은 그릇이 부장되기도 하며, 생활유적은 비교적 용량이 크다. 문양은 무문, 격자문, 평행문+횡침선+격자문 등이 보인다.

ⅡB형식은 3세기 중반 나타나 늦은 시기까지 나타난다. 영광 군동“라”유적에서는 이중구연호는 대용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 일곡동유적과 해남 신금유적에서 보인다.

ⅡC형식은 3세기 중반에 나타나며 청원 송대리유적에서 1점만이 보인다. 용량은 크며, 격자문을 가지고 있다.

ⅡD형식은 3세기 중반에 나타나 4세기 전반까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형식은 생활유적에 주로 출토되고 있으며, 광주 신창동에서는 대용관으로 사용되었다. 이 형식은 영산강 상류지역인 광주 쌍촌동유적에서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영산강 중류지역인 함평 소명동유적에서도 보이고 있다. 용량은 크며 문양은 무문이다.

ⅡE형식은 가장 늦은 시기의 형식으로 4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고 있으며, 순천 대곡리 도롱유적과 무안 양장리 유적에서 보인다.

그리고 대용용관에 뚜껑받이 형식이 채용되어 3세기 중반 이후부터 4세기 전반까지 나타나고 있다. 함평 월야 순촌유적, 해남 원진리 농암 용관묘와 영광지역에서 지표 수습되고 있다.

구연부의 변화모습은 a형은 전기중, 전시기에 보이고 있다. 또한 a형이 먼저 나타나며 b형과 c형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없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이중구연호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I A→I B·ⅡA→I C·ⅡB·ⅡD·ⅡC→ⅡE 형식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생각된다.

이중구연호의 형식들간의 변화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2> 이중구연호 편년안

	200년	300년	400년	500년
I A	—————	
I B	—————	
I C		—————
II A	—————	—————
II B		—————
II C		—————
II D		—————
II E			—————

2. 절대연대 검토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유적들 중 생활유적인 주거지와 가마, 도랑에서 절대연대값(방사성탄소연대, 열발광연대, 고고지자기)을 얻었다. 그리고 이중구연호가 출토된 유구의 C14연대값을 <Oxcal v3.10, Calib v5.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눈금맞춤을 시도하였다¹³⁴⁾.

생활유적에서 얻어진 C14값 29개를 가지고 눈금맞춤을 한 결과 Oxcal은 0~535, Calib는 18~571년의 중심값을 가지고 있다. Oxcal과 Calib값은 0~100년 3개, 101~200년 4개, 201~300년 7개, 301~400년 8개, 401~500년 5개, 501~600년 2개가 있다.

그리고 TL(열발광연대)값은 함평 중량유적, 고고지자기 측정 연대값은 광주 세동유적, 함평 중량유적, 장흥 상방촌A유적, 해남 신금유적에서 값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 연대는 유적의 유구, 유물 검토로 한 상대연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사성탄소연대의 눈금맞춤 결과가 201~400년에 15개로 집중되어 있어 이중구연호가 3~4세기에 중심으로 출토된다는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방사성탄소

134) Oxcal v3.10과 Calib v5.01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해 보았을 때 제시하는 보정연대값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대가 1~6세기를 보여주고 있으나, 가장 이른 시기인 1세기는 상대연대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이중구연호의 초출연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늦은 시기인 6세기는 이중구연호의 하한 연대와 일치되고 있다.

아래에 절대연대값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 73> 방사성탄소연대값(C14)¹³⁵⁾

번호	유적	유구	절대연대 (BP)	연대순금맞춤			분석기관
				Oxcal보정	Calib보정	중심값	
1	서천 지산리유적	II-11호주거지	1820±60	AD60-350	AD66-348	205 / 207	Geochron Laboratories
2	전주 송천동유적	13호주거지	1850±50	AD50-260	AD123-231	155 / 177	서울대학교 AMS연구소
3	영광 마전유적	5호주거지	1695±85	AD130-540	AD235-433	335 / 334	미국 크루거 엔터프라이즈 지질연구소
4	영광 군동“가”유적	1호가마	1980±70	BC180-AD180	BC53-AD88	0 / 18	미국 크루거 엔터프라이즈 지질연구소
5		2호가마	1780±60	AD120-400	AD122-397	260 / 260	
6	광주 세동유적	5호주거지	1830±40	AD70-260	AD79-257	165 / 168	서울대학교 AMS연구소
7			1800±60	AD80-390	AD81-358	235 / 219.5	
8			1740±40	AD210-410	AD212-409	310 / 310.5	
9	함평 소명동유적	27호주거지	1630±50	AD320-550	AD323-548	435 / 436	국립문화재 연구소
10	함평 중량유적	26호주거지	1760±60	AD120-410	AD214-358	265 / 286	서울대학교 AMS연구소
11		28호주거지	1680±60	AD230-540	AD237-534	385 / 386	
12			1950±50	BC60-AD180	BC53-AD174	60 / 61	국립문화재 연구소
13		94호주거지	1500±60	AD430-650	AD431-647	540 / 539	서울대학교 AMS연구소
14			1610±40	AD340-550	AD379-547	445 / 463	
15			107호주거지	1750±40	AD130-400	AD237-342	
16	108호주거지	1710±40	AD240-420	AD242-414	330 / 328		
17	영암 선황리유적	4호구상유구	1760±40	AD130-390	AD230-340	260 / 285	
18			1630±40	AD330-540	AD335-540	435 / 438	
19			1940±40	BC50-AD140	BC44-AD135	45 / 46	

135) 보정연대값은 90%이상을 값을 사용하였다.

번호	유적	유구	절대연대 (BP)	연대순금맞춤			분석기관
				Oxcal보정	Calib보정	중심값	
20	장흥 상방촌A유적	1호주거지	1770±70	AD80-420	AD117-413	250 / 265	서울대학교 AMS연구실
21			1670±60	AD240-540	AD244-535	390 / 390	
22		10호주거지	1510±40	AD430-640	AD533-609	535 / 571	
23			1690±40	AD240-430	AD249-426	335 / 338	
24		11호주거지	1680±40	AD240-440	AD333-415	340 / 374	
25			1620±50	AD320-560	AD329-557	440 / 443	
26	해남 신금유적	51호주거지	1850±60	AD20-340	AD47-263	180 / 155	
27		57호주거지	1830±60	AD50-350	AD122-250	200 / 186	
28		60호주거지	1640±40	AD330-540	AD330-537	435 / 434	
29		63호주거지	1670±60	AD240-540	AD244-535	390 / 390	

<표 74> 열발광연대값(TL)

번호	유적	유구	절대연대(BP)	연대순금맞춤결과	분석기관
1	함평 증량유적	28호 주거지	1700±120	AD 300	국립문화재연구소

<표 75> 고지자기값

번호	유적	유구	연대
1	광주 세동유적	5호 주거지	+80 AD 1240 또는 AD 250±110 -50
2		7호 주거지	AD 95±15 또는 AD 1850±50 또는 AD 450±20
3	함평 증량유적	94호 주거지	AD 1075-75, AD 85-20, AD 480±40
4	장흥 상방촌A유적	1호 주거지	+50 AD 1050 또는 AD 75±20 또는 AD 485±30 -60
5		11호 주거지	-60 AD 1840 ±60 또는 AD 90±20 또는 AD 445±25 +50
6		55호 주거지	AD 105±30 또는 AD 1120±70 또는 430±40
7	해남 신금유적	60호 주거지	AD 1825±30 또는 AD 90±10 또는 AD 440±15
8		63호 주거지	AD 390±25 또는 AD 1350±25 또는 AD 125±20
9		67호 주거지	AD 410±10 또는 AD 1370±10 또는 AD 110±10

제4장 이중구연호의 변천과 지역별 특성

이중구연호는 3~6세기까지 그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집중 출토되는 시기는 3~4세기이다. 3장에서의 형식분류를 토대로 이중구연호의 시기별 변화상과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시기별 변화

앞 장에서 이중구연호를 8개의 형식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이중구연호의 편년을 세웠다. 이를 통해 이중구연호의 시기별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중구연호는 3세기에서 6세기까지 출토되고 있으나, 3세기 전반에서 4세기 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중구연호의 출현시기는 3세기 전반으로 IA형식이 제일 먼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IB, IIA형식도 같이 보이고, IA형식이 가장 많이 보인다. 호남지역의 영산강 중·하류지역과 서해안지역의 매장유구인 주구토광묘에 주로 출토되고 있지만 생활유적인 주거지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3세기 중반 이후 이중구연호의 출토빈도수가 높아지고 IA, IB, IC, IIA, IIB, IIC, IID형식의 다양한 형식의 이중구연호가 보인다. IIA형식은 3세기 전반에 출토되나 그 출토 수가 많지 않고 3세기 중반 이후에 출토 빈도가 높아진다. 이 시기의 이중구연호는 호남지역 이외의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호남지역에서는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에서는 주로 토광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이중구연호의 다양한 형식은 지역성을 보여주고 있다.

4세기 중반 이후 이중구연호는 소멸되는 시기로 출토빈도수가 매우 적어지는 시기이다. 3세기 중반 이후 이중구연호의 다양한 형식이 보이지 않고 IIA, IIE형식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늦은 시기까지 보이는 형식은 IIA형식이다. 주로 생활유적인 주거지에서 확인되며, 호남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제2절 지역별 특성

이중구연호는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출토되고 있고 호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서부지역, 서해안지역, 영산강 중·하류지역, 영산강 상류지역, 해남지역, 보성강지역, 탐진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각 지역별 출토 이중구연호를 형식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6> 이중구연호의 형식별 지역 분포

지역 형식	중서부지역	서해안	영산강중하류	영산강상류	해남	보성강	탐진강	합계
IA	1	8	5					14
IB	2	9	4		1			16
IIA	9	13	11		5		1	39
IC			8					8
IIB		3		1	1			5
IID			1	2				3
IIC	1							1
IIIE						1		1
합계	13	33	29	3	7	1	1	87

표에서 보듯이 중서부지역은 IA, IB, IIA, IIC형식이 출토되었다. 3세기 중반 이후에 출토되며 IIA형식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IIC형식이 청원 송대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서해안지역은 IA, IB, IIA, IIB형식이 출토되었다. IA, IB, IIA형식은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나타나고 있으며 그 후 IIB형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중·하류지역은 IA, IB, IC, IIA, IID형식이 출토되었다. 이른 시기의 주구토광묘인 함평 월야 순촌 20호 주구토광묘에서 IA, IIA형식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IB형식은 3세기 전반에서 3세기 후반 4세기 전반까지 보이며, 영산강 상류지역에 보이지 않던 IC형식 3세기 중반부터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영산강

상류지역의 특징적인 IID형식이 함평 소명동유적에 3세기 후반에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안 양장리 유적 94-9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고리가 달리 이중구연호는 다른 이중구연호보다 늦은 4세기 중반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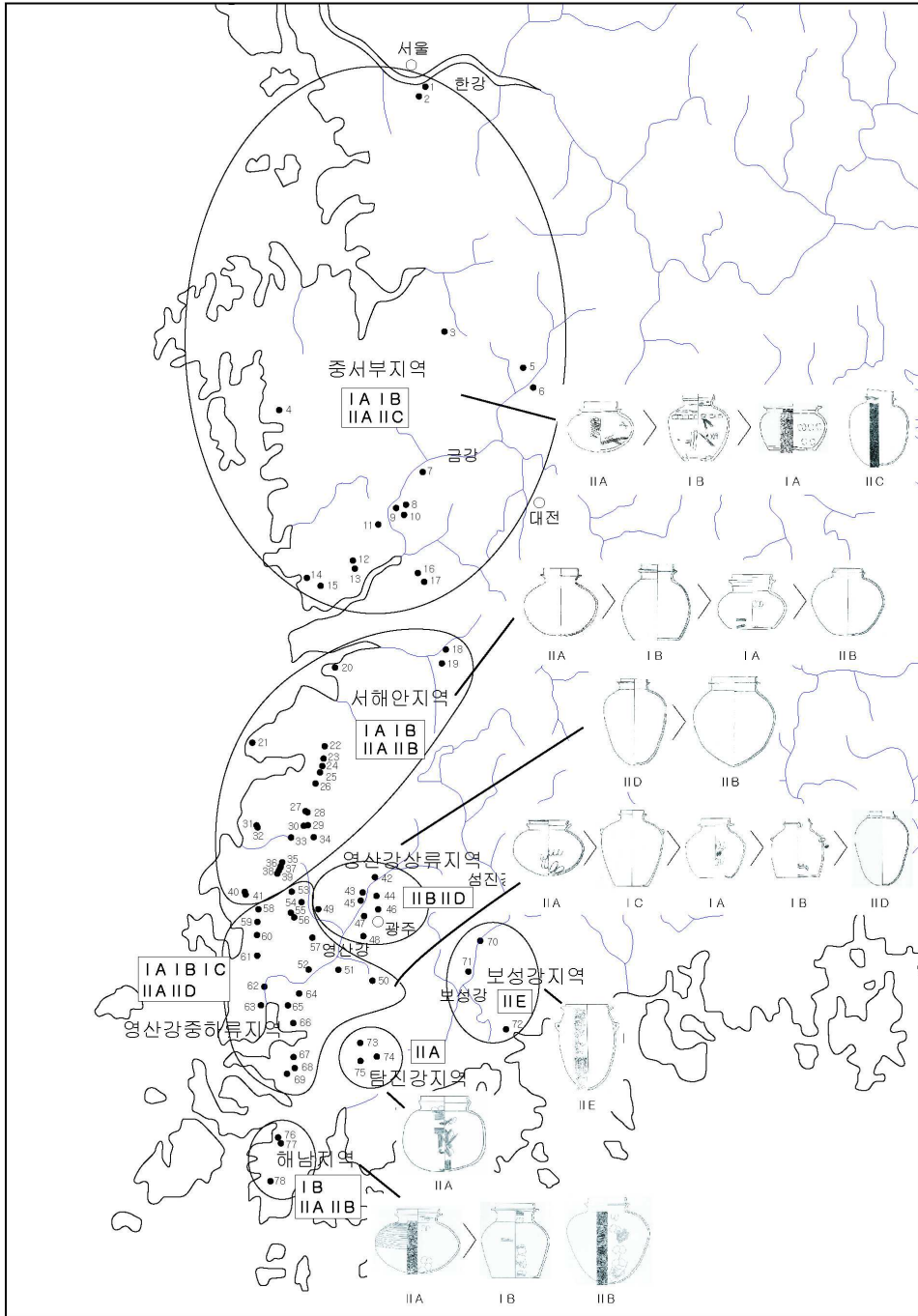
영산강 상류지역은 IB, IID형식이 출토되었다. IB, IID형식은 거의 시간차를 두지 않고 3세기 중반에 나타나고 있다. IID형식은 영산강상류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지역적인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형식으로 생각된다.

해남지역은 해남 신금유적에서 IB, IIA, IIB형식이 출토되었다. IIA형식이 3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3세기 후반까지 모습이 보인다. 3세기 후반에 IB, IIB형식이 추가되어 나타났다.

보성강지역은 IIE형식이 순천 대곡리 도롱에서 출토되었다. 4세기 중반으로 생각되며, 승석문+격자문의 문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순천 요곡리 2호 토광묘에서 원저로 생각되고 구연부의 모습은 a형, 평행문+횡침선+격자문의 문양을 가지고 있는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탐진강지역은 장흥 지천리유적과 장흥 상방촌A유적, 장흥 신평유적이 있다. 장흥 상방촌A유적에서 IIA형식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다. 3세기 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이중구연호는 서해안 지역과 영산강 중하류지역에서 이른 시기에 IA, IB, IIA형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IIA형식은 중서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고, IIB형식은 서해안 지역과 영산강 상류지역에서 보이고 있으며 IID형식은 영산강 상류지역의 주거지에서 집중 출토되고 있으며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는 대용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영산강 중류지역의 함평 소명동유적에서 1점이 보인다. IC형식은 영산강 중하류지역에서 3세기 중반에 나타난다. IIE형식 4세기 중반이후에 보이며 순천 대곡리 도롱유적과 무안 양장리 유적에서 보인다.



<그림 14> 이중구연호 형식별 지역분포도

제3절 이중구연호의 성격

이중구연호는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중구연호는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출토되고 특히 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며, 3~6세기대의 매장유구인 토광묘, 옹관묘 등에서 생활유구인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고, 그 중에서는 3~4세기의 유구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이중구연호가 가장 많이 출토되는 유구는 토광묘이다. 토광묘에서는 IA, IB, IC, IIA, IIB, IIC형식 등 다양한 형식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서부지역에서는 IIA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호남지역에서만 다양한 형식들이 보인다. 토광묘의 형식에서도 중서부지역에서는 토광묘에서 출토되고 있지만 호남지역은 주구토광묘와 토광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유물로는 호형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구호, 양이부호 등의 토기와 철부, 철검, 환두도, 철모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옹관묘에서 이중구연호는 토광묘보다 형식이 다양하지 않다. 이른 형식인 IA형식은 보이지 않고 IB, IC, IIA, IIB, IID형식이 보인다. 이중구연호는 옹관묘의 부장품이나 대옹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옹관은 고식옹관 또는 일상용기를 이용하여 옹관으로 사용하였다. 유물로는 호형토기, 철부, 철도 등이 출토되었다.

생활유적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는 IA, IB, IC, IIA, IIB, IID, IIE형식이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IIA형식이 가장 많이 보인다. 대부분 호남지역의 주거지에서 보인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주로 방형계를 이루고 있으며, 4주공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가 많다. 유물로는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중구연호는 매장유적에서 부장품이나 대옹관으로 사용되고, 주구토광묘나 토광묘에서는 1~2점, 옹관묘에서는 1점이 부장되고 있다. 생활유적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는 벽면이나 노지 부근에서 출토되고 있으나 노지와 관련된다고는 보기가 힘들다.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는 1~2점이 출토되지만 광주 쌍촌동 11호 주거지와 15호 주거지, 고창 봉덕 30호 주거지에서는 4점이 출토되었다. 광주 쌍촌동유적의 경우 이중구연호가 여러 개체가 출토된 유구에서는 대옹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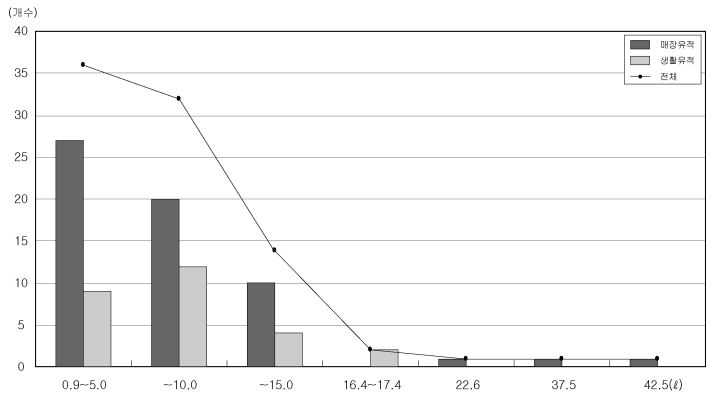
적고 대응이 여러 개체 보이는 주거지들에서는 이중구연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사실은 대응과 같은 저장의 역할을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¹³⁶⁾. 그리고 함평 무송유적에서는 이중구연호의 내부에서 탄화미가 출토되었다.

뚜껑은 그릇의 아가리를 덮는 것으로 어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곁에 씌우는 것이다. 이중구연호 또한 그릇 내부의 곡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뚜껑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구연호의 형식을 알 수 있는 87점을 호용류의 용량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¹³⁷⁾을 이용하여 용량을 계산해 보았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0.9ℓ~42.5ℓ의 용량이 나왔다. 매장유적에서 용량이 0.9

ℓ~13ℓ는 부장유물로 사용되었고, 용량이 큰 22.6ℓ, 42.5ℓ는 옹관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용량이 37.5ℓ로 나온 청원 송대리유적 40-1호 토광묘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는 부장유물로 사용되었다. 생활유적에서는 용량이 1.3ℓ~17.4ℓ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림 15> 이중구연호의 용량 분포도

이중구연호는 대부분 10ℓ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며, 용량이 비교적 큰 이중구연호는 II B, II C, II D형식에서 나오고 있다.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는 용량의 차이가 보이지 않아 매장과 생활을 위해 토기를 따로 생산한 것은 아닌 것 같으나, 20ℓ이상은 모두 매장유구에서 출토되고 있어 매장유구를 위해 생산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유적에서 용량이 큰 형식은 II D형식으로 영산강 상류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매장유적에 용량이 큰 형식은 대응관으로 사용되고 있으

136) 林永珍·徐賢珠, 1999. 《光州 雙村洞 住居址》, 全南大學校博物館·光州廣域市都市公社.

137) 용량의 계산은 고려대학교 최종택교수의 호용류의 용량을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목지름, 최대경, 저경, 높이, 목높이, 최대경높이 등의 항목의 수치를 입력하여 용량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청원 송대리유적 40-1호 토광묘와 같이 부장유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표 77> 이중구연호 용량 분포

	I A		I B		I C		II A		II B		II C	II D		II E	합계
	매장	생활	매장	생활	매장	생활	매장	생활	매장	생활	매장	매장	생활	생활	
0.9~5.0	3	3	4	2	2		17	4	1						36
5.1~10.0	3	1	5	1	3		8	8	1				1	1	32
10.1~15.0	4		4		1	2	1	1		1					14
16.4~17.4										1			1		2
22.6												1			1
37.5											1				1
42.5									1						1
합계	10	4	13	3	6	2	26	13	3	2	1	1	2	1	87

이와 같이 이중구연호는 3~4세기의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의 토광묘와 호남지역의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고 있으며, 밀집 분포하는 지역은 호남지역이다. 그리고 호남지역은 이중구연호의 이른 형식인 I A형식이 호남지역의 영산강 중·하류지역과 서해안지역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이 호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중구연호는 호남지역이 초출지역이고 가장 성행하였던 지역이다.

그리고 이중구연호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3~4세기의 호남지역은 주구토광묘에서 옹관고분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지역의 1~3세기 대표적인 무덤인 주구토광묘이며, 3세기 후반 대형 옹관이 만들어지고 뒤이어 이것이 주묘제로 채택되면서 옹관고분으로 발전해 갔으며, 일부 토광묘만으로 이루어진 고분도 있었으나 토광과 옹관이 같은 봉분에 매장한 고분이 주로 만들어지다가 옹관만을 매장한 고총고분으로 발전하였다¹³⁸⁾. 이중구연호는 고총고분이 발생하기 전까지 나타난 것으로 당시 이 지역은 백제가 아닌 마한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138) 최성락, 2002.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영산강유역> 《韓國上古史學報》第37號, 韓國上古史學會.

제5장 맺음말

이중구연호는 외반하는 구연위에 다시 구연을 올려놓거나 구연에 돌대를 돌려 만든 것으로 백제토기로 파악되었으나 한강유역에서부터 영산강유역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백제의 중심지인 서울지역보다 이남지역에서 성행하고 있어 마한과 관련된 토기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출토 유적이 많이 조사되고 있으며 중서부이남지역에 많은 수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의 영산강유역과 서해안지역의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적은 양의 이중구연호가 일본 구주지방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중구연호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물의 공반 유물 또는 유구를 편년하면서 언급되었고, 지역에 따라 간단하게 검토되었다. 아직까지 이중구연호에 대한 용어도 확립되어 있지 않고, 출현시기조차 학자마다 조금씩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형식분류 또한 간단히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중구연호의 바닥과 세장도에 따른 동체형태에 따라 크게 8개의 형식으로 분류하고 각 형식의 시기별·지역별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아 이중구연호는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별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구연의 모습은 a, b, c형식으로 구분하였는데, a형식은 전기중, 전시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c형식은 대형옹관이나 큰 그릇에 많이 보이고 있다. 구연은 a형이 먼저 나타나고 b, c형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닥은 평저와 원저가 동시에 출현하지만 이른 시기에는 평저가 주로 사용되었다. 동체는 A→B→C→D→E군으로 변화하고 돌기는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화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중구연호는 IA→IB·IIA→IC·IIB·IID·IIC→IIE 형식으로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3세기 전반에 호남지역의 영산강 중·하류지역과 서해안지역의 주구토광묘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IA, IB, IIA형식이 보인다. 3세기 중반 이후 중서부이남 전지역에 이중구연호가 출토되고 IA, IB, IC, IIA, IIB, IIC, IID형식 등 다양한 형식의 그릇이 출토되고 있으며, 4세기 중반 이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지만 IIA, IIE형식이 보이고 IIA형식은 6세기까지 그 모습을 호남지역의 주거지에서

찾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서해안 지역과 영산강 중·하류지역에서 이른 시기의 주구토광묘에서 IA, IB, IIA형식의 이중구연호가 출현하기 시작하고, 3세기 중반이후 지역적 색채를 보여주는 IIA, IIB, IID, IC형식이 보인다. IIA형식은 중서부지역, IIB형식은 서해안 지역에서 보이고 있으며, 영산강 상류지역의 주거지에서 IID형식이, 영산강 중·하류지역에서는 IC형식이 보인다.

또한 이중구연호는 토광묘에서 IA, IB, IC, IIA, IIB, IIC형식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되고 있으며, 중서부지역에서는 IIA형식이 주를 이루고 호남지역에서는 다양한 형식들이 보인다. 출토 유물로는 호형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구호, 양이부호 등의 토기와 철부, 철검, 환두도, 철모 등의 철기가 출토되었다.

옹관묘에서 이중구연호는 토광묘보다 형식이 다양하지 않으며, IB, IC, IIA, IIB, IID형식이 보인다. 이중구연호는 옹관묘의 부장품이나 대용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호남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옹관은 고식옹관 또는 일상용기를 이용하여 옹관으로 사용하였다. 유물로는 호형토기, 철부, 철도 등이 출토되었다.

생활유적인 주거지에서 이중구연호는 IA, IB, IC, IIA, IIB, IID, IIE형식이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IIA형식이 가장 많이 보인다. 대부분 호남지역의 주거지에서 보인다. 유물로는 호형토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시루 등이 출토되었다.

이중구연호는 기능적으로 매장유적의 부장품이나 대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생활유적에서는 저장용기로 사용되고 있다. 매장유적과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는 용량의 차이가 보이지 않아 매장과 생활을 위해 토기를 따로 생산한 것은 아닌 것 같으나, 20ℓ이상은 모두 매장유구에서 출토되고 있어 매장유구를 위해 생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이중구연호는 3~4세기의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의 토광묘와 호남지역의 주거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호남지역은 이중구연호의 최대 분포지역이며 이른 형식인 IA형식이 호남지역의 영산강 중·하류지역과 서해안지역에 밀집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식이 호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중구연호는 호남지역이 초출지역으로 생각되며 가장 성행하였던 지역이다.

그리고 이중구연호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3~4세기의 호남지역은 주구토광묘에

서 옹관고분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중구연호는 고총고분이 발생하기 전까지 나타난 것으로 당시 이 지역은 백제가 아닌 마한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중구연호의 변천과정을 저부와 동체 세장도를 중심으로 형식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이중구연호는 중서부지역과 호남지역의 3~4세기의 토광묘와 주구토광묘, 주거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형식과 지역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중구연호는 호남지역에서 초출하여 중서부지역과 일본 구주지방까지 전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고는 일본 구주지방에서 출토된 이중구연호를 분석하지 못하였고, 3~4세기에 관련된 문헌을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이중구연호의 전파 및 교류에 대한 언급을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보고서

- 國立全州博物館, 1994.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 金建洙·韓修英, 2002. 《高敞 校雲里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韓國道路工事.
- 金建洙·李暎澈·陳萬江·李恩政, 2003. 《羅州 龍虎古墳群》, 湖南文化財研究院.
- 김건수·노미선·양해웅, 2003. 《高敞 鳳德遺蹟Ⅱ》, 湖南文化財研究院·全羅北道.
- 金建洙·金奎正·李恩政·金永熙, 2003. 〈합평 대성유적〉《咸平 倉西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익산지방국토관리청.
- 金建洙·李永德, 2004. 《高敞 萬洞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全羅北道.
- 김승욱·유향미·안효성, 2003. 〈扶安 大東里遺蹟〉《扶安 大東里·下立石里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 김승욱·이희정·이민석·김은정, 2003. 〈扶安 壯東里遺蹟〉《扶安 壯東里 富谷里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 김승욱·유향미·김은정, 2003. 〈扶安 新里Ⅲ遺蹟〉《扶安 新里遺蹟》, 全北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 김승욱·김은정, 2004. 《全州 松川洞遺蹟 -B지구-》, 全北大學校博物館·全州市.
- 金鍾萬·申英浩·安敏子, 2001. 《公州 南山里 墳墓群》, 국립공주박물관·금오건설.
- 金鍾萬·金賢晶·朴敬道, 2003. 《舒川 船島里遺蹟》, 國立夫餘博物館.
- 權五榮·韓志仙, 2005. 『風納土城Ⅵ』, 국립문화재연구소·한신대학교박물관.
- 목포대학교박물관·전남대학교박물관·조선대학교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한국도로공사, 1999. 《서해안고속도로(무안-영광간)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집.
- 목포대학교박물관·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탐진다목적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집.
- 서성훈·성낙준, 1986. 〈영산강유역의 용관묘조사 자료〉《영암 내동리 초분골고분》191-281, 국립광주박물관·전라남도·영암군.
- 宋義政·崔相宗·尹孝男, 2004. 《光州 新昌洞 墳墓 遺蹟》, 國立光州博物館.
- 申相孝·崔相宗·尹孝男, 2001.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Ⅲ》, 國立光州博物館.

- 成洛俊·申相孝, 1989. 〈海南 院津里 甕棺墓〉《靈岩 臥牛里 甕棺墓》57-100, 國立光州博物館·百濟文化開發研究院.
- 李命熹·成洛俊·孫明助·申相孝·李漢周, 1989. 〈靈光地方의 古墳〉《靈岩 臥牛里 甕棺墓》101-166, 國立光州博物館·百濟文化開發研究院.
- 俞炳夏·崔興鮮, 1999. 〈金堤 深浦里一帶 文化遺蹟 收拾調查 報告〉《扶安 海岸一帶 遺蹟地表調查 報告》, 국립전주박물관.
- 이기길·김선주·최미노, 2003. 《영광 마전·군동·원당·수동유적》, 조선대학교박물관·한국도로공사.
- 李康承·朴淳發·成正鏞, 1994. 《神衿城》, 忠南大學校博物館.
- 李南奭, 1996. 『烏石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
- 李南奭·徐程錫, 2000. 『斗井洞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天安市經營開發研究所.
- 李南奭·李賢淑·尹英燮, 2005. 《舒川 芝山里遺蹟》, 公州大學校博物館·韓國道路工事.
- 이상균·박현수·윤성준·김선영, 2004. 《全州 松川洞遺蹟 -A지구-》, 全州大學校博物館·全州市.
- 李榮文·曹根佑·鄭基鎭, 1996. 《光州 日谷洞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光州市立民俗博物館·韓國土地公社.
- 李榮文·李正鎬·李暎澈, 1997. 《務安 良將里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務安郡·韓國道路公社.
- 李暎澈·金美蓮·張明燁, 2005. 《海南 新今遺蹟》, 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 李弘鍾·孫峻鎬·姜元杓, 2002. 《麻田里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韓國道路工事.
- 林永珍·趙鎭先, 1993. 〈靈光郡의 考古學遺蹟 II〉《靈光郡 文化遺蹟 學術調查》137-190, 全南大學校博物館·靈光郡.
- 林永珍·趙鎭先·徐賢珠, 1998. 《寶城 金坪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寶城郡.
- 林永珍·徐賢珠, 1999. 《光州 楓岩洞·金湖洞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 林永珍·徐賢珠, 1999. 《光州 雙村洞 住居址》, 全南大學校博物館·光州廣域市都市公社.

- 林永珍 · 趙鎮先 · 徐賢珠, 1999. 《伏岩里古墳群》, 全南大學校博物館 · 羅州市.
- 林永珍 · 趙鎮先 · 崔榮柱, 2002. 《和順 雲月里 운포 遺蹟》, 全南大學校博物館 · 和順郡.
- 林永珍 · 李昇龍 · 全炯玟, 2003. 《咸平昭明住居址》, 全南大學校博物館 · 韓國道路公社.
- 林永珍 · 趙鎮先 · 徐賢珠 · 宋恭善, 2004. 《咸平 禮德里 萬家村古墳群》, 全南大學校博物館 · 咸平郡.
- 전북대학교박물관 · 전주대학교박물관 · 원광대학교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 한국도로공사, 1999. 《서해안고속도로(군산-고창간)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집.
- 전북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2006. 《완주 상운리유적》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전주대학교박물관, 2002. 〈고창 예지리유적〉 《서해안고속도로(군산-고창)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5-155.
- 鄭基鎭 · 張齊根, 1998. 《光州 龍鳳洞遺蹟》, 光州廣域市立民俗博物館.
- 趙現鐘 · 申相孝 · 李宗哲, 2003.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V》, 國立光州博物館.
- 車勇杰 · 趙詳紀, 1995. 《清州 松節洞 古墳群 發掘調查報告書-1993年度 發掘調查-》,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忠北大學校博物館.
-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한국도로공사, 2005. 《서천 봉선리유적》.
- 崔夢龍 · 權五榮 · 金承玉, 1989. 〈大谷里 도롱 住居址〉 《住岩댐 水沒地域 文化遺蹟 發掘調查報告書(VI)》, 全南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
- 崔盛洛, 1986. 〈西湖面一帶의 地表調查 報告Ⅱ〉 《靈巖 長川里住居址》 83-98, 木浦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 · 靈巖郡.
- 崔盛洛, 1987. 《海南 郡谷里貝塚 I》, 木浦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 · 海南郡.
- 崔盛洛, 1988. 《海南 郡谷里貝塚 II》, 木浦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 · 海南郡.
- 崔盛洛, 1989. 《海南 郡谷里貝塚 III》, 木浦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 · 海南郡.
- 최성락 · 이정호 · 이영철, 1995. 《광주 오룡동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광주광역시.
- 최성락 · 이영문 · 이영철, 1997. 〈순천 요곡리유적〉 《湖南高速道路 擴張區間(古西~順天間)文化遺蹟發掘調查報告書Ⅱ》 243-361, 全南大學校博物館 · 全羅南道 · 韓國道路公社.

-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1999. 《무안 인평고분군》, 목포대학교박물관 · 철도청.
- 최성락 · 김건수, 2000. 〈함평 용산리유적〉 《영광 학정리 · 함평 용산리유적》 203-337, 목포대학교박물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최성락 · 박철원 · 최미숙, 2000. 《장흥 지천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수자원공사.
- 최성락 · 이영철 · 윤효남, 2000. 《무안 양장리유적Ⅱ》, 목포대학교박물관 · 철도청.
- 최성락 · 한옥민, 2001. 〈함평 성남유적〉 《함평 성남 · 국산유적》 23-150,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 최성락 · 박철원 · 최미숙, 2001. 《함평 월야 순촌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농업기반공사 · 함평군.
- 최성락 · 이영철 · 한옥민 · 김영희, 2001. 《영광 군동유적 -라지구주거지 · 분묘-》,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 최성락 · 고용규 · 이영철 · 최미숙 · 김미연 · 한미진, 2003. 《함평 중량유적 I -주거지-》,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 최성락 · 고용규 · 최미숙, 2004. 《영암 선황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영암군.
- 최성락 · 한옥민 · 한미진, 2004. 《영암 금계리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영암군.
- 최성락 · 정영희 · 최미숙 · 김영훈 · 이미란, 2004. 《장흥 상방촌A유적 I》,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국수자원공사.
- 崔盛洛 · 金京七 · 金珍英, 2006. 《光州 細洞遺蹟》, 全南文化財研究院 · 光州光城市建設管理本部.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韓國道路工事, 1999. 〈清原 松垆里遺蹟〉 《清原 梧倉遺蹟(I)》.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5. 《당양 태목리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湖南文化財研究院, 2005.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湖南文化財研究院 · 益山地方國土管理廳, 2006. 《羅州 防築 · 上仍遺蹟》.
- 湖南文化財研究院 · 韓國道路工事, 2006. 《高敞 芙蓉里遺蹟》.

논문

- 金建洙, 1997. 〈住居址출토 土器의 기능에 관한 試論-湖南地方의 住居址를 중심으로

- > 《湖南考古學報》5, 湖南考古學會.
- 김규정 · 진상학 · 양영주, 2005. 〈高敞 南山里遺蹟〉《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 金美蘭, 1995. 〈原三國時代의 土器 研究〉《湖南考古學報》2, 湖南考古學會.
- 金成南, 2000. 《中部地方 3~4世紀 古墳群 一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文學碩士學位論文.
- 金承玉, 2000. 〈호남지역 마한 주거지의 편년〉《湖南考古學報》11, 湖南考古學會.
- 金承玉, 2004. 〈全北地域 1~7世紀 聚落의 分布와 性格〉《韓國上古史學報》第44號, 韓國上古史學會.
- 金永熙, 2005. 〈湖南地方 周溝土壙墓의 埋葬主體部 檢討〉《研究論文集》第5號, 湖南文化財研究院.
- 金元龍, 2000. 〈深鉢形土器에 대하여〉《考古學誌》第1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金鍾萬, 1999. 〈馬韓圈域出土 兩耳附壺 小考〉《考古學誌》第10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朴淳發, 1989. 〈漢江流域 原三國時代의 土器의 樣相과 變遷〉《韓國考古學報》23, 韓國考古學會.
- 박순발, 2001. 〈帶頸壺一考〉《湖南考古學報》13, 湖南考古學會.
- 박순발, 2001. 〈深鉢形土器考〉《湖西考古學》第4·5合輯, 湖西考古學會.
- 박순발, 2004. 〈백제토기 형성기에 보이는 날강토기의 조형-심발형토기 및 장란형토기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百濟研究》第40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박순발, 2005. 〈土器相으로 본 湖南地域 原三國時代 編年〉《호남고고학보》21, 호남고고학회.
- 朴仲煥, 1999. 〈鳥足文土器考〉《考古學誌》第10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徐賢珠, 1996. 〈南海岸地域 原三國時代 貝塚의 時期區分과 起源問題〉《湖南考古學報》4, 湖南考古學會.
- 서현주, 2001. 〈二重口緣土器 小考〉《百濟研究》第33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서현주, 2004. 〈4~6世紀 百濟地域과 日本列島의 關係〉《湖西考古學》第11輯, 湖西考古學會.
- 서현주, 2006. 《榮山江流域 三國時代 土器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文學博士學位論文.

- 成洛俊, 1988. 〈榮山江流域 甕棺古墳 出土土器에 대한 一考察〉《全南文化財》創刊號, 全羅南道.
- 成正鏞, 1998. 〈錦江流域 4~5世紀 墳墓 및 土器의 樣相과 變遷〉《百濟研究》第28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성정용, 1998. 〈3~5世紀 錦江流域 馬韓·百濟 墓制의 樣相〉《3~5세기 금강유역의 고고학》제2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 申鍾煥, 1997. 〈忠南地方 三韓 · 三國土器의 變遷〉《考古學誌》第8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安承周 · 朴秉國, 1971. 〈百濟 古墳文化의 研究〉《百濟文化》5, 公州師範大學附設百濟文化研究所.
- 安承周, 1980. 〈公州 南山里 地域의 古代文化〉《百濟文化》13, 公州師範大學附設百濟文化研究所.
- 安承周, 1984. 〈百濟土器의 概觀〉《百濟土器圖錄》,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안승주, 1985. 〈土器〉《韓國史論》15, 國史編纂委員會.
- 吳厚培, 2002. 《우리나라 시루의 考古學的 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오후배, 2003. 〈시루의 形式分類와 變遷過程에 關한 試論〉《湖南考古學報》17, 湖南考古學會.
- 尹世英, 1971. 〈可樂洞 百濟古墳 第一號 · 第二號墳 發掘調查略報〉《考古學》3, 韓國考古學會.
- 이영철, 1997. 〈전남지방 주거지의 벽구시설 검토〉《박물관연보》제6호, 목포대학교 박물관.
- 이영철, 2001. 〈紀元後 3~5世紀代 湖南地方 聚落別 編年 檢討(I)〉《研究論文集》第1號, 湖南文化財研究院.
- 이영철, 2001.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이영철, 2002. 〈紀元後 3~5世紀代 湖南地方 聚落別 編年 檢討(II)〉《研究論文集》第2號, 湖南文化財研究院.
- 이영철, 2003. 〈紀元後 3~5世紀代 湖南地方 聚落別 編年 檢討(III)〉《研究論文集》第3號, 湖南文化財研究院.

- 이영철, 2003. 〈3~6世紀 榮山江 上流의 考古學的 資料 檢討〉 《목포대학교박물관20주년기념논총》, 목포대학교박물관.
- 이영철, 2005. 〈榮山江流域의 原三國時代 土器相〉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 李正鎬, 1996. 〈榮山江流域 甕棺古墳의 分類와 變遷過程〉 《韓國上古史學報》第22號, 韓國上古史學會.
- 林永珍, 1996. 〈百濟初期 漢城時代 土器研究〉 《湖南考古學報》4, 湖南考古學會.
- 임영진, 2003. 〈墳周土器를 통해 본 5~6세기 韓日關係 一面〉 《한반도 토기문화의 흐름》,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임영진, 2005. 〈고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의 특징〉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의 역사적 성격》,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호남고고학회.
- 全炯玟, 2003. 《湖南地域 長卵形土器의 變遷背景》, 全南大學校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최미숙, 2001. 〈전남지방 철기시대 주거지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4-2, 역사문화학회.
-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 《韓國考古學報》38, 韓國考古學會.
- 崔盛洛, 1995. 《韓國 原三國文化의 研究》, 學研文化社.
- 최성락, 2000. 〈호남지역의 철기시대-연구현황과 과제-〉 《湖南考古學報》11, 湖南考古學會.
- 최성락, 2002.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영산강유역〉 《韓國上古史學報》第37號, 韓國上古史學會.
- 최성락, 2003. 〈토기 연구방법론의 검토〉 《목포대학교박물관20주년기념논총》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엮음, 2003. 《전남의 고대문화》, 학연문화사.
- 한옥민, 2001. 〈전남지방 토광묘 성격에 대한 고찰〉 《湖南考古學報》13, 湖南考古學會.
- 咸舜燮, 1998. 〈錦江流域의 馬韓에서 百濟로의 轉換〉 《3~5세기 금강유역의 고고학》 제2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韓國考古學會.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百濟土器圖錄》.

<부록> 이중구연호 일람표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최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갈 소성도	구연형태
1	풍납토성	101호유구	구연		18										
2	가락동	2호분3주체	완형	19.5	11.5		16.2	22.8	9.2	13.4		원저	격자문	회청색 경질	a
3	두정동	8호토광묘	완형	24.8	14.4		20.8	30.4	12.4	14.2		원저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a
4	신금성	N-II Tr. 5	구연		15.5									회후색 연결	
5		N-II Tr. 9	구연		11.8									회후색 연결	
6		W-II Tr. 3	구연		23.8									회후색 연결	
7	송대리	40-1호토광묘	완형	58.4	19.8		48.1	44.9	32.9	21		원저	격자문	회청색 연결	c
8	송절동	93-B-4호분	구연		10.3									회청색 경질	a
9	이인면	수습	완형	25.3	8			19				원저	승석문+횡침선 +격자문	회색	
10	남산리	수습	완형	19.7	10.5		16.1	25	9	11.6	0.84	원저		회후색 경질	a
11		5호토광묘	완형	24.9	12.6		21.5	28.6	13.4	12	0.81	원저		회색 경질	a
12		20호토광묘	구연											회색 연결	
13		22호토광묘	완형	14.8	9.8		11.8	19.3	7.2	11.1		원저		암회색 경질	a
14	능산리	수습	완형	11.5	6.4						있음	굽다리	승석문+횡침선	회색	
15	소사리	D호분	완형	19.5	12		15.1	24.6	9.7	12.4	0.86	원저			a
16	초촌면	수습	완형	26.7	20.5			30.2			있음	삼족	승석문+횡침선	회후색 경질	
17	지산리	II-11호주거지	완형	26	15.8		21.5	31.4	13.7	16.6	0.96	원저	선조문+격자문	회청색 경질	a
18	봉선리	6호토광묘	구연 유실	(10.8)		11.6	9.3	16.5	6	12.4		평저		적갈색 연결	
19		17호토광묘	완형	28.1	14		23.1	36.1	14.6	16.9		원저		회백색 연결	a
20		27호토광묘	구연 유실	(23.2)		9.3	20.1	22	14.4	10.4		평저		회색 경질	
21	선도리	2호수혈	완형	28.8	12	12	24.3	25	16.3	14.2		평저	평행문+횡침선	후색	a
22	오석리	95-9호토광묘	완형	21	11.8		14.3	22	8.9	12	0.91	굽다리			a
23	연산면	수습	완형	24	9.4				23.8			원저		회후색 경질	
24	마전리	KK-019호토광	구연		12									회색	
25	송천동	4호주거지	구연										격자문	암적갈색 연결	a
26		1호구상유구	구연		13.2									회갈색 연결	a
27		13호주거지	구연		15.2									회청색 연결	a
28		32호주거지	구연											회백색 연결	b
29	십포리		구연		16.2									후색	a
30			구연											회백색 연결	b
31	죽막동		구연		14.3									회적색 경질	b
32			구연		13.1									회적색 경질	b
33			구연		14.8									회색 연결	a
34	부곡II	3호주거지	구연		17.2									연회색 연결	a
35		12호주거지	구연		14.5									연황색	b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 지름	바닥 지름	동체 높이	동최 대경	동최 대경 높이	목 지름	돌기 위치	바닥 모양	문양	색갈 조성도	구연 형태
36	부곡Ⅱ	구상유구	구연		13.1									연황색	a
37	대동리	5호주구묘주구	완형	35.9	13.6	16.6	29.1	32.9	16.9	13.6		평저		흑갈색 연질	a
38	장동리	27호주거지	구연											흑회색	
39	신리Ⅲ	수혈	구연+ 동체		12.8									회갈색 경질	b
40	부곡리	2호주거지	구연		12.7									회청색 연질	
41		4호주거지	구연		12.4									회청색 연질	a
42	교운리	10호주거지	구연		30.2									회색 연질	b
43	봉덕	7호주거지	구연											회황색 연질	b
44		12호주거지	구연											회흑색 연질	
45		18호주거지	구연		14.6									회흑색 연질	b
46		19호주거지	구연		12									연회색 연질	b
47			구연											적갈색 연질	
48		30호주거지	완형	23.3	12.8		18.3	27.6	10.5	12.1		원저	무문	연황색 연질	a
49			완형	30.7	14.2		21.2	35.2	14.9	15.7		원저	무문	연황색 연질	b
50			완형	25.9	14.8		21.2	32.2	11.3	14.4		원저	무문	적갈색 연질	a
51			구연		13.8									회백색 연질	a
52		34호주거지	구연											연회색연질	
53		46호주거지	구연		16.8									회황색 연질	a
54			구연		13.2									연회색 연질	b
55			구연											연회색 연질	a
56		47호주거지	구연											회백색 연질	a
57		49호주거지	구연											암갈색 연질	a
58		나지표	구연+ 바닥			10.7						평저		회청색 경질	a
59	만동	4호묘(주매)	완형	24.1	10.4		20.5	32.2	12.1	12.4		원저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연갈색 연질	a
60		8호묘(주매)	완형	17.4	11.2		14	22	8.8	11.9		원저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연갈색 연질	a
61		8-1호토광묘	완형	27.2	13.8	20	22.7	31.2	13.2	13.3	0.76	평저	무문	흑회색 연질	a
62			완형	31	11.8	17.4	24.4	31.2	14.5	11.9	0.77	평저	무문	흑회색 연질	c
63		8-1호옹관묘	완형	19.4	14.4		14.1	28	8	16.7		원저	무문	흑회색 연질	a
64		9호묘(주구)	완형	32.2	14	18.4	28.1	30.2	19.1	12.7	0.86	평저	무문	흑회색 연질	a
65		9-5호옹관묘	완형	13.9	10.2		10.7	16.1	6.4	11.4		원저	무문	흑회색 연질	b
66		9-6호옹관묘	완형	12.6	9.1		10	14.7	6.3	8.9	0.69	원저	무문	회갈색 연질	b
67			완형	22	9.6		19.5	24	11.1	9.9		원저	무문	연갈색 연질	a
68		10호묘(주매)	완형	30	12.5		24.8	30.6	14.6	12.7		원저	평행문+격자문	명갈색 연질	b
69		10호묘(주구)	구연		18.6								평행문+횡침선	회갈색 연질	a
70		11호묘(주매)	완형	25.4	11.4	16	20.6	24	11.1	11.4		평저	무문	회갈색 연질	a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체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깔소성도	구연형태
71	만동	12호묘(주배)	완형	29	15.4	19.6	23	27.6	12.9	15.5	0.70	평저	무문	흑회색연질	a
72			완형	30.6	13.2	16	24.2	34.4	14.6	15.4		평저	무문	흑회색연질	a
73		12-1호옹관묘	완형	25.2	13.2		19.5	31.6	11.2	13.6		원저	무문	회갈색연질	a
74			구연유실	(22)	12.8			30					무문	회갈색연질	a
75		13호묘(주배)	완형	28.8	17	23	21.9	31.8	11.2	15.8	0.82	평저	무문	흑회색연질	a
76		3호토광묘	완형	28	13	18	21.3	27.7	13.2	14.7	0.84	평저	무문	흑회색연질	a
77	예지리	1호토광묘	완형	24	12	23.7	18.4	26.9	8	13		평저	무문	암회황색	b
78		16호토광묘	완형	28	11		22	26.5	9.5	13.9	0.76	굽	평행문+횡침선	명황갈색연질	b
79	라본	지표	구연										거치문+격자문	회청색경질	c
80	신당	지표	구연											회황갈색연질	b
81	성남리														
82	마전	4호주거지	구연												a
83		5호주거지	구연		13									회색연질	a
84	군동라	1호주구토광묘	구연+바닥		11.4	17.8						평저	무문	적갈색연질	a
85		1-1호옹관	완형	23	12.5		17.9	26.8	9.8	11.9		원저	평행문+격자문	적갈색연질	b
86		2호주구토광묘	구연+바닥		18.6	25						평저	무문	적갈색연질	a
87			바닥			16.3						평저		회백색연질	
88		4-1호토광묘	바닥			11.7						평저		회색연질	
89		6호주구토광묘	구연+동체		18.6			40					무문	적갈색연질	b
90		6-2호주구토광묘	구연		14.7									흑회색연질	a
91			바닥			13.6						평저		적갈색연질	
92		8호주구토광묘	구연											흑색연질	
93		10호주구토광묘	완형	34	13.2	21.3	28.7	29.4	15.3	13	0.76	평저	무문	회백색연질	a
94			구연											흑회색연질	
95			구연		12.4									회백색연질	b
96												평저		흑회색연질	
97		10-2호옹관묘	동체					28					무문	회백색연질	
98		11호주구토광묘	완형	19.2	12.1	5.1	15.1	23.4	10.2	11.5		원저	무문	회백색연질	a
99			구연+바닥			15.5						평저		적갈색연질	
100		13호주구토광묘	바닥			12.6						평저		황갈색연질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최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깔	소성도	구연형태
101	군동라	20-1호용관묘	바닥			16						평저		황갈색	연질	
102			바닥			14						평저		회백색	연질	
103		21-1호토광묘	완형	26.9	12.6	15.9	20.2	24.5	12.8	11.1	0.77	평저	무문	회백색	연질	a
104			구연 유실	(18)		17.1	14.9	23.1	8.8	12.4		평저	무문	회백색	연질	
105		21-1호용관묘	구연 유실	(34.4)		21.6	30.7	31	14.6	14	0.72	평저	무문	황갈색	연질	
106		22-1호용관묘	완형	53.2	39.4		43.2	49.2	31.9	38	0.74	원저	격자문+무문	황갈색	연질	b
107		2호토광묘	완형	18.6	13.6		15	22.6	8.6	13.4		원저	무문	적갈색	연질	a
108		5호토광묘	바닥									원저		회백색	연질	
109		2호구상유구	바닥			18.8						평저		적갈색	연질	
110		지표	바닥			15						평저		회백색	연질	
111		지표	바닥			20.8						평저		회백색	연질	
112		지표	구연											회청색	경질	
113		B1호토광묘	완형	17.4	12.1	12.2	11.6	20.2	6.7	11.5		평저	무문	회백색	연질	b
114		B1호용관묘	바닥			15.3						평저		회백색	연질	
115	군동가	1호가마	구연		15.4									회색		b
116		2호가마	구연		13.3									회색		a
117			구연		15.5									회색		a
118		3호가마	구연											회색		a
119		도랑	구연		12.7									회색		b
120			구연		13.4									갈색		a
121			구연		11									회색		a
122	하화	A호	완형	24.3	15.6	10	19.4	22.7	13.3	14.3		평저	무문	연다갈색	연질	a
123		B호	구연											황갈색		a
124	구산동	지표수습	구연											갈색	연질	c
125	장혈	석실분추정	완형	13.3	8.2		9.9	15.8	5.8	9.8		원저	무문	회갈색	연질	a
126	오룡동	지표	구연+ 동체										승석문+격자문	회색	연질	
127	일곡동	가1호주거지	구연		13.6									연갈색		a
128			구연		19.5								격자문	회청색	경질	a
129			구연		17.2								격자문	흑갈색	연질	a
130			구연		16.4									회색	연질	a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최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깔 소성도	구연형태
131	일곡동	가2호주거지	완형	40	20.2		34.3	36.4	22.8	20.5		원저	무문	연회색 연질	a
132			구연											회청색 경질	
133	신창동	2호옹관	완형	52.7	15.2		47.6	35.3	35.5	18		원저	무문	황갈색 연질	a
134		Ⅲ기층	구연		20.4									회색 연질	b
135			구연		18.4									회색 연질	b
136			구연		15.6			38.6						흑갈색 연질	a
137		S2E5	구연		15.7									회색 연질	a
138	용봉동	2호도랑	구연		16.6									회청색 경질	b
139			구연											회청색 경질	b
140			구연		11								거치문+평행문 +횡침선	회청색 경질	a
141	쌍촌동	8호주거지	구연											회색 연질	
142		10-1호주거지	구연											연회색 연질	a
143		11호주거지	구연											적갈색 연질	a
144			구연		17.6									암적색 연질	a
145			구연		12.4								무문	황갈색 연질	a
146			구연+ 동체	(31.8)	19.6								격자문+횡침선 +격자문	회청색 경질	a
147		15호주거지	구연											암갈색 연질	
148			구연		14								무문	암갈색 연질	a
149			구연+ 동체		15.8							원저	무문	적갈색 연질	a
150			구연+ 동체		15							원저	무문	적갈색 연질	a
151		16-2호주거지	구연									원저	무문	회청색 연질	a
152			구연+ 동체	(21)	15.2							원저	무문	적갈색 연질	a
153		18-1호주거지	구연											회색 연질	
154		22호주거지	구연											회백색 연질	
155			구연										격자문	암갈색 연질	
156		23-2호주거지	구연											적갈색 연질	
157	쌍촌동	24-1호주거지	구연											적갈색 연질	a
158		24-2호주거지	구연											회색 연질	
159			구연		13.4									황갈색 연질	a
160		30호주거지	구연		18.2								무문	황갈색 연질	b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최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깔 소성도	구연형태
161	쌍촌동	32호주거지	구연										승문	회색 연질	
162		38-1호주거지	구연											회색 연질	
163		39호주거지	구연											회색 연질	
164		42호주거지	구연											적갈색 연질	
165		48호주거지	구연											회백색 연질	
166		49호주거지	구연+동체										무문	황갈색 연질	
167		51호주거지	구연											회백색 연질	
168			구연											흑갈색 연질	
169		54호주거지	완형	46.4	13.8		40.9	33.9	30.2	15.7		원저	무문	연회색 연질	a
170	풍암동	지표	구연											회갈색 연질	b
171	세동	5호주거지	구연												
172		7호주거지	구연											적색 연질	
173	운포	4호주거지	구연		18									회백색 연질	a
174	방축	31호주거지	구연+동체		20								격자문	회백색 연질	b
175			구연											황회색 경질	
176	복암리	1호분주구동구	완형	22.8	9.5	11.6	19.6	19.4	13.6	10.1	0.73	평저	무문	회청색 경질	a
177		1·2호분사이 7호옹관	완형	22	11.9		18.5	29.2	10.9	12.4		원저	무문	연회색 연질	a
178	만가촌	2호분주구	구연											연회색 연질	
179		3호분주구	구연+바닥	(22)	13.5	19.5						평저	무문	흑갈색 연질	a
180		4호분주구	구연+동체									원저	격자문	흑회색 연질	a
181			구연+바닥									평저	무문	회청색 경질	
182			구연+동체	(26)	12.5			28.7					무문	흑회색 연질	a
183		4-2호묘	구연+동체	(20.3)	13.8			28				원저	격자문	적갈색 연질	a
184			구연+바닥	(25)		15.1		29.7	17			평저	무문	흑회색 연질	
185		4-3호묘	구연+바닥	(22.5)	12.4			26.7				평저	무문	흑회색 연질	b
186		6-1호묘	완형	30.6, 31.1	11.2, 12.2	14.3	27.2	25.7	17.3	13.7	0.69	평저	무문	연회청색 연질	a
187		12호분주구	구연		13.4							평저		연황색 연질	a
188		12-2호묘	완형	19.8	13.7	11.1	15.8	19.5	10.4	14.4		평저	무문	흑갈색 연질	a
189		13호분구지표	구연											연회갈색 연질	a
190		13-2호묘	구연+동체	(27.4)	11.2			31.5				평저	무문	흑회색 연질	a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최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깔	소성도	구연형태	
191	만가촌	13-5호묘	구연 유실	(24)			21.3	31.3	12.9	11.4		원저	무문	흑회색	연질		
192		13-6호묘	완형	23.1	9.1		18.8	32.1	10	13.1		원저	격자문	회청색	경질	a	
193		13-8호묘	완형	15.5	11.5		13.7	17.2	9.1	14		원저	격자문	적갈색	연질	a	
194		2호분주변	구연												회청색	경질	a
195		4호분주변	구연+ 동체									평저	무문	암회청색	연질		
196	순촌	16호주구토광묘	완형	30.75	12.6	21.6	24.5	26.5	15.1	13.8	0.80	평저	무문	적갈색	연질	c	
197		20호주구토광묘	완형	26	12.8	14.1	19.8	25.1 5	12.3	13.7	0.72	평저	무문	황갈색	연질	a	
198			완형	19.1	13.8		15.5	25	9.6	12.9		원저	무문	적갈색	연질	a	
199		29호주구토광묘	완형	25	13.6		20.1	28.8	10.3	14		원저	거치문	회백색	연질	a	
200		32호옹관묘	완형	120	80								격자문	회청색	경질	c	
201			구연 유실	(14.9)		10.2	13.3	16.5	8.7	10.6	0.74	평저	무문	황갈색	연질		
202	용산리	3호주거지	완형	22	13.1	13.8	18.8	26.1	11	12		평저	무문			a	
203	대성	1호주거지	완형	24	13.4		20.6	26.1	11.4	13.3		원저	무문	회백색	연질	a	
204	소명동	2호주거지	완형	22.5	14.8	10.6	17.8	21.5	12.9	12.9		평저	무문	적황색	연질	a	
205		6호주거지	완형	14.1	10.8	8.8	10.9	15.5	6.8	11.4		평저	무문	황갈색	연질	a	
206		10-1호주거지	구연		13.8										황갈색	연질	a
207		11-1호주거지	구연												황갈색	연질	
208		17호주거지	구연+ 동체	(13)	13.4			18.1						무문	흑색	연질	a
209		18호주거지	구연+ 동체		15.4			25.8							황적색	연질	a
210			구연+ 바닥		27.4	20						평저		황백색	연질	a	
211		27호주거지	완형	17.9, 18.7	11.5	12, 11, 25.8	14.7	6.3, 15.5, 33.1	8.4	12, 12.4		평저	무문	황갈색	연질	a	
212			완형	37	12.3		34	27.3	23.8	15.1		원저	무문	황갈색	연질	a	
213		31호주거지	구연												황갈색	연질	a
214		32호주거지	구연		19.2										회청색	연질	a
215		59-1호주거지	구연		10.8										적갈색	연질	a
216		64호주거지	구연+ 바닥			8.3		13.7				평저	무문	암적갈색	연질	a	
217		72호주거지	구연+ 바닥	(47.6)	22.1		42.5			21.3		원저	무문	황적색	연질	a	
218		75-3호주거지	완형	29	15		24.1	32.9	14	14.2		원저	무문	회백색	연질	a	
219		88호주거지	구연+ 바닥									평저		황백색	연질		
220		91호주거지	구연		10.8										회백색	경질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최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깔 소성도	구연형태
221	중랑	8호주거지	완형	39.7	12.5	17.1	33.8	29.4	27.3	11.2	0.86	평저	무문	황갈색 연질	b
222		23호주거지	구연+동체									원저	평행문+횡침선+격자문	흑색 연질	
223		26호주거지	구연										평행문	회백색 연질	
224		28호주거지	구연		11.6									회청색 경질	a
225			구연											회색 경질	a
226		39호주거지	완형	22.2	13		18	31.7	9.8	13.4		원저	평행문+횡침선+격자문	회청색 경질	b
227		48호주거지	구연										격자문+횡침선	황회색 연질	
228			구연+동체					15.9						회청색 경질	a
229		61호주거지	구연											황갈색 연질	a
230			구연										거치문+평행문	황갈색 연질	a
231		67호주거지	구연		17.6								거치문	회백색 경질	a
232		68호주거지	구연											회백색 연질	b
233		71호주거지	구연											황백색 연질	a
234			구연											회청색 경질	b
235		73호주거지	구연											황갈색 연질	c
236		91호주거지	구연											회백색 연질	
237		94호주거지	구연											황색 연질	a
238			구연유실	(12.8)		9.4	10.2	15.2	6.6	11.6		평저	무문	흑색 연질	
239		101호주거지	구연		11.1									회청색 경질	b
240		107호주거지	구연											흑갈색 연질	c
241		108호주거지	구연		13.4									흑색 연질	b
242		128호주거지	구연		16.6									회청색 연질	a
243		129호주거지	구연	(43)	17.8							평저	무문	적갈색 연질	a
244		171호주거지	구연											황갈색 연질	a
245	성남	4호구상유구	완형	39.2	12.1	16.2	34.2	29.7	22.6	12.2	0.82	평저	격자문	회백색 연질	a
246		1호옹관	바닥			22.8						평저		황갈색 연질	
247	인평	2호토광묘	완형	21.8	11.2		18.3	24.9	9.4	10.7		원저	평행문+횡침선+격자문	회백색 경질	a
248	양장리	96-6호주거지	구연		10.4									회색 경질	b
249		96-11호주거지	구연										평행문	회색 연질	a
250		94-9호주거지	구연+동체	(40)	25.8			31.2					격자문		c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최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갈 조성도	구연형태
251	양장리	수로1	구연		19.2									회청색 경질	b
252			구연		20.4									흑색 연질	c
253			구연		24.6									회색 연질	b
254		S1W3	구연		12.4									회청색 경질	b
255	용호	9호분	완형	31	15.8	19.6	28.7	28.3	21.3	17.2	0.78	평저	무문	황색 연질	a
256		15호분	구연 유실	(22)		15.8	23.8	21.6	12.9	12.5		평저	무문	회백색 연질	
257		17호분	완형	23.3	7.3	14.2	19.3	18.9	12.8	8.1	0.74	평저	무문	적갈색	a
258	신산	옹관묘	완형	16.5	11.6		13.2	20.6	7.9	11.8		원저	격자문	연질	a
259	송산	옹관묘	완형	30	11.5	14	25.8	25.4	16.5	12.4	0.91	평저	무문	연질	a
260	몽해리	지표수습	구연		17.5								거치문		a
261		지표수습	구연		15.6										a
262	금계리	4호주구토광묘	바닥			17.4						평저		흑회색 연질	
263		7호주구토광묘	구연											회청색 경질	a
264	선황리	22호주거지	구연											회백색 연질	a
265		4호구상유구	구연		12.8									회청색 연질	b
266	요곡리	2호토광묘	구연+ 동체	(31.5)	19.8			35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흑색 경질	a
267	도룡	56호주거지	완형	34	17		31.2	22.6	21.2	18	0.81	원저	승석문+격자문	황갈색 연질	a
268	금평	3호구상유구	구연		19.7									회색 연질	c
269	지천리	12호주거지	구연		23.7								거치문	회색 연질	a
270	상방촌A	1호주거지	구연		11.8									황갈색 연질	a
271		10호주거지	완형	22.7	14.4		18.7	24.9	9.2	14.2		원저	무문	황갈색 연질	a
272		11호주거지	구연											회청색 경질	
273	신금	1호주거지	완형	27.2	13.7		23	33.8	14.4	12.5		원저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회백색 경질	a
274		7호주거지	구연		16									회백색 연질	a
275		32호주거지	구연+ 동체										평행문	황백색 연질	a
276		33호주거지	구연										평행문	회백색 연질	a
277		51호주거지	완형	14	11.5		12.7	18.3	7.7	13.7		원저	무문	황갈색 연질	a
278			완형	26.1	17.1		20.9	34.2	12.8	16.8		원저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황갈색 연질	a
279			구연		18.4								평행문	회백색 연질	a
280		55호주거지	완형	24.2	13	15.4	18.5	22.4	12.4	13		평저	무문	암갈색 연질	a

번호	유적명	유구명	부위	높이	입지름	바닥지름	동체높이	동최대경	동최대경높이	목지름	돌기위치	바닥모양	문양	색갈 소성도	구연형태
281	신금	55호주거지	구연 유실	18.8			16.6	24.2	8.5	11.8			격자문	암갈색 연질	
282			구연											황갈색 연질	
283		57호주거지	완형	27.4	14.8		22.2	33.1	11.4	17			평행문+횡침선 +격자문	적갈색 연질	a
284		60호주거지	완형	35.4	15		29.3	33.1	21.9	17.1			격자문	암갈색 연질	a
285		63호주거지	구연		17.2									황백색 연질	a
286		67호주거지	구연		16.8									황갈색 연질	a
287			구연		15.8									암갈색 연질	a
288	군곡리	V기층	구연		13										a
289		V기층	구연		18.8										a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사 학 과	학 번	10311021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왕 준 상 한문 : 王 浚 相 영문 : Wang Jun Sa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108동 504호				
연락처	E-MAIL : js5978@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국 서남부지역 이중구연호 연구				
	영문 : A Study of Pottery with two-fold mouth in Southwest Korea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07년 8월 일

저작자: 왕 준 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